

# 7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6. 4.



# 목 차

## I. 재정패널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	1
2. 조사 목적 .....	1
3. 기대효과 .....	2
4. 조사개요 .....	2
5. 조사 진행 일정 .....	4

## II. 조사 설계

1. 표본설계 .....	5
2. 패널유지율 .....	11
3. 가중치 산출 .....	17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26

## III. 조사 내용

1. 설문지 구조 .....	29
2. 가구용 설문지 내용 .....	30
3. 가구원용 설문지 내용 .....	33

## IV. 실사 진행 과정

1. 주별 진행 상황 .....	37
2.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	37
3. 가구 설문지 응답자 선정 .....	38
4.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 선정 .....	38

## V. 재정패널 표본 특성

-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40
- 2. 표본 가구의 구성 ..... 41
-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42

## VI. 주택 현황

- 1. 거주 주택 현황 ..... 45
- 2.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현황 ..... 62
- 3. 주택 구입 현황 ..... 65
- 4. 주택 매각 현황 ..... 68

## VII. 가구 소득

- 1. 가구 소득 구성 ..... 73
- 2. 가구 정상 소득 현황 ..... 74
- 3. 가구 비정상 소득 현황 ..... 84

## VIII. 가구 지출

- 1. 가구 지출 구성 ..... 90
- 2.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91
- 3. 가구 비소비 지출 현황 ..... 110

## IX. 자산 및 부채

- 1. 가구 자산 및 부채 구성표 ..... 121
- 2.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122

## X. 이력조사

- |               |     |
|---------------|-----|
| 1. 출산이력 ..... | 137 |
| 2. 직업이력 ..... | 142 |

## I. 재정패널조사의 개요

### 1. 조사 배경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효율적인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패널조사를 통해 생산된 종단 조사 자료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횡단 조사 자료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패널조사의 장점을 인식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등)를 기획하여 장기간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과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시 정책효과 제시의 선행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청년실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가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정책의 성과 평가나 정부지출의 불합리성 및 국민부담의 개선을 위한 평가를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자료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가장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자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가계의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2008년 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2015년 2월 현재 8차년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 2. 조사 목적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

를 수집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하는 조사 자료로서,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3. 기대효과

재정패널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면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기준년도 분석에서 패널 데이터로 인해 시간흐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 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 데이터가 종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조세, 재정 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경우 연구의 특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데이터의 부재로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 4. 조사개요

#### 가. 조사대상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대상은 1차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가구와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 추출한 620 가구이다. 추가 추출한 가구는 1차년도 구축된 가구 중 2차년도 조사시점 당시 조사에 대한 강력 거절하였거나 추적에 실패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 할 수 없던 가구를 대신하여 추출한 가구들이며, 이러한 가구들을 포함한 5,634가구를 원표본 가구로 정의 하였다. 원표본 가구는 이사, 분가, 합가시에도 계속 추적하여 조사되는 가구로 조사

대상이 소멸할 때까지 추적한다. 원표본 가구의 가구원이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한 경우에는 원표본 가구가 아니더라도 추적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가구는 분가가구라고 하며, 자연적인 가구 구성 변화로 인한 특성들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설문지의 구성

재정패널 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과 가구원(개인)용이 세트를 이룬다. 가구 설문지는 가구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설문지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응답 받는다. 가구 설문지에서는 가구원 인적사항 및 가구의 일반 현황, 소비지출 및 가계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 설문지는 가구원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과 소득세 납부액, 소득 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조사되며 종단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정패널 조사는 부가조사의 형태로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현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부가 조사는 종단 분석이 가능한 문항들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1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차수마다 그 주제가 변경된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소득이 없더라도 20~ 39세의 기혼 여성과 그 배우자이라면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5차년도 조사에서는 타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부모 및 가구주 배우자 부모의 정보를 조사하였다. 6차년도 조사에서는 가구원의 출산이력과 개인의 직업이력에 대한 문항을 부가조사의 형태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부가조사는 1회 조사만 진행되지만 종단자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종단면 분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다. 실사 수행기관

7차년도 조사의 실사 수행기관은 2014년 2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에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다. 공모 결과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Research International이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 라. 조사기간 및 조사 기준시점

7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14년 5월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되었다. 재정패널조사의 상당수 문항들은 작년 한해(7차년도의 경우 2013년)의 상황을 묻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13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저장(stock)은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단, 가구원 설문지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1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마. 조사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치 조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조사 도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5. 조사 진행 일정

7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1> 재정패널 조사 진행 일정

항목	진행 일정	
	6차년도	7차년도
조사 용역 수행 기관 선정	3월	3월
조사 설계 및 협의	3 ~ 4월	3 ~ 4월
면접원 교육	4월 23 ~ 25일	4월 28 ~ 30일
현장 실사 진행	5 ~ 8월	5 ~ 8월
검증 및 통계 처리	7 ~ 9월	7 ~ 9월
중간보고회 개최	8월 8일	8월 8일
1차 데이터 제출	10월 8일	10월 8일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	11월 1일	11월 5일
최종보고회 개최	12월 17일	12월 29일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27일	12월 26일
2차 데이터 제출	12월 27일	12월 26일
자료 신뢰도 보고서 제출	14년 1월 10일	15년 1월 9일

## II. 조사 설계

### 1. 표본설계

#### 가. 모집단(표집틀)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단위를 기본조사대상으로 하며,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이다. 일반가구란 1인 또는 1인 이상의 가족(친인척)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의 생활을 6개월 이상 지속하여온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원은 조사대상 가구에 6개월 이상 경제생활을 함께 하며 생활한 사람으로, 가정부 및 종업원, 하숙생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고,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하지 않은 가족 중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하여 비동거한 경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표집틀(sampling frame)로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통계청에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90%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재정패널 조사의 최초 시작시점(2008년)과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작성 시점(2005년)간에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모집단의 특성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있었다. 이점에 유의하여 표집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 나. 표본크기 설정

표본크기는 표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표본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모집단과의 표본오차는 감소할 수 있으나, 일정한 표본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차의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 표본크기 증가의 효과가 감소한다. 또한 조사여건에 맞지 않게 표본수를 크게 설정 할 경우 무리한 조사 진행 등으로 인해 오히려 비표본 오차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설정할 때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며, 조사목적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패널 조사는 적절한 유효 표본수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증 및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목적과 정해진 예산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표본수는 5,000 가구였으며, 이 가구들의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며 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

## 다. 표본설계 개요

표본 크기 결정 및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저항 등 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는 2007년에 실행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1차년도 조사에서는 계속 추적하여 조사할 대상인 원표본 가구를 추출하는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추출된 가구는 총 5,014개 가구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기에 2차년도 조사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었다.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원표본으로 구축한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하고, 분가한 가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의 조사성공률(패널유지율)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5,014가구 중 4,396가구(87.7%)만이 조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사성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종단조사의 패널유지율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종단조사의 경우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계속 조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조사실패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가구 내부 사정 등에 의한 응답거절, 이사·이민·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미고지 등에 의한 추적 실패도 함께 나타난다. 아직 면접원과의 친밀도(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패널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노동패널조사 87.6%, 미국 PSID 88.0%, 독일 GSEP 90.0%, 영국 BHPS 88.0%).

이 같은 상황에서 원표본 패널의 탈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1차적 과제이나, 조사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가구에게 계속 조사요구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표본에 대해서는 추가 표본을 추출해서 대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런 즉각적인 추가표본의 존재는 국내 다른 패널에서 찾아보기 힘든 재정패널조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 당시 설정한 크기(5,000가구 이상)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매년 추가표본을 추출한다면, 가중치 보정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종단분석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조사부터는 추가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표본가구와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종 구성된 재정패널조사 원표본의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lt;표 II-1&gt; 재정패널조사 원표본 정의

구분	용어
1차년도 추출표본: 5014가구	1차년도 추출표본
2차년도 추가 추출표본: 620가구	2차년도 추출표본
원표본	1차년도 추출표본 + 2차년도 추출표본 (5,634가구)

### 1) 원표본 추출 과정-1차년도 추출표본

1차년도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축아파트 입주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는데, 이 때 조사구는 전수조사구 90%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2005년 조사 당시에 없었던 지역으로 센서스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5년 11월 이후 입주아파트를 우선 60~80가구 정도씩 묶어 일종의 가상적인 조사구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가구추출률과 비슷한 추출률이 유지되도록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실제 분포보다 많이 표집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했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추출하는 가구수는 5개로 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과대표집 조사구도 역시 한 개의 조사구에서 5개 가구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 표본 5,010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조사구 수는 1,002개로 설계하였고, 5,014 가구가 표집 되었다. 1차년도에 최종 표집 된 표본의 구성표는 다음 표와 같다.

&lt;표 II-2&gt; 1차년도 추출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108	1,797	620	174	275	40	5,014
서울	556	429			90		1,075
부산	225	130	10		20		385
대구	150	95	10	10	15	5	285
인천	116	105	10		15		246
광주	95	80			10		185
대전	95	76			10		181
울산	55	55	10	10	10		140
경기	326	371	75	44	45	15	876
강원	60	60	35	10	10		175
충북	55	61	35	10	5	5	171
충남	50	50	70	20	10	5	205
전북	85	75	75	10	10		255
전남	65	55	115	10	10		255
경북	80	70	110	20	5	5	290
경남	95	85	65	30	10	5	290

## 2) 원표본 추출 과정-2차년도 추출표본

2차년도 추출표본을 추가한 방식은 확률추출법에 의거하도록 하는데, 탈락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rightarrow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lt;표 11-3&gt; 2차년도 추가추출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전국	294	216	37	19	48	6	620
서울	102	78			25		205
부산	28	13			3		44
대구	15	7	2	1	4		29
인천	18	18	2		2		40
광주	8	6					14
대전	15	5					20
울산	7	5		1			13
경기	56	42	8	7	9	3	125
강원	5	2	2	1			10
충북	9	8	7	2	1	2	29
충남	3	5	6		2		16
전북	7	6	3		2		18
전남	3	3	1				7
경북	9	8	3	4			24
경남	9	10	3	3		1	26

## 3) 재정패널조사 원표본 구성

재정패널조사의 최종 원표본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lt;표 II-4&gt; 재정패널조사 원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지역특성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402	2,013	657	193	323	46	5,634
서울	658	507			115		1,280
부산	253	143	10		23		429
대구	165	102	12	11	19	5	314
인천	134	123	12		17		286
광주	103	86			10		199
대전	110	81			10		201
울산	62	60	10	11	10		153
경기	382	413	83	51	54	18	1,001
강원	65	62	37	11	10		185
충북	64	69	42	12	6	7	200
충남	53	55	76	20	12	5	221
전북	92	81	78	10	12		273
전남	68	58	116	10	10		262
경북	89	78	113	24	5	5	314
경남	104	95	68	33	10	6	316

## 4) 분가가구 추적 조사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결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분가한 경우 해당 가구원을 추적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해당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신규가구로 처리하는데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이러한 가구들을 분가에 의한 신규 가구(이하 분가 가구)라고 정의한다. 분가 가구의 경우 원표본 추출법에 의거하여 추출된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단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횡단면 가중치만 제공된다. 해당 가구는 재정패널조사의 대상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없던 가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가구에서 분가하는 가구원들의 경우 결혼,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가구원들이 많고, 분가는 정상적인 가구 분리 현상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가 가구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패널가구의 노쇠화가 진행되고 신

규 생성가구는 조사에서 누락되므로 전체 모집단 특성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분가가구 추적 시에는 가구의 정의에 따라 조사시점 작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생성된 가구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7차년도의 경우 2013년 6월 이전 분가한 가구원의 가구는 정식 분가가구로 인정하여 새로운 가구의 경제활동을 모두 조사하지만, 2013년 7월 1일 이후 분가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2013년에 원 가구에서 6개월 이상 동거하였기 때문에 원 가구의 가구원으로 분류하여 다음해부터 정식 분가가구로 인정한다.

가구원의 전출이 발생하였더라도 분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군입대나 가출의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결혼하지 않은 대졸자 이하의 자녀가 학업목적으로 분가했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원 가구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가로 추적 조사하지 않았다.

## 라. 가중치 구성 개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기획되었으나, 조사대상의 조사 참여를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체 무응답(Unit non - response)이 발생한다. 개체 무응답으로 인한 모수추정의 편의(bias)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가중치를 통한 보정방법이 사용되며, 재정패널조사에서도 가중치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초기 재정패널조사 가중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생산되어 제공되었다. 3차년도 조사가 완료된 후 원표본의 기준을 1차년도 조사에서 추출된 표본과 2차년도 조사의 추출표본을 포함한 표본로 나누어 2개의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다. 즉, 3개년도(2008년~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개년도(2009년~2010년) 종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 작성하였다. 이는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선택에 맡겨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2차년도에 추출된 표본이 탈락한 가구를 완벽히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가중치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패널조사 자료에 각기 다른 종단면 가중치가 존재할 경우,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조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탈락했던 원가구가 다시 조사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 가중치 부여의 중복이 발생하는 현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추출된 가구를 모두 원표본으로 정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에서는 2차년도에 추출된 620개 표본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1차년도 최초표본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한다. 2차년도 이후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기준으로 계속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전년도의 무응

답 보정 가중치에 다음 연도에서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응답 보정과 레이킹 보정이 이루어져 산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의 3절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2. 패널유지율

### 가. 원표본 유지율

1차년도 추출가구와 2차년도 추출가구로 구성된 원표본 5,634가구 중 7차년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4,426가구로 원표본 유지율은 78.6%이다. 80%에 육박하는 수준의 유지율은 재정패널 조사가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원표본에 대한 조사 성공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7.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0.5%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지방의 탈락률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탈락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원표본 유지율: 분모에 사망과 이민 포함

시도	지역별 원표본 가구수 (가구)	6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가구)	원표본 유지율 (%)
전국	5,634	4,426	78.6
서울	1,280	903	70.5
부산	429	343	80.0
대구	314	255	81.2
인천	286	209	73.1
광주	199	169	84.9
대전	201	170	84.6
울산	153	120	78.4
경기	1001	766	76.5
강원	185	158	85.4
충북	200	170	85.0
충남	221	184	83.3
전북	273	224	82.1
전남	262	228	87.0
경북	314	254	80.9
경남	316	273	86.4

주: 원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추출표본과 2차년도 추가추출표본의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6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위의 표에서 살펴본 '원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구축된 원표본 가구를 분모에 모두 포함하였을 때(n=5,634)의 유지율이다. 그러나 동일한 가구를 계속 추적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는 조사 대상인 원표본 가구의 '사망'과 '해외이민'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가구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조사 실패가 아닌 대상 소멸로 판단 할 수 있고, 유지율 산출시에도 소멸된 가구를 제외한 유지율(이하 유효표본 유지율, n=5,553)을 제시하여 보다 정확한 유지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lt;표 II-6&gt; 표본 유지율 계산방법

구분	계산법	유지율 산출 분모
원표본 유지율	표집된 원가구 전체를 분모로 함	5,634
유효표본 유지율	원가구 중 소멸가구(이민과 사망)를 분모에서 제외	5,553

1차년도 조사 이후 소멸한 가구를 제외하여 산출한 유효표본 유지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lt;표 II-7&gt; 유효표본 유지율: 분모에서 사망과 이민 제외

시도	지역별 원표본 가구수	6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표본 유지율
전국	5,553	4,426	79.7
서울	1,265	903	71.4
부산	418	343	82.1
대구	309	255	82.5
인천	281	209	74.4
광주	197	169	85.8
대전	200	170	85.0
울산	150	120	80.0
경기	992	766	77.2
강원	184	158	85.9
충북	194	170	87.6
충남	218	184	84.4
전북	267	224	83.9
전남	257	228	88.7
경북	307	254	82.7
경남	314	273	86.9

주: 유효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추출표본과 2차년도 추가추출표본의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7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6차년도 조사부터는 사망 및 해외거주로 인한 가구 소멸이 2개년도 이상 확인 된 경우에만 대상 소멸로 인정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6차년도에 이어 7차년도 연속 소멸로 분류된 가구는 총 81가구로, 해외이민(해외 장기거주)으로 파악된 가구

는 31가구, 가구원 전원 사망에 의해 소멸한 가구는 50가구이다. 유효표본 유지율에서는 5,634개의 원표본 가구 중 소멸된 81가구를 제외한 5,553개의 가구가 유지율 산출의 분모로 적용되었다. 유효표본 유지율의 계산 결과, 7차년도 유지율은 79.7%(전국기준)로 나타났다.

재정패널조사의 7차년도 원표본 유지율 수준은 국내외 우수 패널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의 유지율이며, 국내 패널조사는 재정패널조사의 유지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외 패널 조사와는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은 유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8>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 유지율 비교

단위(%)	재정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미국PSID	독일GSEP	영국BHPS
2차년도	89.0(2009)	88(1999)	92(2007)	88(1969)	90(1985)	88(1991)
3차년도	84.3(2010)	81(2000)	87(2008)	84(1970)	86(1986)	81(1992)
4차년도	81.9(2011)	77(2001)	84(2009)	82(1972)	85(1987)	80(1993)
5차년도	79.9(2012)	76(2002)	80(2010)	79(1972)	81(1988)	77(1994)
6차년도	79.0(2013)	77(2003)	75(2011)	79(1973)	79(1989)	77(1995)
<b>7차년도</b>	<b>78.6(2014)</b>	<b>77(2004)</b>	<b>74(2012)</b>	<b>76(1974)</b>	<b>78(1990)</b>	<b>76(1996)</b>

주1: 괄호 안은 조사가 진행된 년도

2: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유지율은 원표본 유지율이며, 해외 사례는 노동패널 13차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재인용했으나 산출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음.

3: PSID(Panel Study Income Dynamics),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 나. 분가가구 유지율

1차년도 조사에서는 표집 되지 않았으나 2차년도 조사 이후 분가한 가구 중 6차년도 조사 시점(2013년)까지 한 번이라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총 389가구이며, 이들 중 7차년도(2014년)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345가구이다. 따라서 분가가구 원표본유지율은 88.7%로 계산된다.

&lt;표 II-9&gt; 분가가구 유지율

시도	추적해야 하는 분가가구		2013년 조사성공	분가가구 유지율	
	소멸 포함 가구수	소멸 제외 가구수		유지율A(%)	유지율B(%)
<b>전국</b>	<b>389</b>	<b>377</b>	<b>345</b>	<b>88.7</b>	<b>91.5</b>
서울	74	73	68	91.9	93.2
부산	35	34	33	94.3	97.1
대구	26	25	21	80.8	84.0
인천	15	14	13	86.7	92.9
광주	21	21	20	95.2	95.2
대전	7	7	7	100.0	100.0
울산	19	19	19	100.0	100.0
경기	53	49	45	84.9	91.8
강원	14	14	11	78.6	78.6
충북	8	8	8	100.0	100.0
충남	13	13	9	69.2	69.2
전북	28	26	24	85.7	92.3
전남	20	19	18	90.0	94.7
경북	24	23	19	79.2	82.6
경남	32	32	30	93.8	93.8
제주	0	0	-	-	-

#### 다. 조사 실패 가구 현황

##### 1) 원표본 가구 중 조사 실패·소멸 가구 유형

조사 실패한 가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분 될 수 있다.

- ① 강력거절: 표본가구가 조사 참여를 완강히 거절한 경우
- ② 추적실패(주소 불명): 전화번호 결번 등으로 사전 컨택이 되지 않으며,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사로 추정되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사망/이민/입원 등: 가구 응답자가 각각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④ 기타: 장기 부재, 약속 반복 위반, 비정상적인 응답자 등

##### 2) 원표본 가구 중 조사 실패·소멸 가구 현황

7차년도 조사 참여를 거부한 1,208가구를 사유별로 보면, 강력거절로 인한 조사 실패가 585가구로 전체의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추적실패는 502가구로 41.6%였다. 2년 연속 사망과 해외 이민 등으로 소멸이 확인된 가구는 총 81가구로 집계되었다. 표본추출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 실패 및 소멸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실패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망과 해외 이민은 7차년도에 최초 확인된 가구이며, 2회 이상 동일 사유로 확인 될 경우 소멸에 포함된다.

<표 II-10> 시도별 원표본 조사 실패 및 소멸 가구 현황

시도	조사 실패 가구							소멸가구		
	강력 거절	추적 실패	병원 입원	사망	해외 이민	기타	소계	사망	해외 이민	소계
전국	585	502	13	12	5	10	1,127	50	31	81
서울	176	181	3	1	0	1	362	5	10	15
부산	40	33	1	1	0	0	75	8	3	11
대구	37	14		0	0	3	54	4	1	5
인천	37	33	2	0	0	0	72	4	1	5
광주	19	8	0	0	0	1	28	2	0	2
대전	10	15	2	2	1	0	30	0	1	1
울산	14	16	0	0	0	0	30	1	2	3
경기	104	116	2	0	3	1	226	4	5	9
강원	12	13	0	1	0	0	26	1	0	1
충북	19	5	0	0	0	0	24	1	5	6
충남	19	15	0	0	0	0	34	3	0	3
전북	30	10	0	3	0	0	43	6	0	6
전남	16	9	1	1	1	1	29	5	0	5
경북	25	24	1	1	0	2	53	4	3	7
경남	27	10	1	2	0	1	41	2	0	2

### 3) 분가가구 중 실패·소멸 가구 현황

분가가구의 조사 실패 사유 역시 '강력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차년도에 이어 7차년도 분가가구의 조사 실패 사유에서도 '조사보류'에 의한 조사 실패 가구가 발생하였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을 원가구원이라고 명칭하며, 이들 가구원이 분가한 경우에만 추적하여 조사한다. 그러나 분가가구에서 다시 재분가가 이루어져 해당 가구에 원가구원이 남아 있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듯 분가가구의 가구원 중 원가구원 없이 분가가구원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가구원이 다시 합가 할 때까지 조사를 보류하고 있으며, 이런 '조사보류' 사유로 조사에 실패한 가구는 2가구이었다.

&lt;표 II-11&gt; 분가가구 조사 실패 사유 및 소멸가구 유형

시도	조사 실패 가구					소멸가구			
	강력 거절	추적 실패	조사 보류	기타	소계	사망	해외 거주	원가구 합가	소계
분가가구	19	8	2	1	30	1	1	8	10

### 라. 신규 분가가구 현황

7차년도 조사 결과 총 68가구의 분가 가구가 새로 조사되었다. 이 중 2013년 6월 이전에 분가한 가구는 이미 분가 가구원이 새로운 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의 지난해 경제상황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설문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가구는 36가구이며, 이 가구는 7차년도 재정패널조사결과 분석 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이후 분가하여 형성된 가구는 분가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원의 경제상황은 최초 표본가구에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8차년도 부터는 이 분가가구 또한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가구원으로 구성되므로, 차후년도 조사를 위해 분가가구를 찾아가 가구원 현황만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사된 가구는 32가구이며, 이 가구는 8차년도 조사부터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7차년도 분석과정에서 이들 가구의 데이터는 제외된다. 7차년도 조사에서 새로 표집된 분가가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학업으로 인한 분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혼인(24건), 학업(3건)순으로 나타났다.

&lt;표 II-12&gt; 분가 유형별 분가 성공 가구수

구분	혼인	직장	이혼	학업	기타	합계
전체	24	28	1	3	12	68
서울	3	8	0	1	0	12
부산	2	2	0	0	0	4
대구	2	0	0	0	1	3
인천	1	2	0	0	2	5
광주	1	2	1	0	2	6
대전	3	1	0	0	0	4
울산	6	4	0	0	2	12
경기	0	0	0	2	0	2
강원	0	1	0	0	0	1
충북	2	0	0	0	0	2
충남	2	3	0	0	3	8
전북	0	0	0	0	2	2
전남	0	2	0	0	0	2
경북	2	3	0	0	0	5
경남	2	0	0	0	0	2

### 3. 가중치 산출

#### 가. 가중치 산출 목적 및 필요성

가중치 산출의 궁극적 목적은 표본조사 자료의 분석결과가 모수의 불편 추정량(근사 불편 추정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패널조사와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panel survey)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웨이브(wave)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원 패널가구의 가구원이 분가 등을 통해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게 되면서 신규 가구가 패널에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기 위해서는 가중치 산출 및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널조사의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한 표본 및 모집단 변동을 감안한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횡단면(cross-sectional)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함께 동적 변화 파악을 위한 종단면(longitudinal) 분석용 가중치를 분리하여 생성하고 적용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통계분석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다.

#### 나. 1차년도(2008년) 조사 가중치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 표본 설계 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또는 레이킹(raking ratio)에 의한 조정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재정패널조사의 1차년도 가중치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다.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보정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 1) 표본설계

재정패널조사를 위한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와 2006~2008년 신규 아파트 자료를 병합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발생한 가구 모집단의 변화를 표집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규 아파트 자료의 구분 변수를 1차 층으로 정의하고 각 층으로부터 독립적인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재정패널 표본을

구성하였다(p.8 <표 II-2> 1차년도 조사 추출표본 구성 참조).

각 표집틀로부터 가구 추출을 위해서는 각 표집틀을 층화한 후 각 층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층화 이단계 추출법이 사용되었다. 9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 읍면/동부, 일반/아파트가 사용되었으며 층내의 조사구 정렬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조사구내의 가구 연건평의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신축아파트 자료의 경우, 근접 가구들을 묶어서 크기가 50~100인 일종의 조사구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조사구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을 사용하였고 정렬변수로는 시군구와 대표평수를 사용하였다.

각 표집틀에서 정의된 층의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실제로 빈곤지역과 부유지역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패널을 확보하고자 해당 지역의 할당 조사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추출된 조사구로부터 평균적으로 5가구씩 추출하였다.

## 2) 표본설계 가중치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추출 원표본 5,014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된 620가구를 합하여, 총 5,634 가구의 원표본에 표본설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차년도에 추출된 620가구는 2차년도에 조사 실패한 618개의 1차년도 원표본 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추가된 가구이다(실패한 가구에서 두 가구가 추가로 조사되어 실패가구와 대체된 가구의 수에 차이 발생). 따라서 1차년도 가중치 산출에서는 620개 대체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조사된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표본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위 식에서  $N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 는  $h$ 층의 표본 조사구수,  $N_{hi}$ 는  $h$ 층 조사구  $i$ 의 모집단 가구수, 그리고  $n_{hi}$ 는  $h$ 층 조사구  $i$ 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낸다. 1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표본설계 가중치에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어 진다. 응답률은  $r_{hi}/n_{hi}$ 로 계산되어 지며,  $r_{hi}$ 는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응답 가구수이다. 조사된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na}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times \left( \frac{r_{hi}}{n_{hi}} \right)^{-1} = \frac{N_h}{n_h} \times \frac{N_{hi}}{r_{hi}}.$$

## 3) 레이킹(raking) 가중치 보정

산출된 무응답 보정 가구 가중치( $w_{hij}^{na}$ )는 다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각 지역별(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rak} = w_{hij}^{na} \exp(x'_{hij} \lambda)$$

여기서  $x_{hij}$ 는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지시변수들로 표현한 벡터이며  $\lambda$ 는  $\sum w_{hij}^{rak} x_{hij} = t_x$ 의 해이며,  $t_x$ 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각 레이킹 변수들의 추계 값을 나타낸다. 레이킹을 통한 가중치의 보정 결과 2008년 추계 자료와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여 가중치의 최댓값을 9,000으로 제한하였다. 가중치가 9,000을 초과하는 극단 관측치의 경우 가중치를 9,000으로 조정하고, 레이킹 보정 가중치에서 9,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벤치마킹범주(지역\*가구주 성\*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내의 관측치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 다. 2차년도(2009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2개년도(2008년과 2009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hij}^{na}$ )에 2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과 2009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서 계산되어 진다.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는 2차년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와 1차년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응답가구의 응답확률을 예측하였다. 2차년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1차와 2차년도를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1차년도에 작성된 각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hij}^{na}$ )를  $w_{2008}$ 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2009}$ 라 할 때 무응답 보정

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w_{2009} = w_{2008} \times \hat{p}_{2009}^{-1}$$

로 표현된다. 실제  $\hat{p}_{2009}$ 의 예측을 위하여 적합된 로지스틱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text{가구주성별}\beta_1 + \text{가구원수}\beta_2 \\ + \text{가구주연령}\beta_3 + \text{지역}\beta_4 + \text{가구연간소득총액}\beta_5$$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09년 추계 자료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1차년도에 사용된 레이킹 기법이 사용되었다. 2009년 레이킹을 위해서 지역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2,500으로 제한하였다.

## 2)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가구(1차년도 추출가구, 2차년도 추출가구)와 분가가구(2008년 6월 이전 분가)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09년 추계 자료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각 가구형태별 1단계 가중치 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2차년도에 조사된 원표본가구의 경우,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1단계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무응답 보정 방법은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2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사용했으며, 2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9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로는 원패널 가구의 경우 종단면과 동일하게 1차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1차 자료가 없는 2차년도 추출가구는 대응되는 1차년도 추출패널 가구(2차년도 조사실패 가구)의 5개 변수(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연간소득총액)의 1차년도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가가구의 경우, 분가사유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고 기타 사유의 분가가구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였다. 또한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12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조사 성공한 23가구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를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내에서 2차년도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응답가구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원표본 가구와 분가가구의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

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 라. 3차년도(2010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3개년도(2008~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3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가중치 산출에는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hij}^{na}$ )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2차년도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3차년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3차년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1차, 2차 그리고 3차의 3개년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1차년도의 지역, 가구주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 2)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가구, 기존분가(2008년 6월 이전 분가) 그리고 신규분가(2008년 7월 ~ 2009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원표본 가구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원표본 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3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3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3차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다. 기존분가의 경

우, 3차년도에 모든 가구가 응답하여 2차년도에 부여한 횡단면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1,700으로 제한하였다.

#### 마. 4차년도(2011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4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4개년도(2008년~2011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4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4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4개년도(2008년~2011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5,000으로 제한하였다.

##### 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가구, 기존분가(2009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09년 7월 ~ 2010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1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원표본 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원표본 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해 계산된다. 4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4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원표본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4,000으로 제한하였다.

## 바. 5차년도(2012년) 가중치

재정패널 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5개년도(2008년~2012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5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5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5개년도(2008년~2012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8,000으로 제한하였다.

###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5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 가구, 기존분가(2010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10년 7월 ~ 2011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2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원표본 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원표본 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5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5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5차년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원표본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 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000으로 제한하였다.

## 사. 6차년도(2013년) 가중치

재정패널 6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6개년도(2008년~2013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6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6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6개년도(2008년~2013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6차년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연령 범주를 4개(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에서 2개(50세 미만/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2)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6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11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11년 7월 ~ 2012년 6월 이전)에 따

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3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6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6차년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6차년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 3) 6차년 종단면, 횡단면 가중치 산출을 위한 레이킹 방안 변경

기존 1~5차년도까지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그리고 레이킹 가중치 보정을 통한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차수마다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하여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 중 가구주의 연령의 범주를 기존의 4개의 범주(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에서 2개의 범주(50세 미만/50세 이상)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4개의 범주를 사용하는 방안보다 가중치의 분포에서 지나치게 큰 관측치가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레이킹 방안의 적용 후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아. 7차년도(2014년) 가중치

재정패널 7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7개년도(2008년~2014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7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7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개년도(2008년~2014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7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거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4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최종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6차년도의 분포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2)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7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원표본 가구(1차년도 추출가구, 2차년도 추출가구), 기존분가 가구(2012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2년 7월 ~ 2013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4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4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거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거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

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6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가. 증빙서류 수집 목적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설문지는 개인의 연간 소득, 연금·보험 지출 및 소득,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항목들은 응답자의 회상에 의해 조사되는데, 소득공제 내역의 경우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하여 응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재정패널조사에서는 개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여 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나. 수집 대상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소득내역과 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7차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 소득 공제내역을 조사하므로 2014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 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기로 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 다. 7차년도 조사 서류 수집 현황

### 1) 귀속연도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개요

소득증빙자료 수집은 재정패널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실시하는 부분이다. 소득증빙자료 수집률은 실제 조사에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각 가구의 소득증빙서류 제출률에 초점을 두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개인의 수집률이 연구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 연도별 소득증빙서류 수집률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매년 조사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자료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도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과거 연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수집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가구의 사례수는 조사차수가 진행될수록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집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의 수집건수에 비해 종합소득신고 가구의 수집건수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13&gt; 가구원 기준 소득증빙자료 수집 현황

조사년도		해당차수 조사완료 시점 수집 현황							총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최종 수집 현황	2007 귀속	제출가구원	683	27	2	0	0	0	22	734
		근로	611	25	2	0	0	0	20	658
		종합	74	2	0	0	0	0	2	78
	2008 귀속	제출가구원	-	1,411	19	2	0	0	4	1,436
		근로	-	1,203	12	2	0	0	6	1,223
		종합	-	207	6	0	0	0	0	213
	2009 귀속	제출가구원	-	-	1,583	9	0	0	4	1,596
		근로	-	-	1,339	5	0	0	1	1,345
		종합	-	-	245	4	0	0	3	252
	2010 귀속	제출가구원	-	-	-	1,788	7	0	8	1,803
		근로	-	-	-	1,502	6	0	8	1,516
		종합	-	-	-	288	1	0	0	289
	2011 귀속	제출가구원	-	-	-	-	1,844	9	5	1,858
		근로	-	-	-	-	1,531	9	4	1,544
		종합	-	-	-	-	314	0	2	316
	2012 귀속	제출가구원	-	-	-	-	-	2,002	8	2,010
		근로	-	-	-	-	-	1,646	5	1,651
		종합	-	-	-	-	-	360	4	364
	2013 귀속	제출가구원	-	-	-	-	-	-	2,157	2,157
		근로	-	-	-	-	-	-	1,785	1,785
		종합	-	-	-	-	-	-	378	378

주1: 음영은 해당차수의 귀속년도 수집건수로 변동 없는 구간

2: 음영 이외의 구간은 과년도 서류 수집으로 인하여 나타난 변동 구간이며, 과년도 자료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며 추가 수집 가능성이 있어 최종 데이터와 수치의 차이가 발생 가능함.

3: 가구원 1명이 근로와 종합 소득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출가구원의 총계는 근로와 종합소득 제출자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2) 7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 현황

2014년도 조사 결과 1,889가구에서 서류가 수집되어, 전체 4,807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증빙서류 수집율은 39.3%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에 성공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일지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 수집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수집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수집율을 다시 산출하여보면 2,912가구 중 1,889가구에서 서류 수집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수집율은 64.9%로 높아진다.

가구원을 기준으로 수집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이 2,954명이었는데,

이 중 서류를 제출한 가구원은 총 1,785명으로 60.4%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은 894명으로 이 중 378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수집율은 42.3%이었다. 6차년도 수집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집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서류의 수집건수가 90건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lt;표 II-14&gt; 7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율

구분		해당 case <sup>주1)</sup>	제출건수	수집율(%)	[참고] 6차년도 수집율 <sup>주2)</sup>
가 구	전체 유효표본 가구	4,807	1,889	39.3%	37.6% (1,791/4,759)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12	1,889	64.9%	62.5% (1,695/2,754)
가 구 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2,954	1,785	60.4%	59.3% (1,651/2,786)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894	378	42.3%	39.6% (364/920)

주1) case 숫자는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치임.

주2) 6차년도 수집율 괄호 안의 수치는 '수집 건수/해당 케이스 숫자'를 의미함. 상세 내용은 6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참고

덧붙여, 소득증빙서류는 한 가구에서 2개 이상 수집될 수 있으며, 한명의 가구원이 2개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류 제출 건수와 제출 가구수, 제출 가구원수는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데,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면, 2013년도 귀속 서류를 수집된 건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서류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총 2,163건이며, 이 중 근로소득 제출건수가 1,785건, 종합소득 제출건수가 378건이다. 제출 가구원수는 1,889가구 중 2,157명이다.

&lt;표 II-15&gt; 7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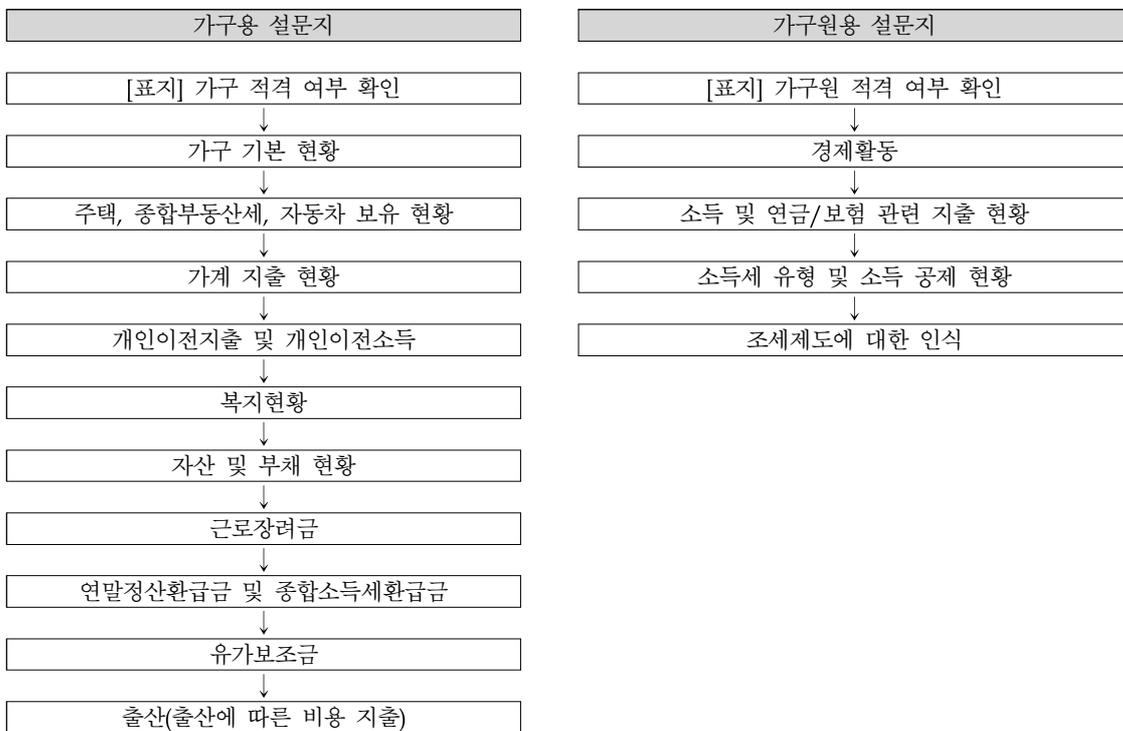
구분	수량
2013년도 귀속서류 수집 건수	2,163
근로소득 제출건수	1,785
종합소득 제출건수	378
제출 가구 수	1,889
제출 가구원 수	2,157

### Ⅲ. 조사 내용

#### 1. 설문지 구조

재정패널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소득 및 지출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원 한 명이 응답해야 한다. 가구원용 설문지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되어 본인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구원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직접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대리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정패널 조사 7차년도 설문지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 설문지의 구조



## 2. 가구용 설문지 내용

### 가. 가구 기본 현황

가구원수, 이사 계획 등 가구의 기본 현황과 가구원의 인적사항, 가구원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현황 등을 조사하며 조사를 시작하는 파트이다.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해당 가구에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모든 가족들의 출생년월,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변동 여부 및 사유 등을 조사한다. 가구원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현황에서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최종 교육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졸업여부를 조사하고, 경제활동 상태 역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직업, 종사상 지위, 근로월수 등을 조사한다.

### 나. 주택 및 자동차 보유 현황

주택 현황에서는 주택의 유형 및 점유 형태, 주택 가격, 전월세금, 면적, 거주 주택 외 추가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매매 관련 정보 등을 조사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가구원 단위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부터 공동명의인 경우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보유현황 파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식과 구입년도, 구입가격, 배기량, 용도를 조사하고, 자동차 보험료 납부액 및 월평균 차량 유류비 지출 정보도 조사하였다. 4차년도까지 존재하던 오토바이 보유현황 문항은 자료 활용도 저하로 5차년도 조사부터 삭제되었다.

### 다. 가계 지출 현황

2013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을 월평균 소비와 월평균 저축으로 나눠 대략적인 지출과 저축액을 먼저 조사하였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가구에서 지출한 주거비, 식료품 및 외식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 구입비, 의류 및 잡화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스포츠 레저비, 보육·교육비, 보건 의료비, 혼인 관련 비용, 장례 및 이사비, 기부금, 가사도우미 서비스비를 조사하였다.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2013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비용은 2013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지출 총액을 측정하였다.

## 라.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금액에 관한 질문으로 가구원이나 친척, 지인 간에 오고 간 돈의 흐름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함께 사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금액은 가구 전체의 지출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원간 주고받은 용돈과 학비를 제외하고 증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였다.

타가구와 주고받는 이전지출이나 소득은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용돈, 생활비, 학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연간 총액을 조사하고, 주거나 받는 사람과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조사하였다.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금액은 일정한 간격을 가진 경우를 의미하지만, 생일이나 명절 등 1년 동안 한 두 번씩 주고받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주거나 받고 있다면 모두 합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가구 내에서 6개월간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잠정적 가구원이 될 2014년 7월 이후 출생 아거나 군대에서 제대한 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지출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경조사 지출과 소득,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상속과 증여 등도 이전지출·소득 항목에서 함께 조사하였다.

## 마. 복지현황

가구단위로 수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를 측정하고, 개인 단위로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의 종류와 해당 가구원의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가구단위로 수급하는 사회복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의 이용 현황 포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자녀양육지원금, 현물급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녀양육지원금은 수급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각 응답할 수 있도록 6차년도부터 조사문항을 개선하였다.

개인단위로 수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기타 정부지원금 수급현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농어업 정부 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보훈수당, 기타 정부지원현금에 대해 수혜 받은 가구원 번호를 조사하였다. 수급기간, 수급 금액 등 자세한 내역은 해당 가구원의 설문지에서 조사되도록 하였다.

## 바. 자산 및 부채 현황

가구용 설문지에서 응답하는 자산 및 부채의 보유 현황은 해당 가구에 귀속된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 모두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본인의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부채를 진 경우에도, 부채가 가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채 현황에 포함된다.

자산이나 부채는 조사 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7차년도 조사는 2013년 12월 31일)으로 평가액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금 외에 이자나 배당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 자산(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에는 적절한 원금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금융 자산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빌려준 돈, 기타 금융 자산으로 구분하였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서는 주택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주택 이외 건물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시가총액, 주택 이외 보유 부동산, 보유회원권, 농기계/가축, 선박/건설중장비, 기타 자산 등을 조사하였다. 기타자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자산은 장신구가 아닌 귀금속이다.

부채현황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기타로 구분하며, 총대출금 잔액과 연간 상환액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6차년도 조사부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는데, 원금이나 이자지급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나 연체 발생 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사. 환급금 및 정부보조금 현황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외에 정부로부터 환급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 연말정산환급금, 종합소득세환급금, 유가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 출산(출산에 따른 비용 지출)

6차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출산 관련 비용 지출 문항은 작년 한 해 동안 출산을 경험한 가구원이 출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체를 응답하도록 한 문항이다. 7차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의료기관 지출비, 태아 수정을 위한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이용비 등이며, 출산한 가구원의 분만 형태, 수유 방법, 모유 수유 기간, 출산전 취업상태, 출산휴가 사용여부, 육아 휴직 사용 여부 등 출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도 함께 조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 영역은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기간 동안의 비용 지출을 위해 구성된 문항으로, 비용 지출 시기가 작년 한 해가 아니라도 합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7차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출산 관련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2012년이라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 자. 출산 이력 부가조사

6차년도에 실시한 출산 이력 부가조사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산한 이력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부가조사이기 때문에 6차년도에 한하여 실시되었다. 다만, 6차년도 이후 계속 문항으로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 문항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6차년도에도 조사에 실패한 가구에 한하여 7차년도 조사시점에 출산 이력에 대한 부가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출산 이력 부가조사는 출산에 따른 비용 지출 조사 영역과 함께 가구원의 출산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을 경험한 가구원과 출산 전후의 취업상태,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과 정부의 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 3. 가구원용 설문지 내용

### 가. 조사 적격 가구원 선정

가구원용 설문지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2013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1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양도 소득, 연금/보험소득,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연금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인 가구원은 이전소득이 존재하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전혀 없으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자녀양육비지원금이 가구의 유일한 소득일 경우에도 가구용 설문지에만 응답하고 가구원용 설문지는 응답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3차년도 이전 조사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가구의 가구주에게는 가구원 설문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 나. 경제활동

2013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시점(2014년 5월 1일 기준)의 소득활동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6차년도 조사부터 휴직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였는데, 월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직자 또는 3개월 미만의 무급휴직자인 경우에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에게는 주된 일자리의 사업내용과 직업내용,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형태와 근로일수 등을 조사하였다. 반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가구원에게는 평소 구직 활동 여부와 그 사유,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질문하였다.

#### 다. 연금·보험 소득

2013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이나 민간연금·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각 연금·보험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고, 6차년도까지 조사되었던 자동차보험 관련 소득은 7차년도부터 소득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조사차수에서도 자동차 보험 관련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표 III-2> 연금·보험 소득

구분	종 류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민간연금·보험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 라. 2013년 정부지원 현금 소득

정부지원 현금 소득은 가구 설문지에서 수혜 가구원만을 조사한 보훈급여금, 기초노령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기타수당을 수급 개월수, 연간 총 수급금액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단,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자녀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구에서 측정하고 가구원의 기타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요양특별급여는 정부지원 현금 소득이 아닌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2013년 연간 소득의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 마. 2013년 연간 소득

연간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 및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토지, 주택, 상가 및 사무실, 기타),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타가구에서 받은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노인요양특별급여/ 그 외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단, 연금·보험 소득은 이미 앞 문항에서 조사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자 연간 소득에서는 제외해 조사하였다. 6차년도 조사

부터 양도소득 항목을 신설하여 누락되는 양도소득이 없도록 하였고, 7차년도에는 소득과 반대로 손실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바. 연금·보험 관련 지출 현황

2013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이나 민간연금·보험에 납부한 금액을 조사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부 금액과 납부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고용 보험료 납부 금액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나 보험에 연간 납부한 금액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연금과 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인정하였다.

#### 사.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구원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2013년 한 해 동안 소비·지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조사하였다. 이때 개인용 법인카드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받은 금액, 카드론 금액은 제외하였다. 또한 누락되거나 혼동하기 쉬운 해외 사용액은 별도의 문항으로 6차년도 부터 조사하도록 하였고, 국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은 별도의 조사문항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세분화 하였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영업용/사업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지출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구분해 가구가 직접 소비 지출한 금액만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 아. 소득세 유형 및 소득공제 현황

가구원용 설문지에 응답한 가구원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현황과 결정세액을 추가로 조사했다. 각각에 대해 조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은 측정이 쉽지 않고, 가구 설문지와 가구원 설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lt;표 III-3&gt; 소득공제항목

구분	공제 항목	세액
근로소득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스주조합 출자, 기타 공제	결정세액
종합소득자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표준 공제, 기타 공제, 성실사업자대상 공제(의료비, 교육비)	결정세액

#### 자.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재정패널조사에서 인식을 응답하는 문항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이다. 문항은 총 5개로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납부세금과 비교한 정부 혜택의 수준, 세부담, 복지정책 확대, 복지정책에 의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이다. 본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되는 가구원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 차. 직업이력

가구원 조사에서 부가조사의 형태로 6차년도에 조사한 문항은 직업이력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가구원이 경험한 일자리에 대해 묻도록 하였는데, 출산이력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경제활동 조사 문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6차년도 조사에 실패한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7차년도 조사시점에 직업이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 이력 부가조사의 문항은 일자리의 시작시기, 끝난시기, 직장의 사업내용, 직장에서의 주된 활동,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퇴직사유이며, 추가적으로는 현재 은퇴여부와 은퇴 예상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 IV. 실사 진행 과정

### 1. 주별 진행 상황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는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5월 한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6월 이후부터 연락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실사 초반인 5월에는 면접원의 사전 연락 작업 위주로 실사가 진행되어 다소 낮은 진행률을 보였지만 6월에 접어들며 꾸준한 속도로 실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월 이후에는 조사 참여를 꺼리거나 잦은 이동으로 만남이 어려운 고난이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주간 진행개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5] 6차년도 실사 진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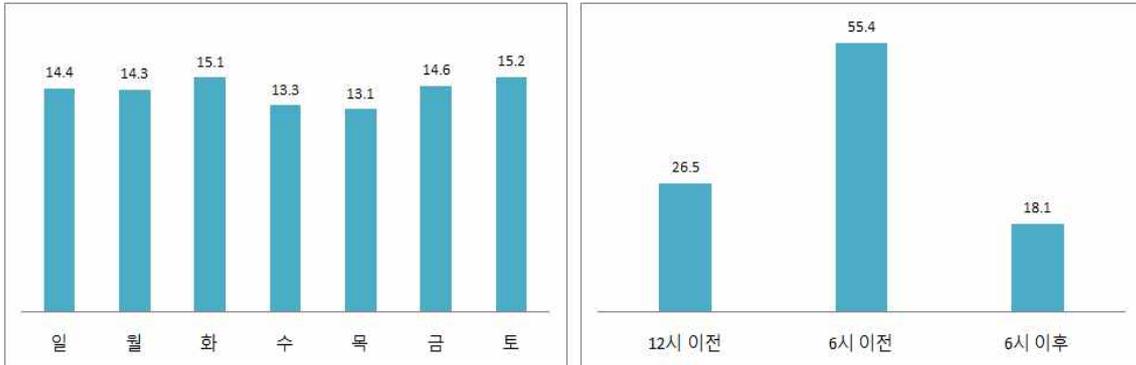


주: 패널 유지율은 원표본가구 조사 성공률을 의미하며, 산출방식은 원표본유지율임.

### 2.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전반적으로 모든 요일이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화요일과 토요일에 조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 시간대의 경우 12시~18시 사이가 55.4%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늦은 시간인 6시 이후보다는 12시 이전인 오전 시간대에 조사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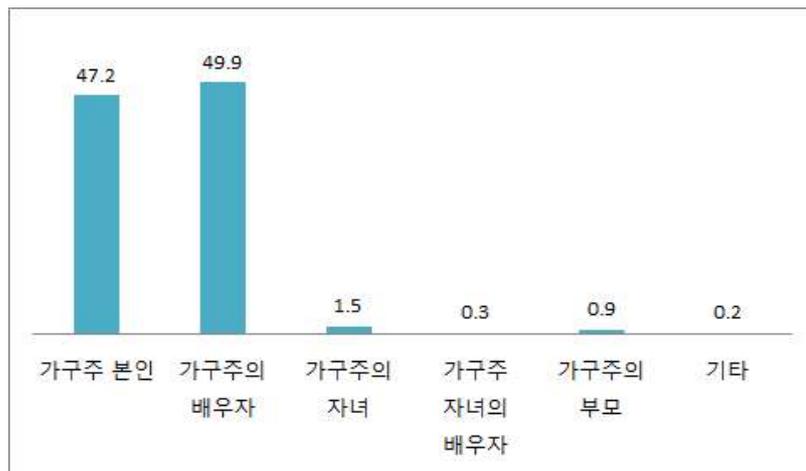
[그림 IV-2] 조사 요일 및 시간대(%)



### 3. 가구 설문지 응답자 선정

가구 설문지는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경우가 전체 표본의 97.1%로 나타나, 6차년도(96.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V-3] 가구 설문지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 4.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 선정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총 7,559명으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가 55.9%였으며, 소득자의 배우자 등 소득을 관리하는 타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44.1%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6차년도 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는 가구원 소득활동 상황과 소득과 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리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가구원이나 타가구원 명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가구원 등이 해당된다.

설문지 상에는 대리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소득자 본인의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애매한 질문은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 가구원이 대신 응답했다고 표기됐다고 해서 조사 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해당 가구원이 주로 심야에 귀가하거나, 본 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타가구원으로부터 대리응답을 받기도 했다.

## V. 재정패널 표본 특성

###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가. 표본가구 구분

7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된 표본가구 수는 4,839개로 2009년 이래 매년 표본수가 100-200여개 감소하고 있다. 다만, 6차년도 조사의 성공표본이 4,800가구였던 것에 비해 7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원가구에서 파생된 분가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응답자와 조사원들과의 친숙도가 상당 수준 높아져 점차 패널 유지율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 조사에서 표집된 최초표본 5,014 가구 중 7차년도까지 연속하여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3,697개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6개 년도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표본이다. 2차년도에 추출한 620가구 중 7차년도까지 모두 추적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501개 가구이다. 종단적 분석은 1차년도에 구축돼 조사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성공한 가구만 분석 대상이 되므로 추가표본은 횡단면 분석에서는 제외되고 횡단면 분석만 가능하다.

<표 V-1> 연속 조사 성공 가구수

표본가구 구분	1차년도 조사성공	2차년도 조사성공	3차년도 조사성공	4차년도 조사성공	5차년도 조사성공	6차년도 조사성공	7차년도 조사성공
1차년도 추출가구	5,014	4,396	4,122	3,954	3,838	3,754	3,697
2차년도 추출가구	-	620	575	541	519	509	501
합계	5,014	5,016	4,697	4,495	4,357	4,263	4,198

이 밖에도 분가 가구의 경우 기존 분가가구 345가구와 2014년 6월 이전 분가가구 36가구, 2014년 7월 이후 분가가구 32가구가 조사에 성공했다. 다만 7월 이후 분가가구는 유효 표본에서 제외되므로 횡단면 분석에 활용되는 분가가구 표본 수는 381개이다.

#### 나. 가중치 보정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종단면·횡단면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가중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가중치 적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서 결과 해석

을 달리해야한다. 중단면 가중치의 경우 7년 연속 성공한 원표본 가구에게만 부여가 된다. 본 보고서는 7차년도 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기 때문에 V장부터 기술되는 조사 결과 중 횡단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며, 연도별 분석은 중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 2. 표본 가구의 구성

재정패널조사에서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또한 비혈연 관계자는 가족 및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구성을 의미한다.

### 가.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6차년도 조사 결과 가구주가 남자인 가구가 72.1%로 매년 가구주의 성비는 남녀 7대 3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0대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대 이하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3.1%에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30대의 가구주 비중이 소폭 낮아지고 다른 연령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6차년도	72.7	27.3	3.0	18.0	28.2	18.0	32.8
7차년도	72.1	27.9	3.1	16.2	28.7	18.4	33.7

### 나.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전문대) 재학/졸업 등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비중이 32.2%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학력 분포가 지난해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V-3> 가구주의 학력

단위(%)	미취학(안받음)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6차년도	4.9	21.4	32.4	37.3	4.1
7차년도	4.7	21.0	32.2	37.8	4.3

## 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종사상지위는 201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이 무직·퇴직·전업주부·학생이 아닌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 중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1.1%, 임시직 임금 근로자가 6.6%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1.3%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V-4>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구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무직/주부/학생 (종사상 지위 해당 없음)
5차년도	40.1	5.3	6.9	22.0	3.8	0.6	21.3
6차년도	41.1	6.6	5.5	21.3	3.9	0.4	21.3

##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가. 가구원 수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가구원은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사람이며, 다른 가구에 사는 기러기 아빠(6개월 이상),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이 밖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함께 살게 된 가족은 간단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으로 보지 않았다.

재정패널 표본가구 당 가구원 수는 3명인 경우가 25.7%, 2명인 경우가 25.9%로 나타났고,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6차년도 조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V-5> 가구원의 수

단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6차년도	21.0	25.5	26.5	20.0	5.7	1.4
7차년도	22.4	25.9	25.7	19.3	5.4	1.3

## 나.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약간 더 많았으나,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가구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그 다음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표 V-6>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6차년도	47.1	52.9	23.6	9.1	15.5	18.8	12.3	20.8
7차년도	47.1	52.9	22.8	9.0	14.8	19.1	12.7	21.6

## 다. 가구원의 학력

전체 가구원 중 대학(전문대) 재학/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31.6%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학력을 지닌 가구원이 28.4%로 나타났다. 가구원 학력 수준은 6차년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V-7> 가구원의 학력

단위(%)	미취학 (안 받음 포함)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6차년도	10.9	27.2	28.4	30.9	2.5
7차년도	10.4	26.8	28.4	31.6	2.7

## 라.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가구원 중 무직/주부/학생 등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4.8%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23.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 또한 지난 해 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표 V-8>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무직/주부/학생 (종사상 지위 해당 없음)
6차년도	22.7	3.8	3.6	10.6	1.8	1.6	56.1
7차년도	23.7	4.6	2.9	10.3	1.8	1.8	54.8

## 마. 취업 가구원 수

가구 내에 취업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53.2%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1.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 두 명의 가구원이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가구원수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표 V-9> 취업 가구원 수

단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6차년도	16.1	53.5	27.0	3.0	0.4
7차년도	15.8	53.2	27.4	3	0.5

## VI. 주택 현황

본 장에서는 재정패널 조사의 주택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주택 현황 및 거주주택 외 보유 주택, 주택 구입 및 매각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 제시하는 결과표는 전체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황 표와 가구 특성과 소득분위로 세분화하여 각 특성과 소득분위 내에서의 분포 등을 살펴본 표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모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는 패널가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세부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결과를 조사대상년도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차년도의 경우 조사대상년도인 2007년을, 2차년도는 2008년, 3차년도는 2009년, 4차년도는 2010년, 5차년도는 2011년, 6차년도는 2012년, 7차년도는 2013년으로 기술하였다.

전체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황 결과표에서는 연도별 거주 주택의 현황(주택 거주 형태, 자가 주택의 기준 시가 및 전세 보증금, 월세 지출금 등)과 거주 주택 외 주택 보유현황, 그 외 주택 구입 및 매각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 가구주 특성과 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가구 특성으로 나누어 각 특성에 따른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조사 시점 작년 말 기준(12월 31일)조사된 값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각 항목별 모름·무응답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 1. 거주 주택 현황

#### 가. 거주 주택 형태

##### 1) 연도별 주택 거주 형태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주택 형태를 구체적으로 나누기보다 주택 점유 형태나 주택 시가 총액·전월세 보증금을 보다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 조사용어도 정의하였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영업겸용 주택이 아닌 소유자 한 가구인 독립된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연도별 주택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70%이상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립주택 오피스텔(원룸),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아파트 거주 가구는 2007년도(43.6%) 대비 3.5%p 증가한 47%인 반면 기타를 제외한 다른 거주형태의 변화율은 3%p미만으로 조사되었다.

&lt;표 VI-1&gt; 연도별 주택 거주형태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단독주택	33.1	31.9	31.4	31.9	33.5	34.1	34.2
아파트	43.6	44.7	45.4	46.6	47.1	46.9	47.0
연립	14.2	15.1	14.8	14.5	14.2	14.0	14.2
오피스텔	3.7	3.6	2.7	2.2	2.4	2.3	2.2
복합용도주택	2.9	2.9	3.1	2.9	2.5	2.7	2.4
기타	2.6	1.8	2.6	1.9	0.3	0.1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가구 특성별 주택 거주 형태

가구 특성별 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각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특성별로 요약하여 보면, 여성 가구주 가구(2007년 43.9%, 2008년 41.3%, 2009년 41.5%, 2010년 42.6%, 2011년 41.9%, 2012년 43.4%, 2013년 44.3%)에서, 가구주 연령이 50대(2007년 40.5%, 2008년 39.8%, 2009년 36.0%, 2010년 36.0%, 2011년 37.6%, 2012년 36.1%, 2013년 33.6%), 60대 이상(2007년 58.5%, 2008년 56.0%, 2009년 56.0%, 2010년 55.2%, 2011년 57.1%, 2012년 56.2%, 2013년 55.9%)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구의 경제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와 취업가구원수 특성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007년 49.7%, 2008년 51.0%, 2009년 48.7%, 2010년 48.5%, 2011년 49.4%, 2012년 50.2%, 2013년 51.1%), 일용근로자(2007년 43.1%, 2008년 44.4%, 2009년 38.1%, 2010년 34.3%, 2011년 40.9%, 2012년 45.5%, 2013년 46.5%), 취업한 가구원은 없는 가구(2007년 45.2%, 2008년 47.0%, 2009년 48.3%, 2010년 51.0%, 2011년 50.7%, 2012년 51.2%, 2013년 4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가구들에게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았다. 가구원수는 2명 이하의 가구가 3명 이상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것은 가구주 연령이었다. 아래의 표에서 가구주가 60대 이상의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58.5%, 2008년 56.0%, 2009년 56.0%, 2010년 55.2%, 2011년 57.1%, 2012년 56.2%, 2013년 55.9%로 과반이 단독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20대인 가구는 2007년 17.3%, 2008년 15.9%, 2009년 16.8%, 2010년 17.5%, 2011년 9.3%, 2012년 2.5%까지 점차 단독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2013년 6.7%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연령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lt;표 VI-2&gt; 가구 특성별 주택 거주형태 - 단독주택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30.0	29.2	28.4	28.8	30.4	30.6	30.2
	여성	43.9	41.3	41.5	42.6	41.9	43.4	44.3
가구주 연령	20대	17.3	15.9	16.8	17.5	9.3	2.5	6.7
	30대	17.3	16.0	15.2	16.3	18.1	17.6	19.5
	40대	25.1	23.5	23.5	23.8	24.0	21.5	20.8
	50대	40.5	39.8	36.0	36.0	37.6	36.1	33.6
	60대 이상	58.5	56.0	56.0	55.2	57.1	56.2	55.9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8.4	16.9	18.1	19.5	20.5	18.0	19.1
	일용근로자	43.1	44.4	38.1	34.3	40.9	45.5	46.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9.7	51.0	48.7	48.5	49.4	50.2	51.1
	고용원 둔 사업자	18.4	15.4	15.4	18.0	15.2	19.3	16.2
	무급가족 종사자	45.2	34.8	34.1	43.7	44.9	55.7	42.3
	기타	44.9	44.9	45.7	47.3	49.0	48.3	48.8
가구원수	1명	41.9	41.0	41.2	42.6	47.5	47.1	48.5
	2명	42.4	41.7	42.4	45.1	44.9	46.8	46.4
	3명	33.4	30.9	30.6	28.5	27.3	27.4	27.6
	4명 이상	22.7	22.1	20.6	20.8	20.2	18.9	17.3
취업 가구원수	0명	45.2	47.0	48.3	51.0	50.7	51.2	49.7
	1명	29.1	27.3	28.1	27.8	30.6	31.0	31.7
	2명 이상	35.4	33.6	30.5	31.4	30.8	30.5	30.1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음은 아파트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53.1%와, 가구주의 연령이 30대(57.7%), 40대(59.9%) 가구에서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가구주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61.5%)이거나 고용원을 둔 사업자(66.2%)인 경우 가구원수 또는 취업 가구원이 많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60대인 경우, 가구주 종사상 지위가 일용근로자이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 가구원 수가 2명 이하이거나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수별 아파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가구원수 1명인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24.7%)보다 가구원이 4명인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 비율(68.0%)로 43.3%p 많아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 외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59.9%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가구주 연령이 60세이상(29.5%)인 가구에 비해 30.5%p 높은 수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 또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lt;표 VI-3&gt; 가구 특성별 주택 거주형태 - 아파트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48.3	49.8	50.4	51.4	51.6	52.0	53.1
	여성	26.8	26.7	27.9	29.9	34.8	33.4	31.5
가구주 연령	20대	29.0	27.6	24.9	35.7	47.2	46.6	42.4
	30대	57.3	57.7	59.9	57.2	58.2	58.0	57.7
	40대	53.9	55.8	54.8	57.7	58.0	59.8	59.9
	50대	39.1	40.2	41.2	43.1	43.7	45.2	46.8
	60대 이상	25.4	26.7	27.2	28.6	28.5	29.1	29.5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7.0	59.3	59.0	59.3	60.7	62.9	61.5
	일용근로자	26.2	22.4	26.6	31.6	34.4	34.0	34.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9.5	27.8	30.2	31.4	29.5	27.9	29.3
	고용원 둔 사업자	60.6	63.5	56.8	58.0	60.6	67.4	66.2
	무급가족 종사자	26.2	36.7	22.8	24.3	29.5	23.9	22.8
	기타	34.1	33.6	34.6	34.8	34.9	35.5	34.7
가구원수	1명	20.4	21.9	21.4	24.5	26.6	27.1	24.7
	2명	35.7	36.2	35.7	34.2	35.4	35.3	37.3
	3명	44.9	45.3	46.5	50.2	54.0	53.9	53.3
	4명이상	58.5	60.4	61.7	62.3	64.3	65.5	68.0
취업 가구원수	0명	34.2	33.7	35.4	34.2	33.9	33.7	34.1
	1명	46.1	47.0	46.5	47.5	48.1	46.7	46.7
	2명 이상	43.0	45.3	47.4	49.8	51.2	53.9	54.1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 형태

가구 소득분위별 단독주택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과반(2007년 55.7%, 2008년 52.6%, 2009년 51.4%, 2010년 54.1%, 2011년 55.5%, 2012년 55.9%, 2013년 58.1%)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20%이하(2007년 16.5%, 2008년 14.2%, 2009년 13.0%, 2010년 17.3%, 2011년 14.7%, 2012년 15.1%, 2013년 13.8%)의 가구가 단독 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여 1~4분위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거주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2007년부터 살펴본 소득분위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3분위의 경우 다른 소득분위와 조금 다른 변화를 보였는데, 2007년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29.9%로 30%를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30%를 넘어섰으나 2010년 결과에서는 27.4%로 3.7%p 감소하였고, 다시 2013년에는 34.0%로 7.6%p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lt;표 VI-4&gt;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형태 - 단독주택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55.7	52.6	51.4	54.1	55.5	55.9	58.1
2분위	40.6	38.5	38.4	38.6	41.9	43.1	43.5
3분위	29.9	31.0	31.1	27.4	30.4	34.8	34.0
4분위	22.9	23.1	22.3	21.1	23.7	20.6	21.0
5분위	16.5	14.2	13.0	17.3	14.7	15.1	13.8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가구 소득분위별 아파트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약 70%(2007년 67.4%, 2008년 72.1%, 2009년 72.0%, 2010년 71.2%, 2011년 70.1%, 2012년 73.1%, 2013년 75.4%)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아파트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2007년 24.4%, 2008년 24.3%, 2009년 26.0%, 2010년 25.2%, 2011년 26.2%, 2012년 24.0%, 2013년 24.1%).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살펴본 아파트 거주 비율의 차이는 단독주택보다 크지 않았다.

&lt;표 VI-5&gt;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형태 - 아파트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24.4	24.3	26.0	25.2	26.2	24.0	24.1
2분위	27.1	28.5	31.3	32.1	32.6	33.1	31.4
3분위	42.5	45.0	42.7	44.8	46.8	43.7	42.8
4분위	55.4	53.9	55.4	58.8	59.3	60.6	61.8
5분위	67.4	72.1	72.0	71.2	70.1	73.1	75.4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거주 주택 점유형태

### 1) 연도별 주택 점유형태

연도별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차수에서 조사대상 가구의 과반이 자가에 거주(2007년 57.8%, 2008년 57.1%, 2009년 55.7%, 2010년 55.9%, 2011년 55.2%, 2012년 57.1%, 2013년 57.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세(2007년 23.4%, 2008년 23.1%, 2009년 23.8%, 2010년 23.4%, 2011년 21.8%, 2012년 20.5%, 2013년 19.2%), 보증부 월세(2007년 14.2%, 2008년 13.6%, 2009년 12.8%, 2010년 13.2%, 2011년 14.7%, 2012년 14.6%, 2013년 14.7%)순의 비율이었으며, 무보증 월세 및 기타 거주 형태의 경우 7%이하로 매우 낮았다.

자가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는 2008년(57.1%)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2013년은 57.5%였다. 전세의 경우 2010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19.2%까지 떨어졌다. 무상거주형태는 6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것으로 기타주택의 대부분이 무상거주임에 따라 응답범주를 추가한 것이다. 2013년 조사결과, 거주 주택에 무상 거주하고 있다는 가구 비율은 7%였다.

&lt;표 VI-6&gt; 연도별 주택 거주형태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가	57.8	57.1	55.7	55.9	55.2	57.1	57.5
전세	23.4	23.1	23.8	23.4	21.8	20.5	19.2
보증부 월세	14.2	13.6	12.8	13.2	14.7	14.6	14.7
무보증 월세	2.4	2.9	2.4	1.7	2.0	1.7	1.6
무상거주	-	-	-	-	-	6.0	7.0
기타	2.1	3.3	5.3	5.8	6.2	0.2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6차년도 조사부터 무상거주에 대한 보기문항이 추가되었음. 사택, 기숙사 등이 해당되며, 가구원이 아닌 타가구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됨.(예를들어, 분가한 아들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 2) 가구 특성별 주택 점유 형태

가구 특성별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각 가구의 특성에 따라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 중에는 64.0%가 자가 주택이었으며, 여성 가구주 가구 중에서는 41.0%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성별로 요약하여 보면, 2013년 기준 남성 가구주 가구(64.0%)에서, 60대 이상 가구(69.7%)에서 자가 주택인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64.0%)와 무급가족종사자(67.8%) 가구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았고, 가구원수는 2명(68.2%) 가구와 취업가구원수는 2명 이상(66.7%)인 가구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았다. 무급가족종사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경우 2012년까지 전세 거주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 집단이었는데, 2013년의 결과로 살펴보면, 그 비율이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수 성별이 여성(41.0%), 가구주 연령이 30대 미만(20대 16.6%, 30대 41.5%), 일용근로자(43.0%), 가구원 수 1명(35.3%)인 가구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5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lt;표 VI-7&gt; 가구 특성별 주택 거주형태 - 자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60.9	60.7	60.1	59.9	61.3	63.0	64.0
	여성	46.9	44.6	40.2	41.7	38.5	41.4	41.0
가구주 연령	20대	16.7	14.8	14.5	13.1	18.0	12.8	16.6
	30대	43.1	42.0	41.2	40.7	40.4	39.6	41.5
	40대	58.5	56.4	53.2	51.1	49.6	50.4	50.6
	50대	71.4	70.2	70.1	69.7	66.6	66.9	66.0
	60대 이상	75.1	74.5	69.5	71.4	69.6	70.7	69.7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3.0	52.6	51.6	52.0	52.4	53.7	55.1
	일용근로자	39.6	43.9	40.6	39.0	34.3	44.3	43.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0.0	66.5	66.1	65.4	64.2	65.3	64.0
	고용원 둔 사업자	61.6	65.2	67.5	61.6	63.1	56.9	62.1
	무급가족 종사자	59.8	74.2	52.3	75.2	69.0	76.7	67.8
	기타	61.0	60.2	57.0	59.8	56.9	59.1	58.8
가구원수	1명	33.7	33.4	30.6	32.3	32.8	35.7	35.3
	2명	64.6	64.0	61.4	61.9	61.0	67.0	68.2
	3명	57.2	57.0	57.5	57.6	57.8	59.5	58.0
	4명 이상	65.0	64.3	62.7	62.2	62.7	60.5	63.7
취업 가구원수	0명	58.6	57.7	54.7	59.2	56.1	58.2	57.0
	1명	53.7	51.7	50.6	50.8	50.4	51.8	52.0
	2명 이상	66.3	67.4	65.4	63.7	63.4	65.7	66.7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음은 전세 거주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특성별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고, 2013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30대(33.6%)인 경우, 고용원을 둔 사업자(28.0%)인 경우, 가구원수 3명 이상(가구원 수 3명: 20.9%, 가구원 수 4명: 20.8%) 경우, 취업가구원수는 1명(22.8%)인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모든 특성 중 가장 높은 전세 거주 가구 비율(2007년 36.7%, 2008년 35.4%, 2009년 38.0%, 2010년 38.0%, 2011년 36.1%, 2012년 38.1%, 2013년 33.6%)을 보였고, 60대 가구주 가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전세 가구 비율(2007년 10.3%, 2008년 9.5%, 2009년 10.5%, 2010년 10.1%, 2011년 10.0%, 2012년 9.0%, 2013년 9.4%)을 보였다. 다만 주목할 것은 30대 가구의 전세가구 비율이 전년(2012년 38.1%)과 비교해 감소한 것이라는 점인데, 2012년과 비교해 약4%p 가량 감소하였고, 20대 가구주 가구 역시 5%p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lt;표 VI-8&gt; 가구 특성별 주택 거주형태 - 전세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23.8	23.7	24.3	24.2	21.9	20.5	18.7
	여성	22.2	21.2	22.3	20.8	21.4	20.5	20.4
가구주 연령	20대	36.1	37.6	36.7	38.4	23.1	19.7	14.6
	30대	36.7	35.4	38.0	38.0	36.1	38.1	33.6
	40대	24.5	26.1	27.3	26.7	26.2	25.0	24.2
	50대	15.5	15.2	14.5	14.7	14.2	14.9	14.6
	60대 이상	10.3	9.5	10.5	10.1	10.0	9.0	9.4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0.3	30.8	31.5	30.1	26.7	27.1	22.4
	일용근로자	25.6	17.7	20.3	20.9	23.2	15.1	17.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6.2	18.2	17.4	18.4	17.2	15.2	17.1
	고용원 둔 사업자	26.9	21.1	18.3	22.2	24.5	31.0	28.0
	무급가족 종사자	18.3	12.0	6.2	1.6	11.1	7.3	0.1
	기타	14.8	13.4	15.2	13.6	13.6	12.7	13.4
가구원수	1명	23.0	23.8	28.6	25.3	22.3	22.9	23.0
	2명	19.0	17.9	17.2	16.8	18.6	14.2	12.8
	3명	26.9	25.9	23.7	23.9	22.5	21.3	20.9
	4명 이상	24.2	24.1	25.7	26.3	23.4	24.0	20.8
취업 가구원수	0명	14.2	14.4	15.6	12.2	11.9	11.7	13.5
	1명	26.6	26.6	27.8	26.5	25.3	24.6	22.8
	2명 이상	21.4	20.5	19.8	22.5	20.0	17.9	16.2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가구 특성별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22.9%, 가구원수가 1명인 가구의 23.6%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가늠해보면, 2013년 기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일용근로자인 가구의 29.4%와 취업 가구원수는 1명인 가구의 16.7%의 보증부 월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13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20대인 가구의 과반(56.2%)이 보증부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여 2007년 대비 16.8%p 증가하였고, 2012년과 비교해도 2.7%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전세 주택 거주 비율에서 20대의 비율이 2013년에 약 5%p 줄어든 것과 연결하여 볼 때 20대 젊은 가구주 가구에서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2012년에 이어 증가하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lt;표 VI-9&gt; 가구 특성별 주택 거주형태 - 보증부 월세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11.5	10.5	9.5	9.9	11.0	11.3	11.6
	여성	23.9	24.4	24.0	24.7	25.0	23.3	22.9
가구주 연령	20대	39.4	38.6	38.0	36.0	43.5	53.5	56.2
	30대	16.3	16.2	13.4	14.4	16.4	17.1	18.8
	40대	13.3	11.8	13.5	15.3	17.8	17.8	18.3
	50대	9.3	10.2	10.4	10.5	12.6	13.2	12.7
	60대 이상	8.6	8.8	8.3	8.3	8.5	8.7	8.5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2.8	11.7	10.6	11.7	13.6	14.1	16.3
	일용근로자	26.6	26.3	27.2	26.5	29.5	28.2	29.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1.1	10.8	11.6	11.0	14.5	13.6	11.7
	고용원 둔 사업자	10.8	12.9	13.3	14.4	11.1	7.7	7.2
	무급가족 종사자	17.4	11.4	27.1	13.2	4.8	4.6	19.0
	기타	16.4	16.3	13.0	13.7	14.0	13.4	12.1
가구원수	1명	32.7	31.0	25.5	27.1	26.2	25.4	23.6
	2명	11.8	11.4	13.3	13.3	13.1	12.0	11.5
	3명	12.1	11.7	12.3	12.0	13.9	13.5	15.0
	4명 이상	8.5	8.0	6.7	7.3	9.3	10.2	10.8
취업 가구원수	0명	18.0	15.8	12.5	13.5	14.5	13.7	12.6
	1명	15.4	15.4	14.1	15.1	16.1	16.3	16.7
	2명 이상	9.7	9.1	10.4	9.7	12.4	12.0	12.7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점유 형태

가구 소득분위별 자가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2분위 가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5분위 가구의 경우 약 65%이상 가구(2007년 67.1%, 2008년 68.3%, 2009년 65.3%, 2010년 66.8%, 2011년 65.6%, 2012년 67.0%, 2013년 68.0%)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2007년 57.8%, 2008년 57.1%, 2009년 55.7%, 2010년 55.9%, 2011년 55.2%, 2012년 57.1%, 2013년 57.5%) 보다 약 10%p 높았다. 반면, 2013년 기준 가장 낮은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을 보인 소득분위 집단은 2분위로 소득 하위 20% 집단인 1분위 가구보다도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5%p 낮았다.

&lt;표 VI-10&gt;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형태 - 자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57.7	53.8	50.5	50.7	47.9	53.1	54.5
2분위	47.9	49.2	49.5	45.9	46.4	48.7	46.3
3분위	53.3	54.9	52.6	55.4	55.2	53.9	54.1
4분위	62.9	59.6	60.5	60.9	60.7	62.5	64.5
5분위	67.1	68.3	65.3	66.8	65.6	67.0	68.0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가구 소득분위별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에서 전세 거주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3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폭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볼 때 1분위의 경우 약 2%p 정도 감소하였고, 다른 소득분위의 경우 전세 주택 거주 비율이 약 3~4%p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세 가구 비율의 감소폭은 4분위에서 -8.0%p로 가장 컸다(2분위 -3.6%p, 3분위 -3.8%p, 5분위 -3.7%p). 2009년 약간의 상승을 보였던 전세 주택 거주 비율은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2012년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전세 거주 비율 감소 추세를 보인 소득분위는 4분위이었으며, 가장 높은 전세 가구 비율을 보인 3분위는 2012년 보다 0.8%p 전세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lt;표 VI-11&gt;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형태 - 전세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14.8	16.1	16.9	15.7	15.7	15.0	12.8
2분위	22.3	19.5	22.3	22.9	19.8	19.1	18.7
3분위	27.8	27.9	28.1	26.0	24.7	23.2	24.1
4분위	25.3	27.0	25.7	24.8	23.3	21.5	17.3
5분위	26.6	24.7	26.5	28.0	25.9	23.7	22.9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의 경우 소득 높은 5분위에서 거주비율이 2~6%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분위(2007년 24.3%, 2008년 23.5%, 2009년 21.4%, 2010년 22.2%, 2011년 25.2%, 2012년 22.6%, 2013년 2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3분위(2007년 15.4%, 2008년 12.4%, 2009년 13.1%, 2010년 13.3%, 2011년 13.6%, 2012년 15.6%, 2013년 16.5%), 1분위(2007년 17.5%, 2008년 17.9%, 2009년 16.6%, 2010년 18.5%, 2011년 18.6%, 2012년 17.3%, 2013년 15.7%), 4분위(2007년 9.3%, 2008년 9.5%, 2009년 8.0%, 2010년 8.8%, 2011년 11.2%, 2012년 11.6%, 2013년 12.5%)의 순이었다.

&lt;표 VI-12&gt;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형태 - 보증부 월세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17.5	17.9	16.6	18.5	18.6	17.3	15.7
2분위	24.3	23.5	21.4	22.2	25.2	22.6	23.6
3분위	15.4	12.4	13.1	13.3	13.6	15.6	16.5
4분위	9.3	9.5	8.0	8.8	11.2	11.6	12.5
5분위	4.6	4.4	4.4	2.7	4.4	6.0	5.7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다. 자가 주택 거주 가구 현황

연도별 자가 주택 거주 가구(자가 거주 가구: 2007년 57.8%, 2008년 57.1%, 2009년 55.7%, 2010년 55.9%, 2011년 55.2%, 2012년 57.1%, 2013년 57.5%)를 대상으로 자가 주택의 기준 시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007년 19,935.8만원, 2008년 18,853.5만원, 2009년 19,425.9만원, 2010년 20,547.9만원, 2011년 19,796.6만원, 2012년 20,280.0만원, 2013년 21,743.2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t;표 VI-13&gt; 자가 주택 거주 가구 현황 - 주택 기준 시가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주택 기준 시가 (중앙값)	19,935.8 (12,000)	18,853.5 (12,000)	19,425.9 (13,000)	20,547.9 (15,000)	19,796.6 (15,000)	20,280.0 (15,000)	21,743.2 (16,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각 연도별 자가 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함

2009년(3차조사)에는 자가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명의자와 주택 보유 기간(취득년도)을 조사하였는데, 2012년(6차조사)부터는 타 가구원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정보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자가 주택의 타가구원 공동 명의자 명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자가 주택의 명의자가 가구주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09년 84.0%, 2010년 83.8%, 2011년 82.4%, 2012년 82.2%, 2013년 90.6%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배우자(2009년 14.8%, 2010년 16.0%, 2011년 18.2%, 2012년 18.5%, 2013년 7.3%), 가구주의 부모(2009년 3.1%, 2010년 3.4%, 2011년 3.7%, 2012년 4.0%, 2013년 1.8%)의 순이었다. 그 외 가구주의 자녀가 명의자인 경우는 2009년 1.4%, 2010년 0.9%, 2011년 0.7%, 2012년도 0.9%, 2013년 0.6% 가구만 이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 기타 가구원의 경우 1%미만으로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2013년 타가구원이 공동 명의자로 있는 경우는 0.8%이었다.

&lt;표 VI-14&gt; 자가 주택 거주 가구 현황 - 주택 보유자 가구주와의 관계(복수응답)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84.0	83.8	82.4	82.2	90.6
가구주 배우자	14.8	16.0	18.2	18.5	7.3
가구주자녀·자녀배우자	1.4	0.9	0.7	0.9	0.6
가구주 부모	3.1	3.4	3.7	4.0	1.8
배우자 부모	0.4	0.5	0.1	0.1	0.0
기타	0.2	0.1	0.2	0.2	0.3
타가구원	-	-	-	3.8	0.8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각 연도별 자가 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함

연도별로 자가 주택 거주 가구의 주택 보유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11년 12.3년, 2012년 13.4년, 2013년 13.3년 정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값: 2011년 9년, 2012년 10년, 2013년 9년).

&lt;표 VI-15&gt; 자가 주택 거주 가구 현황 - 주택 보유 기간

단위(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주택보유 기간 (중앙값)	12.3 (9.0)	13.4 (10.0)	13.3 (9.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각 연도별 자가 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라. 전세 및 월세 거주 가구 현황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전세거주 가구(전세 거주 가구: 2007년 23.4%, 2008년 23.1%, 2009년 23.8%, 2010년 23.4%, 2011년 21.8%, 2012년 20.5%, 2013년 19.2%) 및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 2007년 14.2%, 2008년 13.6%, 2009년 12.8%, 2010년 13.2%, 2011년 14.7%, 2012년 14.6%, 2013년 14.7%)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07년 5,030.4만원, 2008년 5,137.1만원, 2009년 5,557.7만원, 2010년 6,266.4만원, 2011년 6,435.8만원, 2012년 6,706.8만원, 2013년 7,202.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증부 월세 및 무보증 월세 거주 가구(무보증 월세 거주 가구: 2007년 2.4%, 2008년 2.9%, 2009년 2.4%, 2010년 1.7%, 2011년 2.0%, 2012년 1.7%, 2013년 1.6%)를 대상으로 월세 지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2007년 26.3만원, 2008년 26.2만원, 2009년 27.7만원, 2010년 26.4만원, 2011년 25.8만원, 2012년 26.1만원, 2013년 29.8만원이었다. 다만, 1~5차년도의 경우 월단위로 지출하는 월세의 금액만 조사하였고, 6차년도 이후에는 월세 지출을 월단위로

지출하는 경우와 부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연간, 분기 등)를 모두 조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지출한 월세금액도 분석을 위해 연간 지출한 월세를 12개월로 나누어 결과를 산출하였다.

<표 VI-16> 전월세 거주가구 현황 - 전월세 보증금 비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증금 평균 (중앙값)	5,030.4 (3,000)	5,137.1 (3,000)	5,557.7 (3,500)	6,266.4 (4,000)	6,435.8 (4,000)	6,706.8 (3,800)	7,202.5 (4000)
월세 평균 (중앙값)	26.3 (24)	26.2 (25)	27.7 (23)	26.4 (22)	25.8 (20)	26.1 (20)	29.8 (2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각 연도별 전월세 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함

주3: 6차년도부터 월세 지출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월세와 부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연간 비용을 분리하여 조사함.

## 마. 거주 주택 주거면적

### 1) 연도별 거주주택 주거 면적

본 조사는 전체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단독주택 거주 가구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거주 가구 구분하여 주택 면적을 조사하였다. 또한 단독 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과 주택 면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의 경우 총 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분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단독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단독주택 거주 가구: 2007년 33.1%, 2008년 31.9%, 2009년 31.4%, 2010년 31.9%, 2011년 33.5%, 2012년 34.1%, 2013년 34.2%)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대지 면적은 2007년 238.1 $m^2$ , 2008년 221.0 $m^2$ , 2009년 233.1 $m^2$ , 2010년 233.5 $m^2$ , 2011년 208.9 $m^2$ , 2012년 213.1 $m^2$ , 2013년 211.7 $m^2$ 이었으며, 평균 주택 면적의 경우 2007년 76.5 $m^2$ , 2008년 79.3 $m^2$ , 2009년 80.0 $m^2$ , 2010년 78.8 $m^2$ , 2011년 75.8 $m^2$ , 2012년 75.6 $m^2$ , 2013년 75.5 $m^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거주 가구(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거주 가구: 2007년 61.4%, 2008년 63.4%,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7%, 2012년 63.2%, 2013년 63.4%)를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총 면적의 경우, 2007년 88.6 $m^2$ , 2008년 87.4 $m^2$ , 2009년 89.2 $m^2$ , 2010년 88.8 $m^2$ , 2011년 88.2 $m^2$ , 2012년 89.2 $m^2$ , 2013년 90.6 $m^2$ , 전용 면적의 경우 2007년 71.6 $m^2$ , 2008년 72.5 $m^2$ , 2009년 75.1 $m^2$ , 2010년 73.4 $m^2$ , 2011년 73.5 $m^2$ , 2012년 73.4 $m^2$ , 2013년 74.8 $m^2$ 이었다.

&lt;표 VI-17&gt; 연도별 거주주택 주거 면적

(단위 $m^2$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단독주택	대지면적 (중앙값)	238.1 (158.4)	221.0 (161)	233.1 (165)	233.5 (165)	208.9 (151.8)	213.1 (158.4)	211.7 (155.1)
	주택면적 (중앙값)	76.5 (66)	79.3 (66)	80.0 (69.3)	78.8 (66)	75.8 (66)	75.6 (66)	75.5 (66)
아파트 외	총면적 (중앙값)	88.6 (82.5)	87.4 (82.5)	89.2 (83)	88.8 (82.5)	88.2 (82.5)	89.2 (82.5)	90.6 (85.8)
	전용면적 (중앙값)	71.6 (69.3)	72.5 (70)	75.1 (72.6)	73.4 (69.3)	73.5 (69.3)	73.4 (70)	74.8 (72.9)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가구 특성별 거주주택 주거 면적

가구 특성별 거주 주택 면적 현황은 단독주택 가구와 아파트 거주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단독주택 거주면적에 대해 특성별로 요약하여 보면, 남성 가구주(2007년  $65.4m^2$ , 2008년  $75.2m^2$ , 2009년  $74.1m^2$ , 2010년  $76.0m^2$ , 2011년  $70.1m^2$ , 2012년  $72.5m^2$ , 2013년  $75.6m^2$ ), , 가구주 연령은 50대(2007년  $68.4m^2$ , 2008년  $77.1m^2$ , 2009년  $78.5m^2$ , 2010년  $79.1m^2$ , 2011년  $73.1m^2$ , 2012년  $74.8m^2$ , 2013년  $76.3m^2$ ), 가구원수 4명 이상(2007년  $69.7m^2$ , 2008년  $81.9m^2$ , 2009년  $80.1m^2$ , 2010년  $81.1m^2$ , 2011년  $74.1m^2$ , 2012년  $77.9m^2$ , 2013년  $80.1m^2$ ), 자가 거주 가구(2007년  $71.9m^2$ , 2008년  $80.9m^2$ , 2009년  $79.4m^2$ , 2010년  $80.5m^2$ , 2011년  $75.9m^2$ , 2012년  $78.0m^2$ , 2013년  $80.4m^2$ )인 경우 주택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 가구주(2007년  $48.0m^2$ , 2008년  $55.7m^2$ , 2009년  $57.7m^2$ , 2010년  $60.0m^2$ , 2011년  $56.6m^2$ , 2012년  $57.2m^2$ , 2013년  $58.7m^2$ ), 가구주 연령 20대(2007년  $43.3m^2$ , 2008년  $49.8m^2$ , 2009년  $45.8m^2$ , 2010년  $55.3m^2$ , 2011년  $52.7m^2$ , 2012년  $49.6m^2$ , 2013년  $52.1m^2$ ), 가구원수 1명(2007년  $38.4m^2$ , 2008년  $45.6m^2$ , 2009년  $47.2m^2$ , 2010년  $50.1m^2$ , 2011년  $48.0m^2$ , 2012년  $51.1m^2$ , 2013년  $51.7m^2$ ), 무보증 월세 가구(2007년  $39.5m^2$ , 2008년  $51.8m^2$ , 2009년  $48.2m^2$ , 2010년  $49.7m^2$ , 2011년  $50.4m^2$ , 2012년  $35.4m^2$ , 2013년  $45.8m^2$ )의 평균 주택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2012년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남성과 여성 가구주 가구 모두 주택 평균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남성 가구주 가구에서  $3m^2$  이상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 특성으로 구분하여 볼 때, 가장 큰 주택면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50대 가구주 가구는 면적의 차이가 40대 가구와  $1m^2$  이내로 좁혀진 것이 특징적인 결과였으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가 다른 연령 집단별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단독주택 면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생활에 있어 고령층 가구주 가구의 열악함이 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4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1년에는  $69.0m^2$ 의 주택면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76.8m^2$ )과 비교

하여 단독주택 거주로 남아 있는 20대 가구주 가구의 주거 상황이 비교적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2013년 결과에 의하면 76.0 $m^2$ 로 주택면적으로만 살펴봤을 때 주거상황이 2011년 수준으로 복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18> 가구 특성별 거주주택 주택면적 - 단독주택

(단위 $m^2$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65.4 (66.6)	75.2 (75.9)	74.1 (75.9)	76.0 (75.9)	70.1 (70)	72.5 (75.9)	75.6 (79.2)
	여성	48.0 (49.5)	55.7 (50)	57.7 (56.1)	60.0 (56.1)	56.6 (56.1)	57.2 (56.1)	58.7 (58)
가구주 연령	20대	43.3 (42.9)	49.8 (43)	45.8 (42.9)	55.3 (52.8)	52.7 (49.5)	49.6 (46.2)	52.1 (39.6)
	30대	60.7 (62.7)	69.7 (66)	69.5 (69.3)	70.8 (66)	64.6 (66)	65.0 (66)	67.6 (69.3)
	40대	67.6 (75.9)	78.6 (79.2)	75.4 (79.2)	76.8 (79.2)	69.0 (72.6)	72.2 (75.9)	76.0 (79.2)
	50대	68.4 (69.3)	77.1 (79.2)	78.5 (82)	79.1 (79.2)	73.1 (75.9)	74.8 (75.9)	76.3 (79.2)
	60대 이상	59.9 (59.4)	66.6 (66)	66.0 (66)	68.9 (66)	63.8 (62.7)	65.7 (66)	66.6 (66)
가구원수	1명	38.4 (36.3)	45.6 (39.6)	47.2 (42.9)	50.1 (46.2)	48.0 (42.9)	51.1 (46.2)	51.7 (49.5)
	2명	62.5 (59.5)	69.3 (66)	68.0 (66)	70.7 (68.97)	64.5 (66)	66.0 (66)	67.9 (66)
	3명	62.6 (66)	70.7 (69.3)	70.9 (72.6)	73.5 (69.3)	69.7 (69.3)	70.1 (72.6)	75.3 (79)
	4명 이상	69.7 (75.9)	81.9 (82.5)	80.1 (82.5)	81.1 (82.5)	74.1 (82)	77.9 (82.5)	80.1 (82.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71.9 (75.9)	80.9 (80)	79.4 (79.2)	80.5 (79.2)	75.9 (79.2)	78.0 (79.2)	80.4 (82.5)
	전세	55.5 (59.4)	68.0 (66)	66.3 (66)	70.8 (69.3)	59.4 (59.4)	61.1 (62.7)	64.0 (66)
	보증부월세	37.7 (36.3)	45.6 (39.6)	47.1 (42.9)	48.1 (45.21)	45.8 (42.9)	47.1 (42.9)	50.4 (46.2)
	무보증월세	39.5 (37.92)	51.8 (49.5)	48.2 (49.5)	49.7 (52.8)	50.4 (49.5)	35.4 (33)	45.8 (49.5)
	무상거주	- -	- -	- -	- -	- -	71.5 (72.6)	68.2 (66)
	기타	59.0 (59.4)	58.6 (59.4)	65.3 (66)	66.0 (62.7)	65.2 (62.7)	45.6 (42.9)	0.0 (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괄호안은 중앙값임

가구 특성별 평균 아파트 전용면적을 비교해보면, 가구주 성별이 남성(2007년 74.2 $m^2$ , 2008년 75.9 $m^2$ , 2009년 78.5 $m^2$ , 2010년 76.2 $m^2$ , 2011년 76.7 $m^2$ , 2012년 77.1 $m^2$ , 2013년 78.8 $m^2$ ), 가구원수 4명 이상(2007년 79.1 $m^2$ , 2008년 82.4 $m^2$ , 2009년 84.2 $m^2$ , 2010년 81.2 $m^2$ , 2011년 82.8 $m^2$ , 2012년 83.7 $m^2$ , 2013년 84.1 $m^2$ ), 자가 거주 주택 가구(2007년 80.0 $m^2$ , 2008년 81.5 $m^2$ , 2009년 82.9 $m^2$ , 2010년 80.7 $m^2$ , 2011년 81.4 $m^2$ , 2012년 81.4 $m^2$ , 2013년 83.0 $m^2$ ) 일 때 면적이 넓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연령별 아파트 주택면적에 있어서는 2013년의 경우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2011년 두집단의 주택면적 차이가 약 $2m^2$ 였던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파트 거주 가구 중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 성별이 여성(2007년  $58.7m^2$ , 2008년  $56.7m^2$ , 2009년  $60.0m^2$ , 2010년  $60.0m^2$ , 2011년  $62.5m^2$ , 2012년  $60.7m^2$ , 2013년  $61.5m^2$ ), 20대(2007년  $50.9m^2$ , 2008년  $50.4m^2$ , 2009년  $50.5m^2$ , 2010년  $55.3m^2$ , 2011년  $54.9m^2$ , 2012년  $49.6m^2$ , 2013년  $52.1m^2$ ), 가구원수 1명(2007년  $46.7m^2$ , 2008년  $46.6m^2$ , 2009년  $48.8m^2$ , 2010년  $50.1m^2$ , 2011년  $52.6m^2$ , 2012년  $53.2m^2$ , 2013년  $53.5m^2$ ) 일 때 나타났다.

<표 VI-19> 가구 특성별 거주주택 주택면적 - 아파트

(단위 $m^2$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74.2 (72.6)	75.9 (75.9)	78.5 (78.2)	76.2 (75.9)	76.7 (75.9)	77.1 (79)	78.8 (79.2)
	여성	58.7 (56)	56.7 (52.8)	60.0 (58.4)	60.0 (56.1)	62.5 (58.74)	60.7 (56.1)	61.5 (59.4)
가구주 연령	20대	50.9 (49)	50.4 (44.5)	50.5 (42.9)	55.3 (52.8)	54.9 (49.5)	49.6 (46.2)	52.1 (39.6)
	30대	69.6 (66)	70.0 (66)	72.9 (69.3)	70.8 (66)	72.2 (69.3)	70.1 (66)	70.2 (69.3)
	40대	77.4 (79.2)	79.1 (79.2)	80.1 (79.2)	77.2 (79.2)	76.6 (75.9)	77.2 (79.2)	79.0 (80)
	50대	77.3 (75.9)	78.2 (79.2)	81.9 (82.5)	79.1 (79.2)	78.8 (79.2)	78.0 (79.2)	79.3 (79.2)
	60대 이상	69.5 (66)	68.6 (66)	69.6 (66)	69.1 (66)	68.7 (66)	69.7 (66)	70.4 (66)
가구원수	1명	46.7 (39.6)	46.6 (39.6)	48.8 (42.9)	50.1 (46.2)	52.6 (46.2)	53.2 (49.5)	53.5 (49.5)
	2명	70.1 (62.7)	70.3 (66)	73.3 (69.3)	70.9 (69.3)	69.2 (66)	69.2 (66)	70.6 (69.3)
	3명	72.7 (69.3)	71.5 (69.3)	75.1 (74.2)	73.8 (69.3)	76.0 (72.9)	75.2 (75.9)	78.5 (79.2)
	4명이상	79.1 (79.2)	82.4 (82.5)	84.2 (82.5)	81.2 (82.5)	82.8 (82.5)	83.7 (82.5)	84.1 (82.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80.0 (79.2)	81.5 (82)	82.9 (82.5)	80.7 (79.2)	81.4 (79.2)	81.4 (82.5)	83.0 (82.5)
	전세	67.8 (66)	68.9 (66)	71.2 (66)	70.8 (69.3)	69.8 (66)	68.9 (66)	69.6 (67)
	보증부월세	45.1 (39.6)	46.6 (39.6)	49.9 (42.9)	48.1 (45.21)	49.4 (45)	49.2 (42.9)	51.8 (46.2)
	무보증월세	44.9 (41.25)	51.8 (49.5)	51.5 (49.5)	49.7 (52.8)	56.3 (59.4)	41.0 (39.6)	55.1 (58)
	무상거주	- -	- -	- -	- -	- -	75.6 (75.9)	71.1 (66)
	기타	63.6 (59.4)	60.6 (59.4)	70.9 (66)	67.4 (62.7)	71.9 (62.7)	71.7 (84.81)	0.0 (0.0)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3) 가구 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주거 면적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면적을 살펴보았다. 먼저, 단독주택 주택면적의 평균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인 5분위의 면적이 2007년 101.4 $m^2$ , 2008년 103.5 $m^2$ , 2009년 102.4 $m^2$ , 2010년 104.5 $m^2$ , 2011년 97.8 $m^2$ , 2012년 95.0 $m^2$ , 2013년 93.6 $m^2$ 로 가장 넓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주택면적은 2007년 68.0 $m^2$ , 2008년 68.1 $m^2$ , 2009년 71.1 $m^2$ , 2010년 66.6 $m^2$ , 2011년 64.9 $m^2$ , 2012년 67.3 $m^2$ , 2013년 66.1 $m^2$ 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값과 2013년 값을 단편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모든 소득분위에서 주택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소득분위 가구집단은 3분위였으며, 2012년과 비교해 약 3 $m^2$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분위는 1.2 $m^2$  감소한데 그쳤다.

&lt;표 VI-20&gt; 가구 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주택면적 - 단독주택

(단위 $m^2$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68.0 (62)	68.1 (60)	71.1 (66)	66.6 (66)	64.9 (59.4)	67.3 (66)	66.1 (66)
2분위	72.9 (66)	74.7 (66)	79.1 (66)	75.5 (66)	72.6 (66)	75.3 (66)	75.4 (66)
3분위	78.4 (75.9)	82.9 (72.6)	80.9 (79)	90.9 (82.5)	80.5 (70)	74.7 (66)	77.2 (72.6)
4분위	84.3 (79.2)	91.4 (82.5)	86.3 (79.2)	81.7 (79.2)	87.5 (82.5)	86.6 (82.5)	84.7 (78)
5분위	101.4 (92)	103.5 (89.1)	102.4 (92.4)	104.5 (92.4)	97.8 (82.5)	95.0 (82.5)	93.6 (82.5)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가구 소득분위별 아파트 전용면적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역시 5분위의 전용면적(2007년 87.9 $m^2$ , 2008년 91.6 $m^2$ , 2009년 90.4 $m^2$ , 2010년 90.1 $m^2$ , 2011년 88.8 $m^2$ , 2012년 90.7 $m^2$ , 2013년 91.8 $m^2$ )이 1분위의 전용면적(2007년 57.3 $m^2$ , 2008년 57.1 $m^2$ , 2009년 60.5 $m^2$ , 2010년 59.4 $m^2$ , 2011년 58.6 $m^2$ , 2012년 58.1 $m^2$ , 2013년 58.2 $m^2$ )보다 높게 나타나 높은 소득분위에 속할수록 평균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2년 결과 값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 가구에서 아파트 전용면적의 규모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집단은 4분위에 속하는 가구 집단(2.5 $m^2$  증가)이었고, 가장 증가폭이 작은 집단은 5분위(1.5 $m^2$  증가)였으며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단독주택 면적의 변화와 비교하여 볼 때, 2013년 4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단독주택에서의 주택면적은 2012년 보다 작지만,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012년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5분위에 속하는 가구들의 경우 주택에 있어 면적의 변동 폭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lt;표 VI-21&gt; 가구 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전용면적 - 아파트

(단위 $m^2$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57.3 (52.8)	57.1 (52.8)	60.5 (56.1)	59.4 (59.4)	58.6 (56.1)	58.1 (56.1)	58.2 (57)
2분위	58.7 (59)	58.3 (56.1)	62.9 (62.7)	60.7 (58.74)	62.8 (59.4)	61.6 (58.74)	61.9 (58.74)
3분위	67.1 (66)	68.1 (66)	71.5 (69.3)	69.2 (66)	70.1 (66)	70.1 (69.3)	70.8 (69.3)
4분위	74.4 (75.9)	73.4 (72.6)	78.5 (75.9)	76.0 (75.9)	76.4 (72.6)	74.3 (72.6)	76.8 (75.9)
5분위	87.9 (84.32)	91.6 (85.8)	90.4 (85)	90.1 (84.81)	88.8 (84.81)	90.7 (85)	91.8 (85.8)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2.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현황

### 가.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 여부

#### 1) 연도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 여부

재정패널조사에서는 2차 조사부터 전체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 정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 13~15% 가구가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2008년 15.3%, 2009년 15.7%, 2010년 15.0%, 2011년 14.3%, 2012년 13.4%, 2013년 12.7%).

&lt;표 VI-22&gt; 연도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 여부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유여부	15.3	15.7	15.0	14.3	13.4	12.7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가구 특성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 여부

가구 특성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소유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각 특성에 따라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 중에는 15.1%가 추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성 가구주 가구 중에서는 6.6%에 그쳤다. 특성별로 요약하여 보면, 가구주 연령은 50대인 가구에서 추가 주택을 보유하는 비율이 2008년 17.9%, 2009년 19.1%, 2010년 19.5%, 2011년 19.1%, 2012년 17.8%, 2013년 17.3%

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의 점유 형태에 있어서는 전세거주 가구의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보유율은 2008년 21.2%, 2009년 20.0%, 2010년 22.7%, 2011년 21.4%, 2012년 22.0%, 2013년 20.5%로 자가 거주 가구보다 보유율이 약 7%p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특성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이다. 특히 가구주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시간에 따라 추가 주택 보유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08년의 무급가족종사자 가구의 추가 주택 보유비율은 14.9%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2009년 26.4%, 2010년 35.9%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고용원을 둔 사업자의 추가 주택 보유비율보다 10.3%p 가량 높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2012년에는 23.4%로 수준으로 12.6%p 감소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 가구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서는 추가주택 보유비율은 거의 ±4%p 수준 이내로 변화하는 정도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표 VI-23> 가구 특성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여부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17.6	18.2	17.2	16.6	16.2	15.1
	여성	7.0	6.7	7.4	7.7	6.2	6.6
가구주 연령	20대	6.0	7.7	2.5	2.1	2.8	3.7
	30대	17.1	16.8	15.1	13.0	10.4	8.1
	40대	19.1	19.0	18.4	17.4	16.9	16.2
	50대	17.9	19.1	19.5	19.1	17.8	17.3
	60대 이상	9.3	9.4	9.4	9.6	10.2	9.8
가구원수	1명	5.3	3.9	5.0	5.1	3.1	4.5
	2명	14.8	14.6	13.6	13.2	14.0	12.4
	3명	15.5	17.6	17.1	15.7	13.4	14.5
	4명이상	20.2	20.4	19.1	20.0	20.3	17.7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6	18.7	17.5	16.4	15.8	14.3
	일용근로자	7.3	7.5	7.0	5.9	6.8	6.7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5.1	15.9	15.3	14.9	12.5	13.0
	고용원 둔 사업자	25.4	25.1	25.6	28.4	23.0	23.3
	무급가족 종사자	14.9	26.4	35.9	15.7	23.4	18.9
	기타	10.6	8.1	7.6	8.2	9.7	8.4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4.2	15.1	14.0	14.0	12.9	12.8
	전세	21.2	20.0	22.7	21.4	22.0	20.5
	보증부월세	8.5	11.4	7.5	5.1	4.7	5.0
	무보증월세	13.0	4.5	5.9	4.5	4.3	6.5
	무상거주	22.8	17.5	13.2	16.3	12.9	8.7
	기타	-	-	-	-	-	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가구 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 여부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5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2008년 30.6%, 2009년 31.1%, 2010년 31.6%, 2011년 30.4%, 2012년 26.8%, 2013년 25.8%)로 보유하고 있었고, 10가구 중 3가구는 주택 외 보유하는 주택이 있는 수준이었다. 이를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인 1분위 가구의 보유율(2008년 6.3%, 2009년 5.7%, 2010년 6.9%, 2011년 5.9%, 2012년 3.5%, 2013년 4.8%)과 비교하여 보면 매년 약 6배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2008년 4.9배, 2009년 5.5배, 2010년 4.6배, 2011년 5.1배, 2012년 7.6배, 2013년 5.3배).

<표 VI-24> 가구 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소유 여부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6.3	5.7	6.9	5.9	3.5	4.8
2분위	8.4	8.5	6.3	6.6	8.5	7.1
3분위	14.8	14.8	12.9	10.7	10.2	10.1
4분위	16.7	18.3	17.4	16.5	18.5	16.0
5분위	30.6	31.1	31.6	30.4	26.8	25.8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현황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2008년 15.3%, 2009년 15.7%, 2010년 15.0%, 2011년 14.3%, 2012년 13.4%, 2013년 12.7%)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수를 평균한 결과, 2008년 1.1채, 2009년 1.1채, 2010년 1.2채, 2011년 1.2채, 2012년 1.2채, 2013년 1.2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25&gt; 연도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현황 - 보유주택 수

단위(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주택 수 (중앙값)	1.1 (1.0)	1.1 (1.0)	1.2 (1.0)	1.2 (1.0)	1.2 (1.0)	1.2 (1.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 '전세를 놓았다(2008년 55.2%, 2009년 57.7%, 2010년 55.8%, 2011년 57.6%, 2012년 57.4%, 2013년 53.7%)'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보증부 월세(2008년 12.6%, 2009년 15.7%, 2010년 18.7%, 2011년 19.7%, 2012년 22.1%, 2013년 21.4%), 무상거주(2008년 19.2%, 2009년 17.8%, 2010년 16.8%, 2011년 14.3%, 2012년 15.7%, 2013년 18.7%), 빈집(2008년 11.1%, 2009년 8.2%, 2010년 9.0%, 2011년 8.7%, 2012년 8.7%, 2013년 8.4%), 무보증 월세(2008년 2.9%, 2009년 2.8%, 2010년 1.4%, 2011년 1.8%, 2012년 1.6%, 2013년 1.3%)의 순 이었다.

또한 전세를 주고 있는 가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5%~57%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3년 53.7%로 작년 대비(2012년 57.2%) 3.7%p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보증부 월세로 관리하는 가구는 2008년 12.6%에서 2012년 22.1%로 9.5%p 증가하였다가, 2013년 결과값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20%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t;표 VI-26&gt; 연도별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현황 - 관리 형태(복수응답)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세	55.2	57.7	55.8	57.6	57.4	53.7
보증부 월세	12.6	15.7	18.7	19.7	22.1	21.4
무보증 월세	2.9	2.8	1.4	1.8	1.6	1.3
무상거주	19.2	17.8	16.8	14.3	15.7	18.7
빈집	11.1	8.2	9.0	8.7	8.7	8.4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주택 구입 현황

#### 가. 주택 구입 여부

##### 1) 연도별 주택 구입 여부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연도별 주택 구입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 미만의 구입현황을 보였다.(2007년 4.0%, 2008년 4.5%, 2009년 3.5%, 2010년 2.6%, 2011년 3.7%, 2012년 2.9%, 2013년 4.1%) 그 중 주택 구입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8년으로, 4.5% 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응답했으며, 2년 뒤인 2010년에는 주택 구입 비율이 2.6%로 감소하였다. 2013년의 주택 구입 비율은 4.1%로 2012년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7> 연도별 주택 구입 여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입 여부	4.0	4.5	3.5	2.6	3.7	2.9	4.1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가구 특성별 주택 구입 여부

가구 특성별로 주택을 구입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각 특성에 따라 주택 구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4.7%), 가구주 연령이 30대(6.6%)인 경우 가구주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6.4%)이거나 고용원을 둔 사업주(6.8%)인 경우, 가구원수가 4명 이상(7.0%)인 가구, 자가 주택 거주 가구인 경우 주택 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 자가 거주 주택 가구에서 주택 구입 비율(6.7%)이 2012년 결과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2.3%),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1.2%), 가구주 무급가족 종사자(0.1%), 가구원 1명(1.1%), 전세 거주(1.0%)가구는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가구주 가구에서는 2007년 이후 주택 구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 소폭 증가(1.5%p)한 이후 2013년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없었다. 그 외 월세 및 무상거주 가구에서도 주택 구입이 없었다.

&lt;표 VI-28&gt; 가구 특성별 주택 구입 여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4.6	5.0	3.8	3.0	4.3	3.6	4.7
	여성	1.9	2.5	2.8	1.4	1.9	1.0	2.3
가구주 연령	20대	2.5	2.8	2.1	1.4	2.9	0.1	-
	30대	8.1	6.2	6.1	4.1	5.9	4.4	6.6
	40대	4.2	6.0	3.4	2.9	4.2	4.3	5.9
	50대	2.7	4.8	3.7	2.7	2.4	3.4	3.8
	60대이상	1.1	1.2	1.1	0.9	2.1	0.6	1.2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9	6.4	4.7	3.5	4.9	4.0	6.4
	일용근로자	1.4	1.1	0.8	1.1	2.7	2.9	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5	3.4	2.5	2.3	2.2	2.7	2.1
	고용원 둔 사업자	6.2	6.1	6.8	4.0	5.9	5.4	6.8
	무급가족 종사자	14.3	7.4	5.2	0.0	0.0	0.0	0.1
	기타	0.9	1.9	2.1	0.9	2.0	0.4	1.4
가구원수	1명	1.4	2.1	0.6	1.1	1.6	0.4	1.1
	2명	3.3	3.2	2.3	1.9	4.0	2.1	3.0
	3명	4.6	5.1	5.4	2.2	3.0	3.2	4.5
	4명이상	5.3	6.0	4.3	4.1	5.4	5.2	7.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5.4	6.0	5.7	4.0	5.9	4.2	6.7
	전세	2.9	2.8	0.8	1.5	1.5	1.7	1.0
	보증부월세	0.9	1.6	0.5	0.1	0.0	1.1	0.0
	무보증월세	1.5	0.0	0.0	0.0	0.0	0.0	0.0
	무상거주	-	-	-	-	-	0.0	0.0
	기타	1.6	5.2	1.7	0.0	0.8	0.4	0.0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구입 여부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구입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차수에 걸쳐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평균 6% 정도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응답해 (2007년 6.9% 2008년 7.9%, 2009년 6.7%, 2010년 5.1%, 2011년 6.3%, 2012년 5.7%, 2013년 8.4%)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주택 구입비율의 차이는 약 9배 수준(2007년 14.8배, 2008년 4.5배, 2009년 5.2배, 2010년, 6.3배, 2011년 3.1배, 2012년 18.7배, 2013년 10.2배)이었다. 주택 구입 비율의 차이는 2012년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약 19배 수준이었다.

<표 VI-29>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구입 여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0.5	1.7	1.3	0.8	2.0	0.3	0.8
2분위	1.8	2.1	1.9	0.9	2.1	2.3	1.6
3분위	3.8	3.9	3.2	2.8	3.4	2.1	4.1
4분위	7.4	6.9	4.4	3.5	4.5	4.3	5.3
5분위	6.9	7.9	6.7	5.1	6.3	5.7	8.4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주택 구입 현황

재정패널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현황을 파악하고자 1차년도 조사부터 주택 구입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부터 주택 구입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주택 구입 가구(2007년 4.0% 2008년 4.5%, 2009년 3.5%, 2010년 2.6%, 2011년 3.7%, 2012년 2.9%, 2013년 4.1%)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07년 18,132.8만원 2008년 19,214.4만원, 2009년 19,847.8만원, 2010년 23,201.9만원, 2011년 24,846.8만원, 2012년 21,143.8만원, 2013년 27,185.9만원 으로 조사되어 해마다 가격이 증가하였다가 2012년 잠시 하락 하였으며, 2014년 다시 증가하였다.

<표 VI-30> 연도별 주택 구입 현황 - 주택 구입 가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구입 가격 (중앙값)	18,132.8 (15,300)	19,214.4 (17,000)	19,845.7 (16,400)	23,201.9 (15,500)	24,934.4 (20,000)	21,204.5 (18,000)	27,344.6 (22,7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012년(6차년도) 조사부터 주택 구입한 가구(2007년 4.0% 2008년 4.5%, 2009년 3.5%, 2010년 2.6%, 2011년 3.7%, 2012년 2.9%, 2013년 4.1%)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가구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2012년 76.2%, 2013년 86.3%)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는 2012년 21.7%, 2013년 11.6%순이었다. 2012년 증여를 위해 구입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는 0.9%가 있었으나, 2013년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 중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31&gt; 연도별 주택 구입 현황 - 주택 구입 사유

단위(%)	2012년	2013년
거주	76.2	86.3
재산증식	21.7	11.6
증여	0.9	-
기타	1.2	2.2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4. 주택 매각 현황

##### 가. 주택 매각 여부

##### 1) 연도별 주택 매각 여부

연도별 주택 매각 여부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 가구의 약 2%(2007년 2.1% 2008년 2.5%, 2009년 2.3%, 2010년 2.3%, 2011년 1.8%, 2012년 1.7%, 2013년 2.9%)가 주택을 매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매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2013년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32&gt; 연도별 주택 매각 여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각 여부	2.1	2.5	2.3	2.3	1.8	1.7	2.9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앞서 살펴본 <표 VI-27>의 연도별 주택 구입 비율과 <표 VI-32>의 매각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VI-33>와 같다. 연도별로 2007년 2.0%p, 2008년 2.0%p, 2009년 1.2%p, 2010년 0.3%p 2011년 1.8%p, 2012년 1.2%p, 2013년 1.2%p의 차이를 보였으며, 매입 비율과 매각 비율의 차이가 가장 작은 시기는 2010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기는 2007년이었다.

&lt;표 VI-33&gt; 연도별 주택 매입/매각 비율 차이

단위(%p)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입/매각 비율 차이	2.0	2.0	1.2	0.3	1.8	1.2	1.2

주: 매입 비율 - 매각 비율

## 2) 가구 특성별 주택 매각 여부

가구 특성별 주택 매각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각 특성에 따라 주택 매각 여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 30~40대의 가구의 매각 비율이 높고,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 가구원수 4명이상 가구, 전세 가구에서 주택을 매각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보증부 월세와 무보증 월세 가구의 경우 주택을 매입한 비율은 0%로 나타났는데, 주택 매각 비율에서는 보증부 월세에서 1.7%(2013년 기준)로 매각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34&gt; 가구 특성별 주택 매각 여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2.4	2.7	2.6	2.6	2.2	2.1	3.4
	여성	1.0	1.7	1.3	1.1	0.7	0.7	1.5
가구주 연령	20대	0.9	1.4	0.6	2.1	0.0	0.1	0.0
	30대	2.0	2.6	2.4	2.5	2.2	3.0	3.5
	40대	3.3	3.6	3.2	2.7	2.1	1.9	4.1
	50대	2.1	2.4	2.8	2.8	1.8	1.8	2.8
	60대이상	1.0	1.5	1.2	1.1	1.3	0.9	1.5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4	3.0	2.7	2.6	2.0	2.1	4.2
	일용근로자	3.1	0.8	1.3	1.7	1.1	1.8	0.6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6	2.5	1.7	1.9	1.6	1.8	1.8
	고용원 둔 사업자	2.6	4.0	5.8	4.1	3.4	1.3	3.8
	무급가족 종사자	8.9	2.6	9.9	0.0	5.1	1.1	0.1
	기타	1.0	1.7	1.6	1.7	1.4	0.9	1.6
가구원수	1명	0.8	1.6	0.8	0.4	0.5	0.4	1.2
	2명	1.2	1.4	2.3	2.1	1.8	1.9	1.9
	3명	1.9	2.2	1.7	2.1	1.0	1.9	3.4
	4명이상	3.2	3.9	3.6	3.4	3.5	2.4	4.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2	2.8	2.6	2.1	2.2	1.8	3.0
	전세	2.4	3.5	2.5	3.7	2.2	1.7	4.2
	보증부월세	1.2	0.7	0.4	0.9	0.7	0.8	1.7
	무보증월세	1.2	0.0	1.5	1.2	0.0	0.0	0.0
	무상거주	0.0	0.0	3.4	1.4	0.3	2.2	1.5
	기타	-	-	-	-	-	12.3	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매각 여부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매각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주택 매각을 경험한 가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약 4배(2007년 5.7배, 2008년 1.5배, 2009년 4.9배, 2010년 2.7배, 2011년 3.2배, 2012년 8.4배, 2013년 4.6배) 매각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주택 매각 비율의 차이는 2012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약 8배 수준이었다.

&lt;표 VI-35&gt;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매각 여부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0.7	2.2	0.9	1.6	1.1	0.4	1.1
2분위	1.6	1.7	1.4	1.3	0.6	1.0	1.3
3분위	1.6	2.4	1.9	1.6	2.3	1.3	3.2
4분위	2.1	3.0	3.2	2.6	2.0	2.5	3.7
5분위	4.2	3.3	4.4	4.2	3.4	3.4	5.1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주택 매각 현황

주택 매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체 조사 가구 중 주택을 매각한 가구(2007년 2.1% 2008년 2.5%, 2009년 2.3%, 2010년 2.3%, 2011년 1.8%, 2012년 1.7%, 2013년 2.9%)를 대상으로 주택 매각 여부 및 매각 가격, 보유기간 및 최초 매입 가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각 가격의 경우 매년 증가하다 2012년에 감소하였고, 2013년 결과에서는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2007년 16,676.9만원, 2008년 18,394.2만원, 2009년 19,177.1만원, 2010년 21,324.3만원, 2011년 24,934.7만원, 2012년 19,377.2만원, 2013년 24,929.3만원). 최초 매입가격 역시 매년 증가하다 2012년 들어 감소한 뒤 2013년 다시 증가하였는데, 평균 2007년 10,502.3만원 2008년 11,788.0만원, 2009년 12,402.4만원, 2010년 16,034.8만원, 2011년 16,671.1만원, 2012년 12,423.1만원, 2013년 18,268.8만원 수준이었다. 평균 보유기간은 8~10년으로 2010년에 매각한 주택들의 보유기간이 9.8년으로 가장 길었고, 2008년에는 매각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7년으로 기간 중 가장 짧았다.

&lt;표 VI-36&gt; 주택 매각 현황 - 매각가격, 최초매입 가격, 보유기간

단위(만원,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각 가격 (중앙값)	16,676.9 (12,500)	18,394.2 (13,000)	19,177.1 (14,900)	21,324.3 (13,900)	24,934.7 (22,000)	19,377.2 (16,000)	24,929.3 (20,000)
보유 기간 (중앙값)	7.7 (6)	7.0 (5)	9.5 (6)	9.8 (7)	7.9 (5)	8.4 (7)	8.5 (7.0)
최초매입가격 (중앙값)	10,502.3 (8,300)	11,788.0 (9,000)	12,402.4 (10,000)	16,034.8 (10,500)	16,671.1 (15,000)	12,423.1 (10,000)	18,268.8 (14,5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012년의 조사인 6차년도 조사부터 주택 매각 가구를 대상으로 그 사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2012년 55.8%, 2013년 62.3%)이 거주지 이전을 위해 매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3년의 경우 19.4%에서 부채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2012년에는 18.5%가 주택 규모를 조정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lt;표 VI-37&gt; 주택 매각 현황 - 주택 매각 사유

단위(%)	2012년	2013년
거주지 이전	55.8	62.3
부채상환	14.3	19.4
주택규모 조정	18.5	15.8
기타	11.4	2.6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VII. 가구 소득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연간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상소득과 비경상 소득을 구성하는 방법은 조사와 분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예측 가능하며, 비교적 정기적인 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정의한다. 비경상소득은 예측이 불가하며, 일시적인 소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장에 제시하는 결과표는 전체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황 표와 가구 특성과 소득분위로 세분화하여 각 특성과 소득분위 내에서의 분포 등을 살펴본 표로 나뉠 수 있다. 이는 모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는 패널가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세부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가구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조사에서 조사된 소득의 합과 가구 조사에서 측정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총 소득 산출 시 각 항목에 지출이 없는 경우 0,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값 처리하여 산출하였다. 단, 각 항목별 소득 유무 및 평균 소득 현황의 경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산출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값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결측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 산출값을 결측치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가구 소득 구성

가구 소득은 경상 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경상 소득은 다시 시장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으로 구분하였는데, 시장소득의 경우 크게 시장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되며, 1차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순사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재산소득, 가구원의 연금 및 보험 기타 소득이고, 사적이전 소득은 타가구원에게 지원받은 용돈 등의 금액을 의미한다.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정부지원연금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비경상 소득에는 사회보험의 일시금과 개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 소득이 포함되었다. 사회보험 일시금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퇴직(연금) 일시금이 포함되었고, 가구 소득에는 경조사 소득과 상속 및 증여로 유입된 소득을 포함하였다.

&lt;표 VII-1&gt; 재정패널 가구 소득 구성

구분			세부내용
경상소득	시장소득	1차소득	근로소득 (임금소득, 순사업소득)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 및 보험 (사회보험소득, 퇴직연금, 연금신탁/펀드,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타가구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지원현금소득 (기초노령연금, 농어업, 장애수당, 보훈수당, 노인장기요양특별급여)
비경상 소득	사회보험 일시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일시금) 산재보험(일시금)
	가구소득		경조금 소득
			상속 증여

## 2. 가구 경상 소득 현황

### 가. 연도별 가구 경상 소득 현황

연도별 가구 경상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소득의 경우 평균 2007년 3,124.7만원, 2008년 3,112.6만원, 2009년 3,257.7만원, 2010년 3,572.3만원, 2011년 3,559.0만원, 2012년 3,620.0만원, 2013년 3,698.2만원(중양값: 2007년 2,500만원 2008년 2,465만원, 2009년 2,625만원, 2010년 2,900만원, 2011년 2,978만원, 2012년 2,800만원, 2013년 2,880만원)으로 2008년에 가장 낮았다. 1차 소득의 증가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314.6만원)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80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시장소득은 1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2007년 3,207.3만원, 2008년 3,220.1만원, 2009년 3,358.5만원, 2010년 3,684.8만원, 2011년 3,652.6만원, 2012년 3,724.1만원, 2013년 3,816.9만원(중양값: 2007년 2,508만원 2008년 2,516만원, 2009년 2,760만원, 2010년 3,000만원, 2011년 3,000만원, 2012년 2,880만원, 2013년 3,000만원)의 평균값을 보였다. 시장소득의 규모

로 살펴보면, 2011년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며, 그 차이가 높게 나타난 기간은 2009~2010년으로 326.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경상 소득은 2007년 3,239.8만원, 2008년 3,271.1만원, 2009년 3,422.0만원, 2010년 3,764.2만원, 2011년 3,740.5만원, 2012년 3,824.7만원, 2013년 3,927.8만원(중양값: 2007년 2,543만원 2008년 2,566만원, 2009년 2,800만원, 2010년 3,000만원, 2011년 3,000만원, 2012년 2,944만원, 2013년 3,000만원)으로 총 경상소득 역시 2010년과 2011년 사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높게 나타난 기간은 2009~2010년으로 342.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2> 연도별 경상소득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차소득	3,124.7 (2,500.0)	3,112.6 (2,465.0)	3,257.7 (2,625.0)	3,572.3 (2,900.0)	3,559.0 (2,978.0)	3,620.0 (2,800.0)	3,698.2 (2,880.0)
시장소득 (1차소득+사적이전소득)	3,207.3 (2,508.0)	3,220.1 (2,516.0)	3,358.5 (2,760.0)	3,684.8 (3,000.0)	3,652.6 (3,000.0)	3,724.1 (2,880.0)	3,816.9 (3,000.0)
총 경상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3,239.8 (2,543.0)	3,271.1 (2,566.0)	3,422.0 (2,800.0)	3,764.2 (3,000.0)	3,740.5 (3,000.0)	3,824.7 (2,944.0)	3,927.8 (3,00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1) 1차 소득

총 경상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차 소득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사회보험 및 민간 보험(일시금 제외) 소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소득 항목별 평균 소득 및 중양값을 산출하여 그 연도별 규모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2007년 2,978.1만원, 2008년 2,936.8만원, 2009년 3,073.4만원, 2010년 3,350.6만원, 2011년 3,329.0만원, 2012년 3,333.6만원, 2013년 3,435.5만원(중양값: 2007년 2,400만원 2008년 2,400만원, 2009년 2,453만원, 2010년 2,700만원, 2011년 2,640만원, 2012년 2,400만원, 2013년 2,500만원)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재산소득의 경우 2007년 83.2만원, 2008년 92.4만원, 2009년 98.8만원, 2010년 108.2만원, 2011년 116.1만원, 2012년 128.7만원, 2013년 114.7만원(중양값: 2007~2013년 0만원), 연금 및 보험 소득의 경우 2007년 63.4만원, 2008년 83.4만원, 2009년 85.4만원, 2010년 113.5만원, 2011년 113.9만원, 2012년 157.7만원, 2013년 148.1만원(중양값: 2007~2013년 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소득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평균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그 비율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lt;표 VII-3&gt; 연도별 1차 소득 연간 총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근로소득	2,978.1	2,936.8	3,073.4	3,350.6	3,329.0	3,333.6	3,435.5
(중앙값)	(2,400.0)	(2,400.0)	(2,453.0)	(2,700.0)	(2,640.0)	(2,400.0)	(2,500.0)
(근로소득/1차소득)	(95.3%)	(94.4%)	(94.3%)	(93.8%)	(93.5%)	(92.1%)	(92.9%)
재산소득	83.2	92.4	98.8	108.2	116.1	128.7	114.7
(중앙값)	(0.0)	(0.0)	(0.0)	(0.0)	(0.0)	(0.0)	(0.0)
(재산소득/1차소득)	(2.7%)	(3.0%)	(3.0%)	(3.0%)	(3.3%)	(3.6%)	(3.2%)
연금 및 보험 소득	63.4	83.4	85.4	113.5	113.9	157.7	148.1
(중앙값)	(0.0)	(0.0)	(0.0)	(0.0)	(0.0)	(0.0)	(0.0)
(연금보험소득/1차소득)	(2.0%)	(2.7%)	(2.6%)	(3.2%)	(3.2%)	(4.3%)	(4.0%)
1차 소득	3,124.7	3,112.6	3,257.7	3,572.3	3,559.0	3,620.0	3,698.2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사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과 구분되는 소득항목으로 타가구로부터 들어오는 이전소득을 의미한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타가구 가구원의 인적사항과 조사대상 가구원과의 관계 등 사적 이전 소득 및 지출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측정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타가구 이전소득과 지출에 있어 정의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1차년도의 경우 타가구 이전 소득을 정기적으로 주고받은 금액으로만 정의하여 연간 1회 이상 유입된 경우에만 이전 소득으로 인정하였고, 2차년도 이후 조사의 경우는 연간 1회 유입된 소득이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함께 조사하였다. 덧붙여,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2007~2010년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하고, 2011년부터 타가구 이전 소득 문항 내에서 조사하였다. 따라서 사적 이전소득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2007~2010년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타가구 이전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분석해야 한다.

연도별로 사적 이전 소득의 총액을 살펴보면 2007년 82.6만원, 2008년 107.5만원, 2009년 100.9만원, 2010년 112.5만원, 2011년 93.6만원, 2012년 104.1만원, 2013년 118.7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차 조사 시점인 2007년보다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는 약 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사적이전소득 총액을 보였다.

&lt;표 VII-4&gt; 연도별 사적 이전소득 연간 총액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총액	82.6	107.5	100.9	112.5	93.6	104.1	118.7
(중앙값)	(0)	(0)	(0)	(0)	(0)	(0)	(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사적 이전 소득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조사 가구 중 평균 24.6%(2007년 16.2%, 2008년 29.8%, 2009년 25.9%, 2010년 25.3%, 2011년 25.1%, 2012년 24.8%, 2013년 25.1%)가 타가구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학비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이전 소득을 산출한 결과 2007년 504.6만원, 2008년 358.8만원, 2009년 389.0만원, 2010년 445.4만원, 2011년 377.5만원, 2012년 420.5만원, 2013년 474.4만원(중앙값: 2007년 300만원 2008년 140만원, 2009년 200만원, 2010년 200만원, 2011년 200만원, 2012년 250만원, 2013년 25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5> 연도별 사적 이전소득 유무 및 해당 가구 소득 총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 유무	16.2	29.8	25.9	25.3	25.1	24.8	25.1
연간 총액 (중앙값)	504.6 (300.0)	358.8 (140.0)	389.0 (200.0)	445.4 (200.0)	377.5 (200.0)	420.5 (250.0)	474.4 (25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타가구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가구 내 소득을 받는 가구원과 타가구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초기에는 패널들의 거부감을 우려하여 지원해주는 타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3차년도 조사부터는 성별 및 학력, 소득 유무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6차년도 이후부터는 연간 소득 금액(구간)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가구 외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은 대부분 가구원의 '자녀' 인 경우가 많았으며, 2007년 75.3%, 2008년 62.7%, 2009년 66.5%, 2010년 68.0%, 2011년 73.0%, 2012년 79.6%, 2013년 80.4%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가 이전소득을 주고 있는 경우는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7년 15.8%, 2008년 20.3%, 2009년 11.3%, 2010년 12.3%, 2011년 8.7%, 2012년 4.5%, 2013년 5.2%였다. '기타 친인척'이 이전소득을 주고 있는 경우는 2007년 7.1%, 2008년 10.6%, 2009년 16.8%, 2010년 12.0%, 2011년 12.4%, 2012년 8.9% 였다가 2013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1.2%로 낮아졌다. 다만 타가구원과 가구내에서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매년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타가구 이전소득을 주고 있는 사람은 남성(2009년 65.8%, 2010년 66.6%, 2011년 67.1%, 2012년 69.7%, 2013년 70.9%)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과반이 대학 재학 이상(2009년 52.3%, 2010년 53.4%, 2011년 54.0%, 2012년 59.6%, 2013년 56.6%)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전소득을 주고 있는 타가구원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09년 85.9%, 2010년 85.2%, 2011년 88.3%, 2012년 88.9%, 2013년 90.5%로 대다수였으며, 연간 소득 금액은 2013년을 기준으로 2,000~4,000만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4,000~6,000만원 미만 36.7%, 2,000만원 미만 15.4% 순 이었다.

&lt;표 VII-6&gt; 연도별 사적 이전소득(타가구 이전 소득) 주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급자 관계	조부모	-	6.1	3.8	4.7	3.3	2.0	0.7
	배우자 조부모	0.1	-	0.6	0.7	0.1	0.6	0.4
	부모	15.8	20.3	11.3	12.3	8.7	4.5	5.2
	배우자의 부모	-	-	5.8	6.4	4.0	3.0	3.1
	자녀	75.3	62.7	66.5	68.0	73.0	79.6	80.4
	손자녀	-	0.7	0.9	0.5	0.8	0.8	0.7
	배우자	2.8	1.4	1.1	1.9	1.0	2.2	2.6
	기타 친인척	7.1	10.6	16.8	12.0	12.4	8.9	1.2
	비혈연	2.1	2.3	3.0	1.8	0.7	0.7	0.0
	이혼한 전배우자	-	-	-	.	0.9	0.5	0.9
	형제자매	-	-	-	-	-	-	3.0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0.2
	부모의 형제자매	-	-	-	-	-	-	3.4
성별	남성	-	-	65.8	66.6	67.1	69.7	70.9
	여성	-	-	58.2	62.3	59.5	54.5	53.2
학력	중졸이하	-	-	20.9	23.8	18.0	13.8	15.0
	고재/고졸	-	-	42.6	40.3	43.5	41.4	44.7
	대재이상	-	-	52.3	53.4	54.0	59.6	56.6
소득	있음	-	-	85.9	85.2	88.3	89.0	90.5
	없음	-	-	26.1	27.3	22.8	23.6	18.7
소득 금액	2,000만원 미만	-	-	-	-	-	18.8	15.4
	2,000~4,000만원 미만	-	-	-	-	-	48.9	47.5
	4,000~6,000만원 미만	-	-	-	-	-	33.8	36.7
	6,000~8,000만원 미만	-	-	-	-	-	10.2	9.9
	8,000~1억 미만	-	-	-	-	-	2.3	2.4
	1억 이상	-	-	-	-	-	2.1	2.8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반면, 타가구 이전 소득을 받는 가구원은 여성인 경우가 2007년 57.1% 2008년 64.9%, 2009년 63.0%, 2010년 65.7%, 2011년 66.6%, 2012년 65.5%, 2013년 66.2%로 남성(2007년 46.6% 2008년 45.6%, 2009년 47.1%, 2010년 43.4%, 2011년 39.3%, 2012년 38.7%, 2013년 39.3%)보다 평균 약 21%p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 가구원인 경우가 2007년 65.8% 2008년 52.3%, 2009년 58.5%, 2010년 58.7%, 2011년 64.6%, 2012년 73.2%, 2013년 74.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007년 13.7% 2008년 13.9%, 2009년 13.9%, 2010년 14.4%, 2011년 12.7%, 2012년 10.7%, 2013년 9.6%)와 20대 이하(2007년 11.2% 2008년

21.0%, 2009년 13.7%, 2010년 14.5%, 2011년 9.6%, 2012년 8.0%, 2013년 6.0%)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약 71%(2007년 83.8% 2008년 61.6%, 2009년 71.0%, 2010년 67.0%, 2011년 69.6%, 2012년 68.8%, 2013년 74.1%) 가구에서 가구주가 소득을 받는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가구주의 배우자(2007년 11.6% 2008년 21.8%, 2009년 20.0%, 2010년 22.5%, 2011년 21.6%, 2012년 20.8%, 2013년 19.7%)순 이었다.

<표 VII-7> 연도별 사적 이전소득(타가구 이전 소득) 받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성별	남성	46.6	45.6	47.1	43.4	39.3	38.7	39.3
	여성	57.1	64.9	63.0	65.7	66.6	65.5	66.2
연령	20대 이하	11.2	21.0	13.7	14.5	9.6	8.0	6.0
	30대	5.4	8.6	9.3	7.5	7.3	3.1	3.4
	40대	5.3	6.4	8.1	7.4	7.3	5.6	7.9
	50대	13.7	13.9	13.9	14.4	12.7	10.7	9.6
	60대 이상	65.8	52.3	58.5	58.7	64.6	73.2	74.5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83.8	61.6	71.0	67.0	69.6	68.8	74.1
	가구주배우자	11.6	21.8	20.0	22.5	21.6	20.8	19.7
	가구주 자녀·자녀배우자	2.1	14.8	10.0	12.3	8.9	7.3	5.0
	부모	4.9	6.2	6.4	5.3	4.6	5.9	5.8
	기타	1.7	2.1	1.3	1.0	0.4	0.4	-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공적 이전 소득

재정패널조사에서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타 정부지원현금 소득, 노인장기요양특별급여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정부지원 현금의 경우 지원하는 단위가 가구와 개인으로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 설계시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정부지원 현금은 가구 조사에서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부지원 현금은 가구원의 설문지에서 가구원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단, 1~3차년도 조사의 경우 가구 설문지에서 모든 정부지원현금 내역을 조사).

조사 대상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 연간 총액의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32.4만원, 2008년 50.9만원, 2009년 63.5만원, 2010년 79.4만원, 2011년 87.9만원, 2012년 100.6만원, 2013년 110.9만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포함될 수 있겠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패널 종단조사의 특성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 수급시기에 도래한 가구원들이 증가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lt;표 VII-8&gt; 연도별 공적 이전소득 연간 총액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총액 (중앙값)	32.4 (0)	50.9 (0)	63.5 (0)	79.4 (0)	87.9 (0)	100.6 (0)	110.9 (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공적 이전 소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약 4%(2007년 4.4% 2008년 4.1%, 2009년 4.4%, 2010년 4.4%, 2011년 4.3%, 2012년 4.5%, 2013년 4.2%)가 수급 대상 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평균 수급 금액을 조사한 결과 2007년 388.2만원, 2008년 406.9만원, 2009년 396.8만원, 2010년 401.8만원, 2011년 414.5만원, 2012년 409.0만원, 2013년 452.3만원(중앙값: 2007년 368만원 2008년 360만원, 2009년 360만원, 2010년 360만원, 2011년 384만원, 2012년 384만원, 2013년 420만원)을 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9&gt; 연도별 공적 이전소득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급 유무	4.4	4.1	4.4	4.4	4.3	4.5	4.2
연간 총액 (중앙값)	388.2 (368.0)	406.9 (360.0)	396.8 (360.0)	401.8 (360.0)	414.5 (384.0)	409.0 (384.0)	452.3 (42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농어업 정부보조금 및 장애수당, 보훈수당, 자녀양육 지원금, 노인 장기특별급여를 포함한 정부지원 현금 소득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2007년 19.9%, 2008년 23.5%, 2009년 25.1%, 2010년 28.5%, 2011년 32.1%, 2012년 35.2%, 2013년 36.2%가 수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 연간 수급 총액의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75.8만원, 2008년 145.1만원, 2009년 183.2만원, 2010년 216.5만원, 2011년 218.7만원, 2012년 233.6만원, 2013년 254.2만원(중앙값: 2007년 24만원 2008년 100만원, 2009년 105.6만원, 2010년 118만원, 2011년 113만원, 2012년 140만원, 2013년 176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lt;표 VII-10&gt; 연도별 공적 이전소득 현황 - 정부지원 현금소득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급 유무	19.9	23.5	25.1	28.5	32.1	35.2	36.2
연간 총액 (중앙값)	75.8 (24.0)	145.1 (100.0)	183.2 (105.6)	216.5 (118.0)	218.7 (113.0)	233.6 (140.0)	254.2 (176.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가구 특성별 경상 소득 현황

가구 특성별 연간 경상소득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각 특성에 따른 연간 경상소득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평균 연간 경상소득은 4,652.6만원이며, 여성의 경우 2,069.2만원으로 남성의 경상소득 평균금액이 여성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특성별로 요약하여 보면, 연령은 50대(5,018.3만원)인 경우, 종사상의 지위는 고용원을 둔 사업자(6,474.5만원)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가구(5,995.2만원), 전세 거주 가구(4,367.4만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상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2,060.3만원)인 경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일용근로자(2,197.9만원)인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상 소득 규모가 낮았고, 모든 가구 특성 중 1인 가구(1,451.4만원)의 경상소득 규모가 가장 낮았고, 주택 점유형태가 무보증 월세(1,733.2만원)인 경우에도 자가나 전세 가구와 비교하여 경상소득이 낮고, 매년 그 차이는 더욱 극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상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경상소득과 비교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가구는 가구원수 4명이상인 가구와 50대 가구주 가구였으며, 50대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을 단편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2007년에 비해 2013년 1,480.4만원이 증가한 모습이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인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인 가구와 무급가족종사자 가구였는데, 가구원수가 1명인 가구는 2007년과 비교하여 2013년 경상소득이 119.7만원 증가한데 그쳤고, 일용근로자 가구는 187.8만원이 증가하였다. 덧붙여, 2012년과 비교하여 가장 경상소득이 크게 감소한 가구는 고용원을 둔 사업자 가구였는데, 1,455.8만원의 소득이 감소하였고, 연별로 하락과 증가의 폭이 가장 불규칙적인 가구집단이기도 하였다.

<표 VII-11> 가구 특성별 경상소득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3,651.0 (3,000)	3,710.3 (3,000)	3,867.1 (3,300)	4,247.4 (3,600)	4,304.5 (3,673)	4,509.7 (3,710)	4,652.6 (3,943)
	여성	1,796.8 (1,200)	1,735.7 (1,200)	1,873.7 (1,361.6)	2,080.8 (1,440)	2,202.8 (1,560)	2,002.0 (1,560)	2,069.2 (1,509)
가구주 연령	20대	2,388.1 (2,052)	2,396.9 (2,100)	2,568.2 (2,292)	2,966.0 (2,400)	2,291.1 (2,100)	2,520.5 (2,200)	2,575.4 (2,160)
	30대	3,826.2 (3,250)	3,756.7 (3,300)	3,869.2 (3,500)	4,219.2 (3,635)	4,307.6 (4,000)	4,429.9 (4,028)	4,676.4 (4,200)
	40대	4,183.9 (3,500)	4,140.5 (3,589)	4,292.8 (3,600)	4,645.0 (3,920)	4,482.1 (3,740)	4,779.1 (3,909)	4,938.2 (4,440)
	50대	3,537.9 (2,808)	3,726.1 (3,000)	3,967.4 (3,105)	4,457.1 (3,600)	4,668.0 (3,750)	4,984.5 (3,889)	5,018.3 (4,000)
	60대 이상	1,539.1 (914.4)	1,600.2 (920)	1,697.7 (1,100)	1,872.6 (1,194)	1,813.7 (1,200)	2,008.2 (1,230)	2,060.3 (1,296)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141.5 (3,600)	4,288.8 (3,628)	4,391.3 (3,740)	4,717.1 (4,097)	4,811.1 (4,144)	5,080.1 (4,490)	5,274.8 (4,670)
	일용근로자	2,010.2 (1,800)	1,785.6 (1,500)	1,983.7 (1,675)	2,160.8 (1,800)	2,036.8 (1,800)	2,284.6 (1,900)	2,197.9 (1,891)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2,984.7 (2,400)	2,737.1 (2,300)	2,885.1 (2,345.6)	3,252.5 (2,632)	3,326.7 (2,712)	3,101.4 (2,424)	3,273.5 (2,690)
	고용원 둔 사업자	6,083.7 (4,840)	5,879.1 (4,213)	6,039.1 (4,800)	6,701.2 (4,427)	6,423.5 (5,618)	7,930.3 (6,000)	6,474.5 (4,900.4)
	무급가족 종사자	2,974.6 (3,000)	2,795.0 (2,004)	3,043.7 (1,850)	3,247.6 (1,974)	2,806.7 (1,800)	4,077.5 (1,654)	3,246.5 (2,850)
	기타	1,341.4 (864)	1,394.9 (840)	1,478.2 (948)	1,678.9 (1,008)	1,575.8 (1,022)	1,747.0 (1,020)	1,690.7 (1,000)
	가구원수	1명	1,331.7 (1,000)	1,344.8 (960)	1,396.2 (1,000)	1,556.8 (1,200)	1,634.6 (1,248)	1,480.5 (1,050)
2명	2,525.3 (1,849)	2,364.8 (1,814)	2,464.1 (1,870)	2,645.7 (1,942)	2,717.5 (2,109)	2,674.8 (2,013)	2,862.4 (2,187.4)	
3명	3,435.6 (2,880)	3,514.8 (2,941)	3,765.3 (3,166)	4,222.1 (3,600)	4,455.4 (3,852)	4,721.9 (4,013)	4,864.3 (4,379.1)	
4명 이상	4,473.8 (3,943)	4,592.2 (3,978)	4,704.3 (4,026)	5,187.1 (4,440)	5,355.9 (4,704)	5,742.8 (5,100)	5,995.2 (5,378.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503.3 (2,873)	3,579.1 (2,880)	3,713.0 (3,105)	4,106.1 (3,500)	4,123.6 (3,572)	4,171.7 (3,384)	4,285.6 (3,600)
	전세	3,482.7 (3,000)	3,501.3 (3,000)	3,743.8 (3,068)	4,198.2 (3,480)	4,123.1 (3,528)	4,223.6 (3,240)	4,367.4 (3,500)
	보증부 월세	2,194.7 (1,800)	2,156.3 (1,800)	2,256.1 (1,900.8)	2,356.4 (1,948)	2,550.8 (2,140)	2,693.5 (2,139)	2,813.9 (2,177)
	무보증 월세	1,497.4 (1,099)	1,808.1 (1,250)	1,496.6 (1,020)	1,685.5 (1,130)	1,479.0 (1,068)	1,616.6 (1,140)	1,733.2 (1,200)
	무상거주	- -	- -	- -	- -	- -	2,615.6* (1,805)	2,637.3* (1,620)
	기타	2,432.3 (2,000)	2,203.6 (1,641)	2,598.1 (1,996)	2,545.1 (1,920)	2,610.0 (1,743)	1,201.5 (1,144)	316.0 (31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 은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으로 이용 시 주의할 것

#### 다. 가구 소득분위별 경상 소득 현황

가구 소득분위별 연간 경상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2007년 581.4만원, 2008년 571.9만원, 2009년 618.2만원, 2010년 726.9만원, 2011년 716.8만원, 2012년 705.2만원, 2013년 680.0만원(중양값: 2007년 588만원, 2008년 566만원, 2009년 600만원, 2010년 718만원, 2011년 708만원, 2012년 708만원, 2013년 664만원), 2분위 가구 2007년 1,609.5만원, 2008년 1,555.3만원, 2009년 1,666.3만원, 2010년 1,865.2만원, 2011년 1,856.8만원, 2012년 1,744.0만원, 2013년 1,745.8만원(중양값: 2007년 1,600만원, 2008년 1,533만원, 2009년 1,680만원, 2010년 1,800만원, 2011년 1,816만원, 2012년 1,800만원, 2013년 1,796만원), 3분위 가구 2007년 2,619.5만원, 2008년 2,620.2만원, 2009년 2,806.1만원, 2010년 3,089.7만원, 2011년 3,102.3만원, 2012년 2,950.8만원, 2013년 3,082.2만원(중양값: 2007년 2,556만원, 2008년 2,576만원, 2009년 2,800만

원, 2010년 3,050만원, 2011년 3,083만원, 2012년 2,945만원, 2013년 3,000만원), 4분위 가구 2007년 3,956.9만원, 2008년 4,006.5만원, 2009년 4,169.6만원, 2010년 4,578.9만원, 2011년 4,605.0만원, 2012년 4,712.1만원, 2013년 4,955.9만원(중양값: 2007년 3,981만원, 2008년 3,960만원, 2009년 4,100만원, 2010년 4,505만원, 2011년 4,560만원, 2012년 4,744만원, 2013년 4,920만원), 5분위 가구 2007년 7,443.5만원, 2008년 7,618.1만원, 2009년 7,868.5만원, 2010년 8,635.0만원, 2011년 8,537.8만원, 2012년 9,091.3만원, 2013년 9,186.2만원(중양값: 2007년 6,500만원, 2008년 6,795만원, 2009년 6,800만원, 2010년 7,678만원, 2011년 7,600만원, 2012년 7,839만원, 2013년 8,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살펴 볼 때, 1~3분위의 경우 2008년과 2011년, 2012년에 하락을 보이고 2013년 일부 회복한 모습이라면, 5분위 같이 고소득 가구의 경우 2011년 한차례 소득 하락현상이 보이나 이후에는 소득 감소를 회복하고 상승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 분위별 경상소득 차이를 비교해 보면,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 평균금액의 차이는 2007년 6,862.2만원, 2008년 7,046.2만원, 2009년 7,250.3만원, 2010년 7,908.1만원, 2011년 7,821.1만원, 2012년 8,386.1만원, 2013년 8,506.2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009년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657만원 가량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의 경상소득 차이가 가장 큰 해였다. 또한 2007년과 2013년의 소득분위별 평균 경상소득 규모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1분위의 경우 두기간간 평균 경상소득 차이가 99만원이었으며, 2분위는 136만원, 3분위는 463만원, 4분위는 999만원, 5분위는 1,74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덧붙여, 2012년 경상소득과 2013년 경상소득 규모를 비교하면, 4분위의 소득이 1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하여 24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3분위가 131만원, 5분위가 95만원 증가하였으며, 2분위는 1.8만원, 1분위는 25만원 가량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표 VII-12> 가구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581.4 (588)	571.9 (566)	618.2 (600)	726.9 (718)	716.8 (708)	705.2 (708)	680.0 (664)
2분위	1,609.5 (1,600)	1,555.3 (1,533)	1,666.3 (1,680)	1,865.2 (1,800)	1,856.8 (1,816)	1,744.0 (1,800)	1,745.8 (1,796)
3분위	2,619.5 (2,556)	2,620.2 (2,576)	2,806.1 (2,800)	3,089.7 (3,050)	3,102.3 (3,083)	2,950.8 (2,945)	3,082.2 (3,000)
4분위	3,956.9 (3,981)	4,006.5 (3,960)	4,169.6 (4,100)	4,578.9 (4,505)	4,605.0 (4,560)	4,712.1 (4,744)	4,955.9 (4,920)
5분위	7,443.5 (6,500)	7,618.1 (6,795)	7,868.5 (6,800)	8,635.0 (7,678)	8,537.8 (7,600)	9,091.3 (7,839)	9,186.2 (8,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고 안은 중앙값임

### 3. 가구 비경상 소득 현황

#### 가. 연도별 가구 비경상 소득 현황

재정패널조사의 비경상소득은 가구원의 사회보험 일시금과 가구 내 경조금 소득, 상속, 증여로 정의한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연간 비경상소득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222.3만원, 2008년 217.2만원, 2009년 282.4만원, 2010년 183.9만원, 2011년 212.8만원, 2012년 159.9만원, 2013년 119.0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이었으며, 유입 시기와 금액이 예측되지 않는 비경상소득의 특성상 연도별 규모변화에 일관성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VII-13> 연도별 비경상소득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경상소득 (중앙값)	222.3 (0.0)	217.2 (0.0)	282.4 (0.0)	183.9 (0.0)	212.8 (0.0)	159.9 (0.0)	119.0 (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1) 경조사 소득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 내 연간 경조사 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2007년 7.5%, 2008년 7.8%, 2009년 7.0%, 2010년 5.7%, 2011년 4.8%, 2012년 4.0%, 2013년 3.8%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경조사 소득을 산출한 결과 2007년 703.9만원, 2008년 596.8만원, 2009년 810.8만원, 2010년 989.9만원, 2011년 1,031.5만원, 2012년 1,060.9만원, 2013년 1,186.2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VII-14> 연도별 비경상소득 현황 - 경조사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 유무	7.5	7.8	7.0	5.7	4.8	4.0	3.8
연간 총액 (중앙값)	703.9 (350.0)	596.8 (300.0)	810.8 (500.0)	989.9 (500.0)	1,031.5 (700.0)	1,060.9 (800.0)	1,186.2 (800.0)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상속 및 증여

상속에 대한 조사는 3차년도 조사부터 시작하였으며, 1~2차 조사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사시점 작년 한 해 까지 가구원이 일생동안 상속받은 내용을 모두 조사하였

다. 따라서 2007년, 2008년 상속여부 및 상속 금액의 경우는 3차년도에 회상에 의하여 조사 받은 결과이다. 4차년도 이후부터 상속에 대한 조사는 조사시점 작년 한 해 동안의 상속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5차년도 이후부터는 가구내에서 상속을 한 가구원과 그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였다.

연도별 가구 내 상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2007년 0.4%, 2008년 0.8%, 2009년 1.2%, 2010년 0.9%, 2011년 1.0%, 2012년 0.6%, 2013년 0.3%의 가구에서 현금이나 현물형태의 재산을 상속 받은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상속 받은 금액을 산출한 결과 평균 2007년 26,590.6만원, 2008년 9,756.4만원, 2009년 11,865.1만원, 2010년 8,039.2만원, 2011년 13,763.5만원, 2012년 14,759.3만원, 2013년 11,099.2만원(중앙값: 2007년 10,000만원 2008년 4,500만원, 2009년 5,000만원, 2010년 3,000만원, 2011년 8,000만원, 2012년 10,000만원, 2013년 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에 대한 조사는 4차년도 조사부터 시작하였으며,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에 대한 조사 첫해에는 그 전 누락분을 조사하기 위해 일생동안의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구내에서 증여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4차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상속 조사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5차년도 조사부터는 조사시점 작년 한 해 동안의 증여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도별 가구 내 증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2007년 0.3%, 2008년 0.5%, 2009년 0.6%, 2010년 0.6%, 2011년 0.5%, 2012년 0.3%, 2013년 0.4%의 가구에서 재산을 증여 받은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산출한 결과, 2007년 11,003.3만원, 2008년 15,282.2만원, 2009년 13,045.9만원, 2010년 8,643.7만원, 2011년 5,170.6만원, 2012년 7,516.8만원, 2013년 8,156.7년(중앙값: 2007년 3,000만원, 2008년 6,000만원, 2009년 4,000만원, 2010년 6,700만원, 2011년 2,500만원, 2012년 8,000만원, 2013년 8,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 해당 사례수는 작지만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표 VII-15> 연도별 비경상소득 현황 - 상속 및 증여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속 여부	0.4	0.8	1.2	0.9	1.0	0.6	0.3
연간 총액 (중앙값)	26,590.6 (10,000.0)	9,756.4 (4,500.0)	11,865.1 (5,000.0)	8,039.2 (3,000.0)	13,763.5 (8,000.0)	14,759.3 (10,000.0)	11,099.2 (7,000.0)
증여 여부	0.3	0.5	0.6	0.6	0.5	0.3	0.4
연간 총액 (중앙값)	11,003.3 (3,000.0)	15,282.2 (6,000.0)	13,045.9 (4,000.0)	8,643.7 (6,700.0)	5,170.6 (2,500.0)	7,516.8 (8,000.0)	8,156.7 (8,000.0)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사회보험 급여 일시금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금을 수급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미만(2007년 0.17% 2008년 0.10%, 2009년 0.03%, 2010년 0.08 2011년 0.06%, 2012년 0.09%, 2013년 0.14%)으로 금액은 비교적 크지만, 그 사례는 매우 적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007년 878.3만원, 2008년 2,667.6만원, 2009년 1,944.2만원, 2010년 536.3만원, 2011년 1,720.0만원, 2012년 2,172.1만원, 2013년 490.7만원(중앙값: 2007년 900만원 2008년 960만원, 2009년 2,600만원, 2010년 330만원, 2011년 2,100만원, 2012년 270만원, 2013년 348만원)으로 나타났다.

&lt;표 VII-16&gt; 연도별 비경상소득 현황 - 사회보험 일시금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 여부	0.17	0.10	0.03	0.08	0.06	0.09	0.14
연간 총액 (중앙값)	878.3 (900.0)	2,667.6 (960.0)	1,944.2 (2,600.0)	536.3 (330.0)	1,720.0 (2,100.0)	2,172.1 (270.0)	490.7 (348.0)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가구 특성별 비경상 소득 현황

가구 특성별 비경상 소득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은 각 특성에 따라 비경상 소득의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경상소득과 비교하여 가구 특성별로 특징적인 점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상 소득과 달리 비경상 소득의 경우 한 해 동안 소득유무와 금액이 예상할 수 없어 가구 특성별로 분포가 고르지 않고 특정 가구로 몰려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3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구주가 남성(102.2만원), 40대 가구주 가구(195.7만원), 고용원을 둔 사업자(471.8만원) 가구, 가구원수가 1명(133.9만원)이거나 4명이상(123.7만원)인 가구, 자가 거주 가구(177.2만원)인 가구에서 비경상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lt;표 VII-17&gt; 가구 특성별 비경상소득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271.2 (0)	248.5 (0)	332.3 (0)	198.4 (0)	243.4 (0)	168.7 (0)	102.2 (0)
	여성	48.7 (0)	106.7 (0)	107.2 (0)	133.5 (0)	129.2 (0)	136.4 (0)	161.9 (0)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연령	20대	193.1 (0)	220.7 (0)	418.8 (0)	104.4 (0)	138.5 (0)	13.4 (0)	128.6 (0)
	30대	218.2 (0)	300.6 (0)	396.5 (0)	244.6 (0)	348.1 (0)	197.3 (0)	51.9 (0)
	40대	400.9 (0)	269.9 (0)	254.8 (0)	94.0 (0)	188.0 (0)	139.6 (0)	195.7 (0)
	50대	184.0 (0)	182.5 (0)	349.6 (0)	301.7 (0)	223.4 (0)	259.2 (0)	138.0 (0)
	60대 이상	69.0 (0)	103.0 (0)	108.4 (0)	124.3 (0)	106.9 (0)	110.9 (0)	70.7 (0)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98.6 (0)	330.0 (0)	397.5 (0)	245.9 (0)	187.1 (0)	144.7 (0)	135.5 (0)
	일용근로자	43.3 (0)	28.9 (0)	46.9 (0)	87.5 (0)	225.0 (0)	76.2 (0)	22.8 (0)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42.7 (0)	120.2 (0)	243.9 (0)	163.9 (0)	356.2 (0)	256.5 (0)	108.4 (0)
	고용원을 둔 사업자	961.9 (0)	209.0 (0)	251.3 (0)	17.7 (0)	210.2 (0)	129.0 (0)	471.8 (0)
	무급가족종사자	- -	108.8 (0)	110.7 (0)	- -	536.3 (0)	1,321.4 (0)	1.8 (0)
	기타	60.4 (0)	150.1 (0)	140.4 (0)	134.2 (0)	99.0 (0)	85.0 (0)	54.6 (0)
가구원수	1명	37.4 (0)	209.1 (0)	26.7 (0)	75.7 (0)	378.9 (0)	139.6 (0)	133.9 (0)
	2명	171.3 (0)	103.9 (0)	233.0 (0)	176.3 (0)	125.1 (0)	204.9 (0)	99.0 (0)
	3명	103.2 (0)	110.3 (0)	248.4 (0)	209.2 (0)	197.1 (0)	181.9 (0)	122.7 (0)
	4명 이상	413.9 (0)	367.2 (0)	456.4 (0)	222.2 (0)	193.1 (0)	108.6 (0)	123.7 (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43.5 (0)	167.7 (0)	239.9 (0)	225.9 (0)	220.8 (0)	226.5 (0)	177.2 (0)
	전세	401.3 (0)	455.4 (0)	324.8 (0)	180.1 (0)	299.9 (0)	37.4 (0)	76.2 (0)
	보증부 월세	76.2 (0)	91.2 (0)	36.4 (0)	18.0 (0)	63.5 (0)	79.2 (0)	7.4 (0)
	무보증 월세	16.9 (0)	24.9 (0)	80.5 (0)	226.8 (0)	0.4 (0)	33.0 (0)	14.5 (0)
	무상거주	- -	- -	- -	- -	- -	180.9 (0)	15.6 (0)
	기타	1,627.1* (0)	123.6* (0)	1,235.6* (0)	159.5* (0)	259.7* (0)	- -	-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 은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으로 이용 시 주의할 것

3: 2009년 주택 보유 형태 중 '기타' 거주 가구의 경우 사례수가 워낙 적어 평균값이 다른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4: 괄호 안은 중앙값임

#### 다. 가구 소득분위별 비경상 소득 현황

가구 소득분위별 연간 비경상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2007년 51.9만원, 2008년 91.6만원, 2009년 58.7만원, 2010년 49.2만원, 2011년 180.3만원, 2012년 81.1만원, 2013년 48.1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 2분위 가구 2007년 57.6만원, 2008년 135.6만원, 2009년 132.4만원, 2010년 73.4만원, 2011년 73.2만원, 2012년 72.7만원, 2013년 88.2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 3분위 가구 2007년 365.1만원, 2008년 149.7만원, 2009년 163.3만원, 2010년 174.4만원, 2011년 346.8만원, 2012년 211.9만원, 2013년 75.6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 4분위 가구 2007년 78.4만원, 2008년 258.4만원, 2009년 697.4만원, 2010년 359.4만원, 2011년 227.7만원, 2012년 237.6만원, 2013년 200.5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 5분위 가구 2007년 596.0만원, 2008년 473.4만원, 2009년 366.0만원, 2010년 271.3만원, 2011년 272.9만원, 2012년 197.1만원, 2013년 184.2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분위에 따른 비경상 소득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VII-18> 가구 소득분위별 비경상소득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51.9 (0)	91.6 (0)	58.7 (0)	49.2 (0)	180.3 (0)	81.1 (0)	48.1 (0)
2분위	57.6 (0)	135.6 (0)	132.4 (0)	73.4 (0)	73.2 (0)	72.7 (0)	88.2 (0)
3분위	365.1 (0)	149.7 (0)	163.3 (0)	174.4 (0)	346.8 (0)	211.9 (0)	75.6 (0)
4분위	78.4 (0)	258.4 (0)	697.4 (0)	359.4 (0)	227.7 (0)	237.6 (0)	200.5 (0)
5분위	596.0 (0)	473.4 (0)	366.0 (0)	271.3 (0)	272.9 (0)	197.1 (0)	184.2 (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 안은 중앙값임

## VIII. 가구 지출

재정패널 조사의 가계 지출 항목은 통계청 분류 기준인 COICOP<sup>1)</sup>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단, 가계부 기장 방식이 아닌 회상 방식의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요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 금액을 가급적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구 지출을 항목별 지출액의 총합으로 정의하며, 소비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결과표는 전체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 항목별 지출의 비율을 살펴본 현황 표와 가구 특성과 소득분위로 세분화하여 각 특성과 소득분위 내에서의 가계 지출금액 등을 살펴본 표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모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는 패널가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세부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지출 비용은 연간(단위: 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평균값은 항목에 지출이 없는 경우 0원 처리하고, 모름·무응답 한 경우 결측 처리하여 산출하였다.

### 1. 가구 지출 구성

가구의 지출은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구분된다. 소비지출은 소비재의 구입을 위한 지출로, 가구 내 주택 관리비 및 수리비를 포함한 주거비, 식료품 구입비 및 외식비, 주류 및 담배 지출, 대중교통 및 유류비 지출, 통신 관련 지출, 문화·체육 및 여행 관련 지출, 각종 내구재 구입과 관련 된 가정 및 생활용품 구입, 보육 및 교육비 지출, 의료·서비스·기타 지출 항목이 포함된다. 이때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하였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출하여 월평균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소비지출 항목은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지출 총액으로 조사하였다. 단 본 절에서는 항목간 지출 규모의 비교를 위하여 월간 단위의 지출 항목의 경우 연간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 및 기술하였다. 비소비 지출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비용, 이자비용 등의 경직성 비용을 의미하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를 포함하는 경상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 타가구원 지원을 위한 이전 지출 및 혼인·장례·이사비 지출, 기부금 지출이 포함된다. 가구 지출 구성의 상세내용은 다음 <표 VII-1>과 같다.

1) 목적별 개인소비 분류 (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lt;표 VIII-1&gt; 가구 지출 구성

구분		세부내용
소비지출	주거	주거비 주택 수리비
	식료품	식료품비 외식비
소비지출	주류 및 담배	주류비 담배구입비
	교통	공공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	통신비
	문화, 체육	문화·체육비 여행 관련 지출비
	가정 및 생활용품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악기·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비 의류·잡화 및 장신구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보육·교육	보육·교육비
	의료·서비스·기타	보건 의료비 혼인·장례·이사비 가사 도우미 서비스
	경상세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득세(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자동차세 기타
비소비지출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공적연금(국민연금 또는 특수직 연금) 지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민간보험료
	이전지출	이전 지출(타가구원 지원)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2.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가.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가구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나 식료품·외식, 주류비 지출, 담배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의 경우 일상적인 지출로 보고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하였으며 그 외 주택 수리비,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악기·스포츠레저용품 구입비, 의류 및 잡화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 가사도우미 서비스비, 민간·건강보험료와 같이 간헐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지출 금액을 조사하였다. 다만 분석에서는 모든 지출금액을 연간단위로 환산하여 소비지출의 연간 평균 금액 및 중앙값을 살펴보았다.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평균 금액은 2007년도 1,861.6만원, 2008년도 2,284.6만원, 2009년도 2,420.7만원, 2010년도 2,549.0만원, 2011년도 2,444.9만원, 2012년도 2,514.5만원, 2013년도 2,556.0만원으로 1차년도에 조사된 2007년 소비지출 총액을 제외하면, 평균 약 2천만원 중반 수준의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 지출로, 2013년 기준 전체 소비 지출의 약 30%를 차지하며, 지출 금액은 평균 750.1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교통비(370.4만원), 보육 및 교육비(317.9만원), 가정 및 생활용품 구입비(296.7만원), 의료·서비스·기타(252.6만원), 주거비(220.8만원), 통신비(173.1만원), 오락 및 문화생활비(126.8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류 및 담배 지출이었는데, 2007년 64.2만원이었던 지출금액이 2013년에는 45.6만원으로 약 19만원 감소하였고, 총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2.5%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 지출 중 일부 항목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먼저, 교통비 지출의 경우 1차년도는 자가 차량만 포함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 이후부터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출 비용도 함께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거비의 경우는 6차년도 지출비용부터 주택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차수에 비해서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용품 및 생활용품 지출의 경우 1차년도에는 가전제품 구입비와 의류, 잡화 및 장신구 구입비 지출 현황을 조사하지 않아 연간 지출 금액 산출시 두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표 VIII-2>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거	161.7 (150)	162.4 (150)	179.4 (168)	196.0 (180)	193.9 (178.8)	225.8 (180)	220.8 (182.4)
식료품	617.8 (540)	608.3 (540)	652.2 (600)	687.8 (600)	681.0 (600)	756.6 (660)	750.1 (660)
주류 및 담배	64.2 (36)	56.4 (24)	54.3 (24)	50.2 (24)	50.3 (13.2)	43.8 (12)	45.6 (6)
교통	187.6 (120)	355.4 (276)	361.3 (288)	387.5 (300)	381.8 (300)	364.9 (288)	370.4 (288)
통신	168.9 (154.8)	161.5 (151.2)	164.9 (156)	169.8 (162)	175.2 (165.6)	175.5 (165.6)	173.1 (162)
오락 및 문화	115.8 (60)	101.3 (50)	101.9 (48)	110.1 (48)	113.8 (48)	120.9 (32)	126.8 (32)
가정 및 생활용품	30.0 (0)	228.1 (153)	250.3 (175)	265.0 (186)	267.6 (190)	270.5 (190)	296.7 (200)
보육·교육	357.8 (0)	385.8 (0)	381.8 (0)	385.4 (0)	336.0 (0)	311.1 (0)	317.9 (0)
의료·서비스·기타	157.8 (0)	225.4 (50)	274.6 (63)	297.2 (68)	245.3 (60)	238.8 (60)	252.6 (61)
총 소비 지출 평균	1,861.6 (1,517.4)	2,284.6 (1,907.4)	2,420.7 (2,045.4)	2,549.0 (2,172.6)	2,444.9 (2,085.8)	2,514.5 (2,132)	2,556.0 (2,153)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1) 주거비 지출

가구의 주거비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기 및 수도, 도시가스, 난방 및 유류비, 연탄, LPG, 그 외 주거 관련 기타 지출 금액을 포함하는 주택관리비를 조사하였다. 분석은 해당 항목에 지출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연간 지출금액을 파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2007년과 비교하여 2013년의 지출 금액 증가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도시가스 지출 비용이었고(기타 제외), 변화가 가장 적은 항목은 수도요금이었다. 도시가스 지출은 5년 사이 22.0만원이 증가한 81.5만원의 지출규모를 보였다. 일상적 주거비 항목 중 가장 큰 지출규모를 갖는 난방유류비는 5년 동안 3.2만원이 증가한 96.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6차년도에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주택 수리비 지출의 경우 2013년 기준 약 6.2%가구가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지출 금액은 연간 474.2만원(중앙값 2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단, 주택 수리비의 경우 이사나 가구구입에 수반되는 주택수리(예. 북박이장 시공 등)는 다른 문항에서 조사하고 주택 수리 목적에 의한 지출 비용만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한다.

&lt;표 VIII-3&gt;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연간) - 주거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택 관리비	전기	지출유무	99.4	99.1	99.5	99.6	99.4	99.3	99.3
		평균 지출 (중앙값)	50.6 (42)	49.8 (42)	52.4 (42)	53.7 (48)	54.2 (48)	55.3 (48)	55.0 (48)
	수도	지출유무	94.0	93.4	94.5	94.5	95.3	95.8	96.5
		평균 지출 (중앙값)	21.5 (18)	20.9 (18)	21.7 (18)	21.2 (18)	21.7 (18)	21.5 (18)	22.0 (18)
	도시가스	지출유무	78.7	72.4	74.7	77.0	76.7	76.8	78.7
		평균 지출 (중앙값)	59.4 (60)	68.4 (60)	77.0 (72)	75.6 (72)	76.7 (72)	78.0 (72)	81.5 (72)
	난방유류	지출유무	41.4	32.3	27.3	26.2	24.7	24.6	22.9
		평균 지출 (중앙값)	93.1 (78)	91.8 (84)	92.8 (80.4)	97.8 (84)	99.2 (84)	100.6 (84)	96.0 (81.6)
	연탄	지출유무	1.5	2.2	2.0	1.8	1.7	1.5	1.8
		평균 지출 (중앙값)	55.0 (36)	45.1 (42)	50.7 (39.6)	53.4 (48)	65.1 (63.6)	57.8 (54)	56.2 (48)
	LPG	지출유무	17.1	25.4	22.6	20.3	19.9	19.7	17.8
		평균 지출 (중앙값)	29.7 (18)	25.6 (15.6)	27.6 (18)	27.3 (18)	26.5 (18)	26.7 (18)	23.4 (18)
	기타	지출유무	0.1	10.7	23.9	35.8	33.6	33.9	31.1
		평균 지출 (중앙값)	88.0 (36)	63.0 (60)	69.5 (60)	90.1 (60)	87.3 (60)	76.0 (60)	80.4 (69.6)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택 수리비	지출유무	-	-	-	-	-	6.3	6.2
	평균 지출 (중앙값)	-	-	-	-	-	516.3 (150)	474.2 (2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식료품 및 외식비

식료품 지출은 식료품비 지출과 외식비 지출로 구분하여 지출 규모를 파악하였다. 식료품비 지출에는 외식비와 중복포함하지 않으며, 외식비에는 배달음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식료품 구입비 지출은 전체 약 99.7%의 가구에서 발생하며, 그 지출 규모는 2013년 기준 515.5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약 55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었다. 외식비의 경우 전체의 80% 수준에서 발생하며, 2009년에 전년과 비교하여 지출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출금액은 2013년 기준 290.0만원으로 2007년과 비교하여 83.2만원이 증가한 모습이다. 외식비의 큰 증가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62만원 증가) 매년 5~10만원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여 월등히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진 모습이다.

다음으로 식비 지출 현황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두 항목 모두 2011년의 지출비용이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약 3만원이 감소한 것인데, 월평균으로 보면,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계속 증가하던 지출이 잠시 주춤하던 시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단, 외식비의 경우 타가구원과의 식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초중고 급식비의 경우는 교육비 지출로 구분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본 항목에서 제외된 값을 유의해야 한다.

<표 VIII-4>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식료품 및 외식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식료품 구입비	지출유무	99.7	99.4	99.8	99.5	99.7	99.6	99.8
	평균 지출 (중앙값)	459.8 (360)	447.7 (360)	473.7 (360)	504.2 (480)	501.3 (456)	513.7 (480)	515.5 (480)
외식비	지출유무	77.0	77.2	80.3	80.5	79.4	82.8	82.1
	평균 지출 (중앙값)	206.8 (144)	212.0 (120)	223.2 (180)	231.8 (180)	229.1 (180)	291.2 (240)	290.0 (24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식료품비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영양제 등)의 구입에 따른 지출금액을 포함하며, 외식비는 음식점(회사 식당 포함)에서 직접 소비한 비용 및 배달음식, 카페나 술집에서 소비한 경우 모두를 포함함. 단, 학생의 급식비는 교육비 파트에서 별도로 조사함.

## 3) 주류 및 담배 구입비

주류 소비의 경우 술집에서 소비한 것을 제외한 주류전문점 혹은 마트, 슈퍼 등에서 구입한 것만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술집에서 주류를 소비한 것은 외식비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맥주, 소주, 양주 소비 가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3년에는 2007년에 비해 12.5%p(2007년 48.8%, 2013년 36.3%) 가량 감소한 모습이었다. 해당 주류의 소비가 발생한 가구들은 2013년 기준 연간 49.8만원을 지출하며, 매년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2007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지출금액이 약 7.4만원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 외 막걸리 와인 등 기타 주류의 경우를 지출하는 가구가 10% 초반대여서 소비하는 가구는 많지 않았고, 지출규모는 2013년 기준 35.0만원으로 지출 금액이 맥주, 소주, 양주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단, 6차년도 조사부터 와인과 막걸리는 항목을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나 비교를 위하여 기타 주류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담배를 구입한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주류 소비와 마찬가지로 5년사이 지출 가구가 많이 감소한 모습이었었는데, 2007년 42.7%였던 소비가구가 2013년 28.6%로 14.1%p 감소한 모습이었다. 연간 평균 담배 구입비는 2010년까지는 하락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81~82만원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I-5&gt;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주류 및 담배 구입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맥주, 소주, 양주	지출유무	48.8	45.8	44.2	39.9	39.1	35.0	36.3
	평균 지출 (중앙값)	49.7 (24)	43.7 (24)	41.2 (24)	44.3 (24)	46.9 (24)	42.3 (24)	49.8 (24)
기타 주류	지출유무	13.5	12.8	17.6	15.1	15.5	12.0	11.1
	평균 지출 (중앙값)	28.0 (12)	26.1 (12)	24.8 (12)	25.2 (12)	31.4 (24)	28.8 (18)	35.0 (18)
담배	지출유무	42.7	39.3	38.1	35.4	32.9	30.9	28.6
	평균 지출 (중앙값)	84.7 (90)	84.4 (90)	83.2 (90)	81.6 (90)	82.1 (90)	81.3 (90)	82.7 (9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4) 교통비

가구 내 교통비를 파악하고자 2차 조사부터 버스 및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료 등 공공교통비 지출과 유류비를 제외한 정비 및 수리비, 엔진 오일교환 및 주차, 대리운전료 등을 포함하는 차량유지비, 자동차 유류비의 연간 지출 유무 및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가구 중 약 8~9가구가 공공교통비를 지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구들의 평균 공공교

통비 지출 금액은 85만원~95만원 수준이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하고 있었던 가구들에게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지출 금액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는 10가구 중 6가구가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이 가구들의 평균 차량 유지비는 연평균 95만원 수준이며,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는 평균 38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지출금액의 변화에 있어서 차량유지비의 경우 항목의 지출 특성상 꾸준한 증가나 감소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자동차 유류비 지출의 경우 매년 증가하여 2013년 지출금액은 2007년과 비교해 57만원이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는 1차년도 유류비 지출은 '자가'인 경우에만 조사되었고 이후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조사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I-6>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교통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공교통비	지출유무	-	85.6	89.1	84.3	84.3	84.6	85.3
	평균 지출	-	85.4	87.3	89.0	90.7	89.5	94.8
	(중앙값)	-	(60.0)	(60.0)	(60.0)	(60.0)	(60.0)	(60.0)
차량 유지비	지출유무	-	58.5	60.3	62.5	59.7	58.4	59.0
	평균 지출	-	95.0	84.4	97.2	100.2	91.4	100.6
	(중앙값)	-	(60.0)	(60.0)	(60.0)	(60.0)	(60.0)	(60.0)
자동차 유류비	지출유무	57.3	62.9	64.7	64.8	61.9	59.7	60.2
	평균 지출	327.2	360.0	358.2	389.0	396.1	392.2	384.2
	(중앙값)	(240.0)	(240.0)	(252.0)	(300.0)	(300.0)	(300.0)	(3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5) 통신비

가구 통신비 지출 항목 중 유료방송 시청료는 1차년도 지출항목에서는 문화생활비에 포함되었으나 2차년도 부터는 통신비에 포함하였다. 유료방송 시청료를 포함한 통신비 조사결과 지출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항목은 휴대폰으로 평균 90%가 넘는 가구에서 지출하고 있었고, 유선전화의 지출 비율은 2007년 80.7%에서 2013년 48.6%매년 크게 감소하여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인터넷 가입률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용료 지출 가구는 2011년까지는 70%초반의 수준이었는데, 2012년 이후 60%후반대로 떨어진 후 2013년의 경우 6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비 항목별 지출금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가장 많은 지출금액이 발생한 통신비 항목은 휴대전화였으며, 연간 소비 금액은 평균 147.4만원으로 2007년 123.8만원과 비교하여 약 2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통신비의 경우 휴대폰 할부금이 요금에 포함되어 지출되는 경우 응답자가 정확한 할부금을 모른다면 이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휴대

폰 요금 지출 자체가 높아졌다기 보다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기계 할부금의 가격이 올라 이러한 결과가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07년 35.0만원을 연간 지출하였던 인터넷 사용료는 2013년 들어 43.4만원으로 약 8만원이 증가하였다.

<표 VIII-7>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통신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터넷	지출유무	72.9	73.1	73.9	73.6	71.1	69.2	68.4
	평균 지출 (중앙값)	35.0 (36.0)	34.6 (33.6)	35.0 (33.6)	35.5 (33.6)	36.1 (33.6)	39.2 (33.6)	43.4 (36.0)
유선전화	지출유무	80.7	78.3	73.5	67.7	60.9	54.9	48.6
	평균 지출 (중앙값)	24.2 (20.4)	22.4 (18.0)	19.9 (18.0)	18.8 (14.4)	16.8 (12.0)	15.2 (12.0)	13.7 (12.0)
휴대폰	지출유무	92.3	92.6	93.1	93.4	92.7	92.6	88.6
	평균 지출 (중앙값)	123.8 (108.0)	118.7 (108.0)	123.9 (120.0)	131.2 (120.0)	140.8 (120.0)	142.9 (120.0)	147.4 (120.0)
유료방송	지출유무	78.8	76.1	74.7	68.7	66.5	62.2	52.6
	평균 지출 (중앙값)	12.3 (9.6)	11.5 (9.6)	11.7 (9.6)	12.5 (9.6)	12.9 (10.8)	12.3 (10.8)	12.5 (10.8)
기타	지출유무	0.3	1.1	0.6	0.2	0.5	1.1	0.1
	평균 지출 (중앙값)	65.9* (18.0)	22.9* (3.6)	39.0* (15.6)	26.3* (15.6)	52.3* (48.0)	12.2* (7.2)	268.3* (36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상대표준오차 25%이상이므로 사용 시 유의

## 6) 문화체육비

문화체육비 중 서적 및 음반을 구입하는 가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7년 54.3%에서 2013년 39.5%로 7년 사이 14.9%p가 감소하였다. 영화 및 박물관, 연극 관람을 하는 가구 또한 2007년 50.3%에서 2013년 41.5%로 8.8%p하락하였다. 여행 지출의 경우는 평균 47%가 구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금액은 점점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연간 182.7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하여 2007년(120.8만원)에 비하여 62.0만원 더 높았다. 신문·잡지구독은 2007년 27.0%에서 2012년 10.4%로 지출 가구 비율 하락 폭(16.6%p)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컸으며, 복권 구입 가구 또한 2007년 20.0%에서 2012년 12.8%로 7.2%p하락해 지출 가구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다. 지출 가구가 가장 적은 경마 및 경정비용의 경우 평균 0.2%의 가구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그 지출비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았는데, 연도별 지출금액의 편차도 심해 2012년에는 0.1%의 가구에서 216.9만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에는 0.2%가구에서 단지 64.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해당 항목을 지출하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이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lt;표 VIII-8&gt;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문화체육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적·음반 등	지출유무	54.3	52.8	52.7	47.9	44.5	41.4	39.5
	평균 지출 (중앙값)	53.6 (36.0)	52.0 (36.0)	51.8 (36.0)	56.8 (36.0)	53.6 (36.0)	53.0 (36.0)	51.2 (30.0)
영화 박물관 연극등	지출유무	50.3	47.0	46.3	42.5	42.5	42.8	41.5
	평균 지출 (중앙값)	32.8 (24.0)	32.7 (24.0)	32.8 (24.0)	34.3 (24.0)	33.2 (24.0)	35.4 (24.0)	36.6 (24.0)
경마·경정등	지출유무	0.3	0.1	0.2	0.1	0.1	0.1	0.2
	평균 지출 (중앙값)	110.4* (60.0)	38.9* (24.0)	191.6* (120.0)	69.8* (60.0)	80.1* (120.0)	216.9* (120.0)	64.0* (24.0)
복권	지출유무	20.0	19.0	16.8	14.0	16.3	12.2	12.8
	평균 지출 (중앙값)	24.7 (12.0)	23.2 (18.0)	23.2 (14.4)	23.5 (12.0)	23.5 (12.0)	25.5 (24.0)	25.3 (24.0)
신문, 잡지, 구독	지출유무	27.0	24.0	21.0	19.2	14.0	11.9	10.4
	평균 지출 (중앙값)	18.5 (14.4)	19.4 (18.0)	19.4 (18.0)	19.3 (18.0)	19.4 (18.0)	19.6 (18.0)	18.9 (18.0)
여가활동비	지출유무	-	-	-	-	6.6	11.8	12.8
	평균 지출 (중앙값)	-	-	-	-	103.6 (60.0)	135.3 (72.0)	120.4 (72.0)
여행	지출유무	49.9	46.9	45.9	45.7	46.0	47.0	46.9
	평균 지출 (중앙값)	120.8 (60.0)	105.6 (50.0)	110.5 (50.0)	134.3 (70.0)	135.6 (80.0)	160.2 (100.0)	182.7 (1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상대표준오차 25%이상이므로 사용 시 유의

## 7) 가전 및 생활용품 구입비

2차년도 조사부터 조사된 가전제품 구입의 경우 일상적으로 구입하지 않는 소비항목 특성에 따라 지출비용이 발생하는 가구의 평균 비율은 10%미만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TV의 경우 매년 구입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어 2013년에는 5.7%가구에서 구입하였으며 평균 지출금액은 131.7만원으로 다른 차수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냉장고의 경우 2013년 6.0%가구가 구입하였고, 이 가구들의 평균 지출 금액은 151.1만원으로 2008년(115.0만원)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약 36.1만원 차이가 났다.

기타가전에 포함되는 항목은 조사시기별 상이하지만 대부분 카메라, 오븐, mp3플레이어, 와인셀러 등의 용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6차년도 조사부터 카메라는 항목을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 지출가구는 2012년 1.0%, 2013년 0.8%로 다른 전자제품 구입 가구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출 비용은 2012년 61.4만원, 2013년 67.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7차년도부터 가전제품 렌탈 비용을 조사하는 문항을 신설하였으며 조사결과 약 6.9%가

구에서 렌탈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34.5만원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9>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가전제품 구입비

단위(%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TV	지출유무	8.0	7.7	7.9	7.9	6.4	5.7
	평균 지출 (중앙값)	130.1 (120.0)	132.0 (120.0)	128.4 (120.0)	138.9 (120.0)	115.1 (100.0)	131.7 (120.0)
냉장고	지출유무	8.5	8.9	7.5	6.1	6.0	6.0
	평균 지출 (중앙값)	115.0 (110.0)	115.3 (100.0)	126.3 (110.0)	140.1 (130.0)	138.3 (120.0)	151.1 (150.0)
세탁기	지출유무	3.8	4.1	4.0	3.0	3.2	2.9
	평균 지출 (중앙값)	59.3 (50.0)	57.6 (50.0)	65.5 (60.0)	69.5 (65.0)	74.3 (70.0)	75.4 (70.0)
에어컨	지출유무	3.7	2.2	2.1	2.2	2.1	2.7
	평균 지출 (중앙값)	112.8 (90.0)	112.1 (120.0)	125.9 (120.0)	154.1 (150.0)	145.8 (150.0)	167.5 (150.0)
기타가전	지출유무	12.0	10.3	9.7	6.7	5.7	7.3
	평균 지출 (중앙값)	35.6 (20.0)	37.1 (25.0)	43.4 (30.0)	47.4 (30.0)	34.6 (23.0)	39.7 (30.0)
디지털카메라	지출유무	-	-	-	-	1.0	0.8
	평균 지출 (중앙값)	-	-	-	-	61.4 (45.0)	67.7 (60.0)
가전제품 렌탈	지출유무	-	-	-	-	-	6.9
	평균 지출 (중앙값)	-	-	-	-	-	34.5 (25.0)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통신장비에서는 휴대폰의 구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전체 기간 중 2010년 (13.2%)을 제외하면 17%~25%의 가구에서 지출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것은 2009년까지 이 가구들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30만원이 되지 않는 25~28만 원 선이었으나,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77.6만원까지 지출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휴대폰 지출금액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기기 구매를 위한 금액만 대상이 되며,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높아진 기기 금액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다만,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지출되는 경우는 통신비 지출로 응답하도록 하여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 컴퓨터나 기타 통신 장비를 구입한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컴퓨터 구입 가구의 감소가 더욱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lt;표 VIII-10&gt;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통신장비 구입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휴대폰	지출유무	24.8	20.8	17.8	13.2	17.9	22.8	14.8
	평균 지출 (중앙값)	25.5 (20.0)	27.5 (20.0)	28.6 (20.0)	52.1 (50.0)	63.7 (60.0)	79.8 (70.0)	77.6 (80.0)
컴퓨터	지출유무	9.4	7.0	7.2	5.7	4.5	4.6	4.3
	평균 지출 (중앙값)	93.9 (100.0)	92.9 (97.0)	97.4 (100.0)	95.6 (90.0)	91.1 (90.0)	104.8 (100.0)	94.5 (100.0)
기타 통신	지출유무	3.8	2.8	2.6	2.0	1.8	1.1	0.9
	평균 지출 (중앙값)	19.4 (15.0)	22.5 (15.0)	21.2 (17.0)	27.4 (20.0)	20.3 (17.0)	17.0 (10.0)	34.9 (2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가구 내 가구 소비의 경우 2차년도 조사부터 조사하였다. 지출 가구를 살펴보면 2008년 7.3%에서 2013년 6.2%로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평균 7% 수준으로 소비가 있었고, 평균 지출 금액은 2008년 115.0만원, 2013년 167.8만원으로 약 53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구입비는 혼인 시 지출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인데, 6차년도 조사부터 혼인으로 인한 가구 구입비는 혼인 지출에서 따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6차년도 조사부터 인테리어비용에 포함된 가구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며 2012년 1.4%, 2013년 1.6%가구에서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스포츠 레저 장비를 구입한 비용은 2007년 9.6%에서 2013년 3.6%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출비용도 2007년 146.2만원에서 2013년 98.7만원으로 연도별 차이는 있었으나 감소하고 있었다. 악기 구입은 4차년도부터 조사하였고, 지출 가구는 1.5%수준으로 평균 63만 원 가량 지출하였다.

&lt;표 VIII-11&gt;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가구·악기·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	지출유무	-	7.3	8.7	7.0	6.1	5.8	6.2
	평균 지출 (중앙값)	-	115.0 (50.0)	150.6 (70.0)	183.6 (88.0)	150.9 (100.0)	197.3 (120.0)	167.8 (100.0)
가구및인테리어	지출유무	-	-	-	-	-	1.4	1.6
	평균 지출 (중앙값)	-	-	-	-	-	361.2 (200.0)	760.3 (300.0)
악기	지출유무	-	-	-	1.5	1.6	1.3	1.3
	평균 지출 (중앙값)	-	-	-	41.9 (20.0)	64.9 (40.0)	83.8 (40.0)	62.0 (18.0)
스포츠레저	지출유무	9.6	8.3	7.3	6.3	5.3	2.4	3.6
	평균 지출 (중앙값)	146.2 (60.0)	76.8 (35.0)	81.4 (40.0)	95.5 (45.0)	103.7 (50.0)	95.3 (50.0)	98.7 (5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연간 의류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10가구 중 9가구에서 의류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06만원을 소비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잡화는 약 72%의 가구에서 구입하고 있었고, 평균 지출 금액은 40만원 선이었다. 장신구 구입은 27%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평균 지출 금액은 36만원 수준이었다.

<표 VIII-12>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의류, 잡화 및 장신구

단위(% ,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류	지출유무	95.7	95.7	95.1	94.3	92.8	94.0
	평균 지출 (중앙값)	88.1 (50.0)	98.3 (60.0)	107.0 (80.0)	110.0 (80.0)	111.8 (90.0)	121.8 (100.0)
잡화	지출유무	77.7	80.0	74.2	70.2	64.0	65.4
	평균 지출 (중앙값)	29.9 (20.0)	34.3 (20.0)	40.8 (30.0)	44.0 (30.0)	42.5 (30.0)	48.4 (30.0)
장신구	지출유무	35.0	32.1	24.5	23.4	20.3	23.5
	평균 지출 (중앙값)	21.4 (10.0)	25.2 (10.0)	38.8 (20.0)	38.1 (20.0)	39.6 (20.0)	52.6 (2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한 해 동안 화장품에 비용을 지출하였던 가구는 전체 가구의 89%수준으로, 평균 지출 금액은 37만원 수준이었다. 이·미용비는 97%가 넘는 가구에서 소비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출 금액은 평균 30만원으로 화장품 소비 금액보다는 좀 더 작은 수준이었다.

<표 VIII-13>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화장품 및 이·미용비

단위(% ,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화장품	지출유무	88.4	89.4	89.4	89.3	88.3	89.0
	평균 지출 (중앙값)	33.9 (20.0)	36.3 (30.0)	37.0 (30.0)	38.3 (30.0)	36.3 (30.0)	36.9 (30.0)
이·미용	지출유무	97.3	97.4	97.8	97.1	97.9	97.8
	평균 지출 (중앙값)	25.3 (20.0)	28.0 (20.0)	29.3 (22.0)	30.8 (25.0)	31.6 (25.0)	34.3 (3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8) 보육·교육비

교육비지출의 경우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출된 금액과 타가구원 대상으로 가구내에서 지출한 금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학원생 이상의 자녀가 유학 등의 사유로 타가구원으로 분류되었으나 교육비 지출이 해당 가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인데, 다만, 1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연령 제한 없이 다른 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모두 타가구원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타가구원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있어 2007년 결과와 2008년 이후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교육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 수업료, 급식비, 기타 지출이다. 교육비 조사 항목의 정의는 조사 차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수업료의 경우 1차년도 조사에는 정규수업료만 포함하였고, 2차년도 조사에는 등록금과 정규수업료,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가 포함되었다. 3차년도 조사부터 급식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1차년도 조사에는 기타 항목에 급식비나 교육비, 보충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듯 각 항목별로는 조사차수마다 정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원활한 비교를 위해 각 항목의 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평균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공교육비 지출 대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학령기 연령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평균 47.2%(2007년 47.7%, 2008년 49.7%, 2009년 49.8%, 2010년 49.4%, 2011년 45.2%, 2012년 45.2%, 2013년 43.4%)이었으며, 해당 가구들이 공교육비에 지출하는 금액의 연간 평균 금액은 355.9만원(2007년 347.5만원, 2008년 402.7만원, 2009년 393.4만원, 2010년 390.4만원, 2011년 371.8만원, 2012년 303.0만원, 2013년 282.4만원)이었다.

지출 대상이 된 가구원은 지출 가구 중 90% 이상이 자녀에게 지출(2007년 92.7%, 2008년 92.5%, 2009년 94.7%, 2010년 95.0%, 2011년 96.4%, 2012년 94.5%, 2013년 95.4%)하였다고 응답해 거의 대부분이었다. 또한 지출 대상 가구원의 교육 기관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42.6%, 중학생 24.7%, 고등학생 22.2%, 대학교(4년제 이상) 16.8% 순 이었다. 공사립 구분은 해당 가구원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립인지 사립인지를 구분하는 항목으로 2013년 기준 공립의 비율이 71.9%, 사립의 비율이 43.2%로 나타났다.

<표 VIII-14>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가구원 공교육비(복수응답)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교육	지출유무	47.7	49.7	49.8	49.4	45.2	45.2	43.4	
	평균 지출 (중앙값)	347.5 (190.0)	402.7 (245.0)	393.4 (248.0)	390.4 (230.0)	371.8 (210.0)	303.0 (160.0)	282.4 (110.0)	
지출 대상 가구원	가구주 관계	가구주,배우자	5.9	5.2	3.2	3.1	2.1	3.7	2.4
		자녀, 배우자	92.7	92.5	94.7	95.0	96.4	94.5	95.4
		손자녀	2.9	2.9	3.0	2.8	2.1	3.4	3.3
		부모	0.1	-	-	-	-	0.1	0.1
		기타	1.3	1.3	0.9	0.9	0.5	1.0	0.7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출 대상 가구원	교육기관	보육기관	10.6	12.4	13.9	15.5	16.8	15.6	13.6
		유치원	13.4	11.5	12.2	12.5	14.0	13.3	15.1
		초등학교	37.7	36.4	36.3	37.3	34.0	39.3	42.6
		중학교	21.4	21.1	20.5	21.5	18.9	23.4	24.7
		고등학교	19.2	18.8	18.9	19.3	19.5	21.5	22.2
		대학(4년 미만)	3.8	3.5	3.1	2.7	2.1	3.2	4.3
		대학(4년 이상)	17.7	18.6	19.1	18.4	16.7	17.9	16.8
		대학원	1.7	2.2	1.7	2.1	2.0	1.8	1.3
		기타(공교육)	-	0.7	0.4	0.5	0.3	0.2	0.0
		기타(사교육)	13.3	11.4	10.2	9.0	11.3	5.2	2.3
지출 대상 가구원	공사립	국공립	64.3	62.6	64.5	64.9	61.6	68.7	71.9
		사립	42.3	43.2	42.0	43.9	43.1	42.2	43.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공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32.9%로, 2007년 34.4%에서 2013년 31.0%로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30%초반대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연간 평균 지출금액은 561.8만원이었으며, 조사년도에 따라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변화가 있었다. 다만, 공교육비 지출 금액과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비교해보면 사교육비 연간 지출 금액이 2013년의 경우 354.4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대상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 가구의 대부분이(2013년 기준 98.1%)가 자녀를 대상으로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대상이 된 자녀의 교육기관은 2012년 기준 유치원이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32.8%, 보육기관 33.0%, 중학교 29.9%의 순 이었다. 특이한 것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라도 4년제 미만인 경우와 4년제 이상인 경우에서 사교육비 지출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가구원이 4년제 미만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사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4년제 이상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사교육비 지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III-15>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가구원 사교육비(복수응답)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교육	지출유무	34.4	34.4	34.5	34.6	31.5	30.2	31.0
	평균 지출 (중앙값)	560.3 (400.0)	535.2 (380.0)	539.8 (400.0)	560.0 (400.0)	532.4 (360.0)	568.4 (400.0)	636.9 (480.0)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출 대상 가구원	가구주 관계	가구주,배우자	4.5	3.6	2.6	2.8	2.2	3.6	2.1
		자녀, 배우자	95.9	96.0	97.1	96.8	97.2	97.5	98.1
		손자녀	1.8	1.7	1.6	1.7	1.2	1.6	1.5
		부모	0.1	-	-	-	-	0.1	0.1
		기타	1.0	0.8	0.8	0.5	0.7	0.5	0.3
	교육기관	보육기관	37.2	37.2	38.2	38.9	39.7	37.2	33.0
		유치원	54.3	51.2	51.5	52.1	52.7	56.7	57.3
		초등학교	29.2	29.2	29.2	29.4	26.8	34.0	32.8
		중학교	26.5	26.7	26.3	27.1	27.1	31.1	29.9
		고등학교	5.8	5.7	4.7	4.7	3.4	5.4	5.8
		대학(4년 미만)	23.5	26.1	26.2	24.8	23.1	23.6	21.0
		대학(4년 이상)	2.5	3.3	2.2	2.5	2.6	2.0	1.9
	대학원	0.1	0.3	0.3	0.6	0.5	0.8	0.1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가구 내에서 비가구원에게 지출한 공교육비 지출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1%로 매우 적었으며 사교육비 또한 0.7%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비가구원에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보다 공교육비로 인한 지출금액이 더 크다는 점인데,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교육비 지출은 1,640.7만원, 사교육비 지출은 568.1만원으로 2.5배가 넘는 1,072.6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조사년도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교육비에서 더 높은 지출 규모를 보였다.

<표 VIII-16>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비가구원 교육비(복수응답)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교육	지출유무	3.1	1.1	0.5	0.5	0.9	0.5	0.6
	평균 지출 (중앙값)	943.7 (700.0)	727.4 (500.0)	635.5 (500.0)	1,247.2 (700.0)	1,024.2 (500.0)	1,416.7 (1000.0)	1,640.7 (1,200.0)
사교육	지출유무	1.5	0.7	0.4	0.4	0.6	0.4	0.3
	평균 지출 (중앙값)	669.9 (360.0)	627.6 (270.0)	997.3 (400.0)	648.5 (200.0)	1225.7 (400.0)	671.2 (360.0)	568.1 (36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6차년도 조사부터 비가구원에게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비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조사결과 2013년 공교육 지출의 경우 자녀가 78.6%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손자녀(14.2%), 기타(7.2%)순 이었으며, 사교육의 경우 자녀(76.1%), 기타(19.4%)순 이었다.

<표 VIII-17> 2012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비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복수응답)

단위(%만원)		2012년	2013년
공교육	자녀	82.7	78.6
	손자녀	13.3	14.2
	부모	-	-
	기타	4.0	7.2
사교육	자녀	72.7	76.1
	손자녀	27.3	4.5
	부모	-	-
	기타	-	19.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9) 의료·서비스·기타

보건 의료비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 유무가 아니라 가구원 또는 타가구원을 대상으로 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차 조사의 경우 한약재, 성형수술비, 치과 진료비만 보건의료비에 포함하고, 2차 조사 부터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를 추가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치과진료비의 경우 1~2차년도에는 치아교정비라는 항목 조사하였고 교정을 제외한 치과 진료비는 외래진료비에 포함하였다. 이후 조사부터는 모든 치과 진료비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가구 내 보건 의료비 지출을 살펴보면 10가구 중 9가구(2013년 기준 92.3%)가 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지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연간 평균 지출 금액은 평균 141.4만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다. 평균 2차조사의 결과값인 2008년 보건의료비 지출비용이 133.3만원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2009년의 경우 평균 144.9만원 지출해 약 11.6만원 차이가 가장 높은 지출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18>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보건의료비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건의료비	지출유무	93.4	91.6	92.5	91.9	91.4	91.5	92.3
	평균 지출 (중앙값)	134.3 (50.0)	133.3 (50.0)	144.9 (60.0)	150.5 (62.0)	138.5 (58.0)	145.3 (60.0)	142.7 (6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장례비 지출의 경우 약 2%미만의 가구에서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례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들의 연간 평균 지출금액은 891.7만원이었다. 이사로 인한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평균 7.7%이었으며, 연간 평균 지출 금액은 126.3만원이었다.

혼인 관련 지출 비용이 발생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1%를 차지하며, 연간 평균 지출 금액은 4,804.7만원으로 2012년부터 5천만원을 넘어서 2013년의 경우 5,940.8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다만 혼인을 위한 가구 구입비 및 전자제품 구입비의 경우 1~5차년도 조사까지는 가구 전체 가구 구입비 및 전자제품 구입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가 6차년도 조사부터 혼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는 혼인 지출로 분리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VIII-19>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혼인·장례·이사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장례	지출유무	1.7	1.5	1.5	1.2	1.0	1.3	1.0
	평균 지출 (중앙값)	692.2 (500.0)	591.6 (400.0)	794.6 (600.0)	1,011.6 (1,000.0)	1,027.3 (1,000.0)	1,024.0 (1,000.0)	1,100.2 (1,000.0)
이사	지출유무	4.4	8.1	8.3	8.6	8.3	7.5	8.3
	평균 지출 (중앙값)	102.9 (80.0)	103.9 (70.0)	108.1 (80.0)	167.7 (100.0)	137.1 (100.0)	123.9 (100.0)	140.6 (100.0)
혼인	지출유무	2.5	2.0	2.6	2.5	2.2	1.5	1.6
	평균 지출 (중앙값)	4,284.7 (2,500.0)	4,311.8 (2,500.0)	4,783.3 (3,000.0)	5,015.8 (2,400.0)	4,179.5 (3,000.0)	5,116.7 (3,000.0)	5,940.8 (4,0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4차년도 조사부터 가구 내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출 여부 및 연간 지출 금액을 조사한 결과 1.5%가구만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구들의 연간 평균 지출 금액은 2010년 269.8만원, 2011년 252.4만원, 2012년 331.1만원, 2013년 506.8만원이었다.

<표 VIII-20> 연도별 가구 소비 지출 현황 - 가사 도우미 서비스

단위(% ,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사 도우미	지출유무	1.8	1.4	1.8	0.8
	평균 지출 (중앙값)	269.8 (100.0)	252.4 (120.0)	331.1 (100.0)	506.8 (24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가구 특성별 가계 소비 지출 현황

가구의 특성별로 연간 소비지출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 지출규모는 각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 항목의 금액을 평균한 것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인 가구에서 2,970.6만원을 지출하여 여성 가구(1,483.3만원)보다 1,487.3만원 가량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차수에서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약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별로 연간 소비지출 평균을 비교해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40대가 가구주 가구에서 3,276.3만원을 지출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연간 1,418.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구주 연령간의 차이가 1,857.8만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소비지출 수준은 고용원을 둔 사업자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 (2013년 기준 4,809.8만원) 나타났다. 전체 조사기간의 평균 지출금액은 4,280.3만원 이었다. 2013년 가구원수별 연간 총 지출의 경우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금액 (4,046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가구원수 3명', '가구원 수 2명', '가구원수 1명' 순으로 가구 내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지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와 '전세'가 비슷한 소비지출 규모를 보였는데, '자가'의 경우 2013년 기준 2,806.3 만원의 소비지출 규모를 보였으며, '전세'의 경우 2,732.5만원으로 2012년 이전의 경우 두 특성 가구집단 간 차이(2012년 기준 약 22만원)가 크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약 74만원 차이가 나 그 격차가 커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무보증 월세 가구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 집단은 다른 특성 집단과 비교하여도 가장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 규모를 보이는 집단으로 2013년 기준 1,157.3만원의 소비지출 규모 차이를 보였다.

&lt;표 VIII-21&gt; 가구 특성별 가계 소비 지출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2,084.7 (1,716)	2,557.6 (2,205)	2,672.3 (2,329)	2,843.2 (2,443.4)	2,809.0 (2,474.6)	2,903.9 (2,574)	2,970.6 (2,636.4)
	여성	1,073.4 (806.4)	1,322.4 (994.6)	1,538.2 (1,093.6)	1,522.2 (1,059.4)	1,448.7 (1,114.4)	1,461.6 (1,147.2)	1,483.3 (1,107.6)
가구주 연령	20대	1,524.1 (1,205.4)	1,607.6 (1,461.8)	1,750.5 (1,327.6)	2,230.6 (1,425)	1,713.9 (1,553.6)	1,931.0 (1,422.8)	1,958.0 (1,582)
	30대	1,998.9 (1,735.2)	2,421.4 (2,124.6)	2,550.9 (2,283.6)	2,614.2 (2,415.2)	2,761.9 (2,515.2)	2,728.5 (2,612.2)	2,819.0 (2,608)
	40대	2,441.8 (2,213.4)	2,991.9 (2,734.9)	3,072.4 (2,895)	3,163.3 (2,926)	3,035.1 (2,757.8)	3,181.9 (2,887.6)	3,276.3 (3,014.2)
	50대	2,008.2 (1,597.2)	2,645.8 (2,242)	2,882.3 (2,350.8)	3,087.8 (2,541.8)	2,929.3 (2,425.4)	3,148.6 (2,574)	3,230.2 (2,609.2)
	60대 이상	1,016.9 (636)	1,198.7 (804.6)	1,300.9 (878)	1,419.3 (927.6)	1,232.8 (878.4)	1,422.6 (980.4)	1,418.6 (1,011.2)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198.1 (1,848)	2,658.8 (2,312)	2,762.0 (2,428)	2,887.2 (2,551.2)	2,879.5 (2,526)	3,025.5 (2,724.2)	3,068.2 (2,762)
	일용근로자	1,335.3 (1,161.6)	1,420.6 (1,241.6)	1,583.0 (1,269.4)	1,553.9 (1,289.6)	1,455.4 (1,133.4)	1,524.3 (1,295.6)	1,494.2 (1,231.6)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853.7 (1,484)	2,292.7 (1,922)	2,447.5 (2,087.4)	2,615.0 (2,215)	2,423.6 (2,141.2)	2,428.1 (2,107.4)	2,577.5 (2,161.6)
	고용원 둔 사업자	3,197.4 (2,856.8)	4,075.9 (3,803)	4,205.9 (3,819.2)	4,246.7 (3,546.6)	4,480.1 (3,546)	4,946.5 (4,222.8)	4,809.8 (3,861.4)
	무급가족 종사자	1,935.9 (2,074.8)	2,255.4 (2,252.4)	2,702.7 (2,346.4)	2,480.0 (2,621.8)	5,011.3 (3,658.8)	2,826.5 (2,132)	2,179.0 (1,923)
	기타	1,000 (696)	1,270 (869)	1,352 (901.4)	1,508 (925)	1,227 (877.2)	1,372 (908.2)	1,278 (855.6)
	가구원수	1명	753.2 (621.6)	943.7 (714.6)	1,027.7 (780.8)	1,001.1 (788)	1,099.8 (877.8)	998.2 (808.8)
2명	1,427.6 (998.6)	1,698.2 (1,294)	1,811.6 (1,368)	1,933.7 (1,411)	1,686.0 (1,415.2)	1,859.9 (1,464.8)	1,956.5 (1,514)	
3명	1,859.2 (1,554.8)	2,269.3 (1,958.4)	2,487.9 (2,189.6)	2,604.5 (2,273)	2,756.4 (2,429.4)	2,862.5 (2,583.2)	2,952.4 (2,663.2)	
4명 이상	2,664.7 (2,404)	3,301.3 (2,974.6)	3,397.9 (3,062.2)	3,644.6 (3,248.2)	3,711.1 (3,373.8)	3,881.2 (3,470.4)	4,045.8 (3,583.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996.0 (1,656)	2,464.3 (2,158)	2,656.3 (2,285.4)	2,790.4 (2,389.2)	2,658.7 (2,339.2)	2,721.1 (2,380.6)	2,806.3 (2,450.6)
	전세	2,009.3 (1,634.4)	2,456.8 (2,049)	2,495.6 (2,147)	2,679.6 (2,304)	2,667.7 (2,299.6)	2,743.5 (2,461)	2,732.5 (2,189.6)
	보증부월세	1,314.5 (1,089)	1,585.8 (1,337.2)	1,747.3 (1,432.2)	1,756.8 (1,482.6)	1,810.2 (1,520.8)	1,862.7 (1,508.6)	1,941.2 (1,582)
	무보증월세	985.0 (845)	1,349.0 (1,036)	1,360.7 (1,109.4)	1,744.3 (9,87.8)	1,176.8 (818.2)	1,260.0 (804)	1,157.3 (923.4)
	무상거주	- -	- -	- -	- -	- -	1,720.7 (1,354)	1,603.7 (1,273.6)
	기타	1,258.4 (1,004.4)	1,630.2 (1,381.8)	1,735.8 (1,345.2)	1,732.9 (1,524.6)	1,697.4 (1,310.4)	1,453.3 (1,401.4)	382.4 (382.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 안은 중앙값임

#### 다. 가구 소득분위별 소비 지출 현황

소득분위별로 연간 평균 가계소비지출 금액을 살펴보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분위는 1,052.6만원, 2분위 1,627.4만원, 3분위 2,321.6만원, 4분위 3,265.5만원, 5분위 4,521.1만원의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소비지출 규모 차이는 평균 3,086.0만원(2007년 2,446.2만원, 2008년 3,013.6만원, 2009년 2,878.9만원, 2010년 3,345.0만원, 2011년 3,112.1만원, 2012년 3,337.9만원, 2013년 3,486.4만원)으로 가장 격차가 심한 해는 2013년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년과 비교하여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하나, 2011년의 경우 반대로 감소하였다. 그 감소의 수준은 절대값과 감소비율 모두 5분위(259.1만원 감소)에서 가장 컸다.

&lt;표 VIII-22&gt;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소비 지출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715.0 (514.8)	981.6 (637)	1,149.5 (696.8)	1,080.7 (734.6)	1,054.6 (702.6)	1,063.4 (677.2)	1,052.6 (650.2)
2분위	1,309.9 (1,127)	1,482.4 (1,294)	1,692.7 (1,368.2)	1,721.7 (1,405.4)	1,664.5 (1,336.2)	1,644.4 (1,303.4)	1,627.4 (1,264.1)
3분위	1,814.4 (1,556.2)	2,180.7 (1,933.8)	2,274.3 (2,042.4)	2,457.7 (2,207)	2,378.3 (21,38.2)	2,297.0 (2,035.5)	2,321.6 (2,014.6)
4분위	2,274.8 (2,014.8)	2,735.2 (2,559.2)	2,952.0 (2,703)	3,111.8 (2,760.4)	3,026.7 (2,866.2)	3,160.1 (2,913.4)	3,265.5 (2,962.6)
5분위	3,161.2 (2,775.6)	3,995.2 (3,583)	4,028.4 (3,680.4)	4,425.7 (3,816.2)	4,166.7 (3,744)	4,401.3 (3,874.2)	4,521.1 (3,854.4)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 안은 중앙값임

### 3. 가구 비소비 지출 현황

#### 가. 연도별 비소비 지출 현황

비소비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은 조세, 사회보험료, 타가구 이전 지출, 기부금 등이다. 비소비 지출이 발생한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가구 연간 평균 비소비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565.2만원, 2008년 604.3만원, 2009년 614.9만원, 2010년 686.7만원, 2011년 681.1만원, 2012년 781.2, 2013년 799.7만원이었다.

총 비소비 지출 금액 중 가장 지출 금액이 많은 항목은 사회보험 및 연금보험 지출 부분으로 전체 비소비 지출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354.2만원, 2008년 405.7만원, 2009년 418.4만원, 2010년 471.1만원, 2011년 475.3만원, 2012년 546.5만원, 2013년 574.9만원이었다. 사회보험 및 연금보험은 지출규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6년간 220.7만원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많이 발생한 비소비 지출 항목은 타가구 이전 지출이며, 2007년 122.8만원, 2008년 109.7만원, 2009년 96.0만원, 2010년 112.6만원, 2011년 101.3만원, 2012년 106.3만원, 2013년 87.6만원을 지출하였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세 납부금의 경우 2007년 50.3만원, 2008년 46.6만원, 2009년 50.4만원, 2010년 52.2만원, 2011년 48.5만원, 2012년 65.1만원, 2013년 68.7만원이었다. 기부금은 2007년 37.8만원, 2008년 42.3만원, 2009년 50.1만원, 2010년 50.3만원, 2011년 41.2만원, 2012년 44.6만원, 2013년 48.3만원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4차년도 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금액을 조사하도록 하여, 2010년 0.5만원, 2011년 0.4만원, 2012년 0.8만원, 2013년 0.7만원 5차년도부터 고지 금액을 조사한 재산세는 2011년 14.4만원, 2012년 17.8만원, 2013년 19.5만원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23&gt; 연도별 가구 비소비 지출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부세	-	-	-	0.5	0.4	0.8	0.7
	-	-	-	(0.0)	(0.0)	(0.0)	(0.0)
재산세	-	-	-	-	14.4	17.8	19.5
	-	-	-	-	(4.0)	(7.0)	(0.0)
근로, 종합소득세	50.3	46.6	50.4	52.2	48.5	65.1	68.7
	(0.0)	(0.0)	(0.0)	(0.0)	(0.0)	(0.0)	(0.0)
사회 보험 및 연금	354.2	405.7	418.4	471.1	475.3	546.5	574.9
	(240.0)	(274.0)	(300.0)	(350.1)	(338.0)	(387.5)	(408.0)
타가구 이전 지출	122.8	109.7	96.0	112.6	101.3	106.3	87.6
	(0.0)	(0.0)	(0.0)	(0.0)	(0.0)	(0.0)	(0.0)
기부금	37.8	42.3	50.1	50.3	41.2	44.6	48.3
	(0.0)	(0.0)	(0.0)	(0.0)	(0.0)	(0.0)	(0.0)
총비소비	565.2	604.3	614.9	686.7	681.1	781.2	799.7
	(313.0)	(360.0)	(382.4)	(435.6)	(437.0)	(470.0)	(511.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 안은 중앙값임

### 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고지된 금액을 응답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중 종합 부동산세를 지출하는 가구는 2010년 0.8%, 2011년 0.7%, 2012년 1.0%, 2013년 0.9%이었다. 이들 가구의 종합부동산세 연간 총 금액은 평균 2010년 82.2만원, 2011년 73.1만원, 2012년 97.4만원, 2013년 137.8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재산세를 고지 받은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약 60%(2011년 59.3%, 2012년 64.4%, 2013년 25.3%)가 재산세 납부 고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받은 재산세 금액 평균은 2011년 24.9만원, 2012년 28.6만원, 2013년 48.3만원으로 산출되었다.

&lt;표 VI-24&gt; 연도별 가구 비소비 지출 현황 - 종합부동산세

단위(% ,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합부동산세	지출유무	0.8	0.7	1.0	0.9
	평균 지출 (중앙값)	82.2 (35.0)	73.1 (50.0)	97.4 (50.0)	137.8 (40.0)
재산세	지출유무	-	59.3	64.4	25.3
	평균 지출 (중앙값)	-	24.9 (13.0)	28.6 (16.0)	48.3 (21.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근로 및 종합 소득세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세의 경우 가구원 단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합산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 중 평균 44.6%(2007년 41.6%, 2008년 44.1%, 2009년 45.3%, 2010년 46.2%, 2011년 46.0%, 2012년 44.2%, 2013년 44.6%)에서 근로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보다 낮은 15.2%(2007년 12.9%, 2008년 14.4%, 2009년 16.3%, 2010년 16.1%, 2011년 14.7%, 2012년 16.4%, 2013년 15.8%)의 가구에서 납부하고 있었다.

납부 금액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2007년 118.8만원, 2008년 100.2만원, 2009년 101.1만원, 2010년 103.0만원, 2011년 107.6만원, 2012년 135.5만원, 2013년 150.9만원을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는 2007년 131.2만원, 2008년 62.0만원, 2009년 84.5만원, 2010년 63.6만원, 2011년 48.4만원, 2012년 85.9만원, 2013년 68.0만원을 납부하였다.

&lt;표 VIII-25&gt; 연도별 가구 비소비 지출 현황 - 근로 및 종합소득 결정세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근로소득	지출유무	41.6	44.1	45.3	46.2	46.0	44.2	44.6
	평균 지출 (중앙값)	118.8 (40.0)	100.2 (25.0)	101.1 (18.0)	103.0 (21.0)	107.6 (26.0)	135.5 (31.0)	150.9 (41.2)
종합소득	지출유무	12.9	14.4	16.3	16.1	14.7	16.4	15.8
	평균 지출 (중앙값)	131.2 (37.1)	62.0 (5.0)	84.5 (0.0)	63.6 (0.0)	48.4 (0.0)	85.9 (3.0)	68.0 (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공적연금 보험료의 경우 또한 가구원 조사에서 조사되고 가구의 총 지출을 살펴보고자 가구 내 보험료 납부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가구 내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 총합을 산출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가구 중 약 41%(2007년 36.1%, 2008년 40.8%, 2009년 39.7%, 2010년 45.8%, 2011년 41.4%, 2012년 40.5%, 2013년 39.3%)이 국민연금 지출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연간 납부금액은 평균 2007년 138.2만원, 2008년 135.4만원, 2009년 133.1만원, 2010년 137.4만원, 2011년 146.7만원, 2012년 153.0만원, 2013년 16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 납부 여부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2.0%, 2008년 5.0%, 2009년 5.1%, 2010년 5.2%, 2011년 5.1%, 2012년 4.5%, 2013년 4.5%의 가구에서 특수직 연금을 납부 하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가구를 대상으

로 산출한 연간 납부 금액은 평균 2007년 220.4만원, 2008년 243.9만원, 2009년 229.0만원, 2010년 289.6만원, 2011년 296.8만원, 2012년 351.2만원, 2013년 357.5만원이었다.

&lt;표 VIII-26&gt; 연도별 공적 연금 납부 여부 및 금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민연금	지출유무	36.1	40.8	39.7	45.8	41.4	40.5	39.3
	평균 지출 (중앙값)	138.2 (124.0)	135.4 (120.0)	133.1 (123.6)	137.4 (122.4)	146.7 (132.0)	153.0 (144.0)	162.2 (154.8)
특수직연금	지출유무	2.0	5.0	5.1	5.2	5.1	4.5	4.5
	평균 지출 (중앙값)	220.4 (210.0)	243.9 (225.0)	229.0 (212.4)	289.6 (256.8)	296.8 (264.0)	351.2 (312.0)	357.5 (334.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79.6%, 2008년 78.5%, 2009년 79.1%, 2010년 76.9%, 2011년 76.7%, 2012년 75.1%, 2013년 74.4%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 내 건강보험료 지출 총합을 산출한 결과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2007년 98.1만원, 2008년 103.7만원, 2009년 107.5만원, 2010년 123.5만원, 2011년 128.9만원, 2012년 150.0, 2013년 156.6만원이었다.

&lt;표 VIII-27&gt;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및 납부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강 보험료	지출유무	79.6	78.5	79.1	76.9	76.7	75.1	74.4
	평균 지출 (중앙값)	98.1 (80.0)	103.7 (84.0)	107.5 (88.0)	123.5 (100.0)	128.9 (107.0)	150.0 (121.0)	156.6 (132.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고용보험의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평균 약 43%(2007년 44.0%, 2008년 43.8%, 2009년 42.6%, 2010년 41.9%, 2011년 44.0%, 2012년 40.3%, 2013년 41.1%)에서 고용보험 납부한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구의 연간 납부 총액은 평균 2007년 16.4만원, 2008년 15.6만원, 2009년 14.7만원, 2010년 15.9만원, 2011년 19.2만원, 2012년 21.6만원 2013년 24.2만원이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1차년도 납부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반면 2차년도부터는 가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차이가 있다. 따라서 1차년도에 납부금액은 납부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된 평균적인 금액인 반면 2차년도 조사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된 결과임에 유의해야한다.

&lt;표 VIII-28&gt; 연도별 고용보험 납부(가입) 여부 및 납부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용보험	지출유무	44.0	43.8	42.6	41.9	44.0	40.3	41.1
	평균 지출 (중앙값)	16.4 (14.0)	15.6 (12.0)	14.7 (12.0)	15.9 (14.0)	19.2 (16.0)	21.6 (18.0)	24.2 (20.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1차년도 조사에서는 납부 유무에 대해 조사한 반면, 2차년도 조사부터 가입 유무를 조사함

민간 보험의 경우 1~5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연금 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자동차 보험 지출 여부 및 그 금액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6차년도 조사부터 가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5차년도의 경우 가구 내 납부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지 여부와 해당 가구원들의 납부 금액 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2007년 73.4%, 2008년 71.2%, 2009년 75.4%, 2010년 78.9%, 2011년 76.5%, 2012년 77.6%, 2013년 78.8%가 가구 내 납부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가구 대상 민간보험 연간 납부 총액은 평균 2007년 334.1만원, 2008년 370.4만원, 2009년 378.9만원, 2010년 404.6만원, 2011년 416.0만원, 2012년 479.3만원, 2013년 513.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lt;표 VIII-29&gt; 연도별 민간보험 납부 여부 및 납부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민간보험	지출유무	73.4	71.2	75.4	78.9	76.5	77.6	78.8
	평균 지출 (중앙값)	334.1 (230.0)	370.4 (246.0)	378.9 (253.0)	404.6 (278.0)	416.0 (286.0)	479.3 (360.0)	513.1 (375.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4) 이전지출

타가구 이전 지출은 작은 금액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가구가 많은 조사항목 중 하나로, 작은 금액을 때때로 지출하는 경우 가구주가 모두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정기적인 지출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지침<sup>2)</sup>에 조사차수가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하는 조사항목 이다.

기본적으로 타가구 이전 지출은 작년 한 해 동안 타가구원에게 용돈 및 생활비, 학비 지원 등의 용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 결과 약 32%가구(2007년 28.0%, 2008년 39.6%, 2009년 37.4%, 2010년 34.7%, 2011년 34.2%, 2012년 28.1%, 2013년 24.8%)에서 타가구

2) 타가구 이전 지출 항목은 1차년도 조사의 경우 1회성 지출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주고받은 금액만 포함하여 조사한 반면 2차년도 조사는 1회성 지출도 포함하였다. 3차년도 이후부터는 년에 1회를 주고받더라도 정기적인 기간이 있는 것일 경우 응답 하도록 하여 조사차수에 따라 연간 총액의 정의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이전 지출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된 연간 지출 총액은 2007년 451.2만원, 2008년 284.7만원, 2009년 273.1만원, 2010년 331.1만원, 2011년 308.6만원, 2012년 399.1만원, 2013년 362.9만원이었다.

<표 VIII-30> 타가구 이전 지출 여부 및 연간 총액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전지출	지출유무	28.0	39.6	37.4	34.7	34.2	28.1	24.8
	평균 지출 (중앙값)	451.2 (200.0)	284.7 (120.0)	273.1 (130.0)	331.1 (180.0)	308.6 (150.0)	399.1 (180.0)	362.9 (2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타가구 이전 지출을 받는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이전지출을 주는 경우가 2007년 80.1%, 2008년 82.5%, 2009년 68.4%, 2010년 68.8%, 2011년 70.8%, 2012년 65.1%, 2013년 6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배우자의 부모(2009년 40.7%, 2010년 47.2%, 2011년 47.6%, 2012년 44.9%, 2013년 37.5%), 자녀(2007년 17.1%, 2008년 6.2%, 2009년 4.4%, 2010년 5.6%, 2011년 5.4%, 2012년 8.6%, 2013년 8.6%)순 이었다. 다만 1~2차년도 조사에서는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하나의 응답범주로 조사하였다가 3차년도 조사부터 분리하였다. 또한 자녀의 경우도 2007년도 조사의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로 조사하였다가 2차년도 조사부터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전 지출을 받는 사람은 여성(2009년 81.9%, 2010년 85.0%, 2011년 84.7%, 2012년 84.6%, 2013년 80.1%), 중졸이하(2009년 83.2%, 2010년 83.1%, 2011년 80.5%, 2012년 78.8%, 2012년 76.7%), 무소득자(2009년 78.5%, 2010년 79.1%, 2011년 78.1%, 2012년 77.1%, 2013년 76.6%)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2012년도부터는 타가구 이전 지출 조사 파트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구간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2,000천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2012년 73.0%로 2013년 70.1%로 가장 많았다.

<표 VIII-31> 타가구 이전 지출 받는 사람 (복수응답)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급자 관계	조부모	-	2.8	0.5	0.1	0.7	0.3	1.0
	배우자조부모	0.1	-	2.8	2.6	0.5	1.0	2.2
	부모	80.1	82.5	68.4	68.8	70.8	65.1	65.2
	배우자의 부모	-	-	40.7	47.2	47.6	44.9	37.5
	자녀	17.1	6.2	4.4	5.6	5.4	8.6	8.6
	손자녀	-	4.3	4.5	4.6	6.2	7.3	8.6
	배우자	1.4	1.4	0.9	0.3	0.4	0.7	0.9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급자 관계	기타 친인척	4.7	5.5	8.1	7.8	6.4	7.2	1.8
	비혈연	1.0	0.9	1.2	0.6	0.2	0.1	0.4
	이혼한전배우자	-	-	-	-	0.2	0.2	0.5
성별	남성	-	-	34.2	33.5	30.0	29.6	30.9
	여성	-	-	81.9	85.0	84.7	84.6	80.1
학력	중졸이하	-	-	83.2	83.1	80.5	78.8	76.7
	고졸	-	-	16.9	19.2	19.1	20.1	19.1
	대졸이상	-	-	10.9	12.7	11.4	12.9	14.6
소득	있음	-	-	30.5	31.4	31.3	33.2	33.1
	없음	-	-	78.5	79.1	78.1	77.1	76.6
소득 금액	2,000만원 미만	-	-	-	-	-	73.0	70.1
	2,000~4,000만원 미만	-	-	-	-	-	24.4	27.6
	4,000~6,000만원 미만	-	-	-	-	-	5.0	5.6
	6,000~8,000만원 미만	-	-	-	-	-	0.6	0.4
	8,000~1억 미만	-	-	-	-	-	0.3	0.8
	1억 이상	-	-	-	-	-	0.1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가구 내에서 타가구에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가구원은 남성이 2007년 59.3%, 2008년 57.8%, 2009년 52.0%, 2010년 47.3%, 2011년 54.1%, 2012년 55.3%, 2013년 54.1%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약 71%가 30~40대(2007년 68.1%, 2008년 70.8%, 2009년 71.0%, 2010년 71.8%, 2011년 70.3%, 2012년 72.5%, 2013년 71.0%)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가구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2007년 68.1%, 2008년 66.9%, 2009년 61.4%, 2010년 57.7%, 2011년 67.7%, 2012년 68.4%, 2013년 67.5%로 가장 많았다.

<표 VIII-32> 타가구 이전 지출 주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성별	남성	59.3	57.8	52.0	47.3	54.1	55.3	54.1
	여성	42.0	44.8	47.1	53.7	46.1	45.0	45.2
연령	20대 이하	11.1	8.6	9.1	7.6	4.6	2.6	3.3
	30대	34.4	39.5	39.9	40.4	37.9	29.3	26.8
	40대	33.8	31.4	31.2	31.5	32.2	43.2	44.2
	50대	17.9	14.5	16.2	16.4	19.1	15.0	16.1
	60대 이상	3.9	7.0	7.3	7.0	8.4	11.9	12.1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68.1	66.9	61.4	57.7	67.7	68.4	67.5
	가구주배우자	31.2	33.9	43.2	46.8	37.9	36.2	39.6
	가구주 자녀 그배우자	0.7	1.0	1.5	0.5	0.8	1.1	0.5
	부모	0.6	0.7	0.7	1.2	0.5	1.0	1.0
	기타	1.0	0.5	0.5	0.3	0.3	0.5	-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연도별 기부금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약 33%에서 기부금 지출(2007년 33.2%, 2008년 33.1%, 2009년 34.9%, 2010년 34.5%, 2011년 31.9%, 2012년 31.3%, 2013년 31.3%)을 하고 있었고, 연간 지출 총액은 평균 2007년 123.4만원, 2008년 134.2만원, 2009년 149.6만원, 2010년 146.4만원, 2011년 136.1만원, 2012년 143.4만원, 2013년 152.2만원이었다. 기부분야는 종교단체 기부가 평균 69%(2007년 72.9%, 2008년 74.1%, 2009년 74.0%, 2010년 73.6%, 2011년 68.7%, 2012년 63.7%, 2013년 53.6%)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기관 28.2%(2007년 23.4%, 2008년 21.5%, 2009년 23.8%, 2010년 26.0%, 2011년 29.7%, 2012년 36.2%, 2013년 36.6%), 정당 2.9%(2007년 3.1%, 2008년 3.2%, 2009년 3.3%, 2010년 1.8%, 2011년 2.3%, 2012년 3.1%, 2013년 3.2%)의 순이었다. 종교단체 기부의 경우 2007~2010년까지는 70%이상이었으나 점점 감소하여 2013년 기부금 지출 가구의 약 절반만이 종교단체 기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사회복지기관의 기부금 지출 비율은 2007년 23.4%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3년 36.6%로 약 13%p 증가하였다.

<표 VIII-33> 연도별 기부금 지출 현황(복수응답)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출유무		33.2	33.1	34.9	34.5	31.9	31.3	31.3
	평균 지출 (중앙값)	123.4 (40.0)	134.2 (50.0)	149.6 (50.0)	146.4 (50.0)	136.1 (50.0)	143.4 (50.0)	152.2 (51.0)
기부분야	정당	3.1	3.2	3.3	1.8	2.3	3.1	3.2
	교육기관	2.2	2.2	1.6	1.5	1.5	1.6	1.7
	사회복지기관	23.4	21.5	23.8	26.0	29.7	36.2	36.6
	문화예술	0.8	0.3	0.3	0.3	1.2	0.4	0.5
	종교	72.9	74.1	74.0	73.6	68.7	63.7	53.6
	기타	0.3	0.1	0.3	0.1	0.1	0.3	11.2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가구 특성별 비소비 지출 현황

가구의 특성별로 연간 비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 지출규모는 각 특성에 따라 비소비 지출 항목의 금액을 평균한 것으로, 소비지출과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비소비 지출은 남성인 가구에서 987.5만원을 지출하여 여성 가구(356.9만원) 보다 630.6만 원 가량을 더 지출하고 있었고, 전체 기간 평균 약 500만원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은 40대 가구주 가구에서 1,127.8만원을 지출하였고,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연간 277.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구주 연령 간의 차이가 약 850.6만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비소비 지출의 주요 지출 항목인 사회보험료 납부의 대상에 연령 제한(만60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다.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비소비 지출 수준 역시 소비지출과 동일하게 고용원을 둔 사업자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2013년 기준 1,955.8만원)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가구의 평균 비소비 지출 금액은 1,337.6만원이고, 가구원수 2명 가구에서 3명 가구로 넘어갈 때 비소비 지출 규모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 2013년 기준 두 집단간 금액차이는 518.1만원이었다.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서도 소비지출과 동일하게 '자가'와 '전세'가 비슷한 비소비 지출 규모를 보였는데, '자가'의 경우 2013년 기준 24.0만원의 비소비 지출 규모를 보였으며, '전세'의 경우 860.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lt;표 Ⅷ-34&gt; 가구 특성별 가계 비소비 지출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666.2 (432)	712.9 (488)	723.3 (495)	801.5 (561.8)	811.5 (576)	958.6 (718)	987.4 (726.8)
	여성	258.2 (63)	261.5 (60)	276.8 (91)	313.4 (110)	349.3 (120)	347.3 (142)	356.9 (151)
가구주 연령	20대	381.4 (300)	434.7 (262)	509.6 (348)	567.6 (331.6)	579.3 (271)	649.8 (274)	823.2 (340)
	30대	735.7 (578)	768.6 (608)	840.4 (643.2)	822.3 (661.4)	901.9 (704)	1,043.4 (885)	1,020.8 (892.3)
	40대	815.6 (554.5)	826.4 (600)	801.1 (603.6)	911.1 (696)	875.7 (637)	1,108.7 (821)	1,127.8 (858)
	50대	701.0 (380)	738.1 (432)	740.9 (433)	854.9 (594.6)	854.7 (575)	1,033.9 (768)	1,130.9 (798)
	60대 이상	144.3 (20)	176.9 (21)	166.1 (29)	232.7 (36)	208.4 (39)	263.9 (51)	277.2 (60)
가구원수	1명	215.6 (30)	213.0 (32)	262.0 (70)	293.3 (96)	287.7 (80)	251.9 (61)	239.8 (56)
	2명	463.5 (136)	454.7 (139)	386.3 (134)	466.0 (170)	490.9 (231)	480.2 (233)	555.8 (266)
	3명	649.1 (404)	663.9 (460)	726.7 (470)	795.7 (561)	820.2 (605)	1,058.7 (821)	1,073.9 (881)
	4명 이상	802.5 (631)	902.4 (694)	894.4 (688.8)	976.1 (765)	1,058.1 (857.1)	1,293.3 (1,075)	1,337.6 (1,122.1)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832.8 (623)	873.0 (665)	885.2 (658.2)	945.7 (731)	962.2 (739)	1,143.7 (929)	1,155.8 (892.5)
	일용근로자	279.8 (125)	210.9 (102)	252.1 (134)	291.9 (180)	236.4 (157)	394.6 (184)	311.2 (156)
	고용원없는자영업자	520.6 (308)	545.0 (365)	556.6 (352)	564.5 (399)	641.8 (467)	692.7 (480)	694.4 (550)
	고용원 둔 사업자	1,310.9 (824)	1,345.8 (954)	1,121.7 (853)	1,353.2 (898)	1,418.1 (1,120)	1,783.0 (1,319)	1,955.8 (1,679.6)
	무급가족 종사자	707.5 (540)	567.7 (391)	727.4 (465)	996.6 (772)	986.7 (604)	993.5 (397)	842.8 (695)
	무직	144.4 (20)	147.4 (5)	152.9 (10)	220.4 (15)	166.5 (25)	213.8 (25)	216.2 (2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632.6 (355)	689.8 (414)	666.1 (438)	742.8 (510)	754.8 (514)	870.9 (606)
전세	604.7 (415)	620.6 (476)	670.4 (462)	765.7 (548)	826.4 (544)	882.4 (571)	860.7 (629)	
보증부월세	338.1 (150)	323.3 (150)	382.8 (199.6)	454.6 (224)	395.4 (240)	476.1 (290)	507.6 (312)	
무보증월세	219.4 (24)	256.7 (66)	239.6 (69)	167.5 (39)	193.1 (80)	173.9 (21)	162.6 (66)	
무상거주	- -	- -	- -	- -	- -	592.6 (142)	460.0 (175)	
기타	481.5 (286)	555.8 (147)	597.1 (154)	560.5 (255)	486.3 (180)	234.2 (192)	190.0 (19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다. 가구 소득분위별 비소비 지출 현황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연간 평균 가계 비소비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1분위는 174.8만원, 2분위 356.0만원, 3분위 611.6만원, 4분위 1,098.0만원, 5분위 2,110.8만원의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1분위와 5분위의 비소비 지출 규모 차이는 2013년 1,936.0만원이었다.

<표 VIII-35>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비소비 지출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90.3 (12)	117.3 (10)	156.9 (20)	156.1 (21)	149.5 (17)	159.0 (18)	174.8 (12)
2분위	255.2 (168)	246.8 (148)	320.5 (194)	321.4 (243)	334.1 (216)	356.8 (228)	356.0 (222.6)
3분위	523.3 (431)	514.5 (395)	530.4 (426.8)	560.6 (466)	578.0 (479)	645.1 (470)	611.6 (529)
4분위	808.9 (676.4)	835.2 (730)	825.7 (709.2)	950.9 (808)	944.9 (853)	1,067.5 (972)	1,098.0 (995.5)
5분위	1,589.2 (1,208)	1,608.8 (1,313)	1,570.4 (1,278.4)	1,758.6 (1,447)	1,810.3 (1,459)	2,038.5 (1,675)	2,110.8 (1,794.8)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Ⅸ. 자산 및 부채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자 가구 내 가구원 명의로 된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는 조사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 등 금융 자산의 경우 이자나 배당금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적립한 원금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자산 및 부채 유형에 대한 조사표 구성이 차수별로 조금씩 변화하여 조사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항목별 자산 및 부채가 없을 경우는 0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missing) 처리하여 산출하였다.

### 1. 가구 자산 및 부채 구성표

재정패널의 가구 자산은 크게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된다. 모든 자산의 한 시점에서의 자산 평가액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준 시점은 작년 말(12월 31일)이다.

금융 자산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 보험 및 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기타 금융 자산과 주택마련저축 및 펀드 불입금을 조사한다. 저축성 보험 및 연금성 보험은 2차년도 조사부터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부동산과 기타자산의 경우 가구원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부동산 자산과 그 외 기타 자산을 조사하였으며, 총 평가액을 기준으로 규모를 파악하였다.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가 주택 거주자의 거주주택의 시가 총액,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시가총액, 토지 건물 등의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의 돌려받을 보증금이다. 그 외 기타 자산으로는 골프 및 콘도 등의 회원권, 농기계 및 가축, 선박 및 건설 중장비, 귀금속, 그 외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이 포함된다.

부채의 경우 대출기관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작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 원금과 작년 한 해 동안 상환하였던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단, 연간 상환액은 3차년도 이후 조사부터 측정되었고, 금액은 상환액을 구분 없이 적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6차년도 조사부터 상환액이 ①원리금인지, ②원금인지, ③이자인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부채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자금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일반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의 기타 부채로 구분된다.

&lt;표 IX-1&gt; 재정패널 자산 및 부채 구성표

구분	세부내용		
	금융 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자산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거주주택	귀금속
	펀드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농기계, 가축
	채권	전월세 보증금	선박, 건설 중장비
	주식	주택 이외 보유 부동산 (토지, 건물)	보유 회원권 (골프, 콘도 등)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그 외 기타자산 (골동품, 예술품 등)
	빌려준 돈		
	기타 금융 자산 (은행신탁, 아직 타지 않은 계)		
	주택저축, 펀드		
	부채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기타 (개인적으로 빌린 돈 또는 이미 탄 계)			

## 2.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가.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연도별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2007년 2,319.3만원, 2008년 2,371.5만원, 2009년 2,572.5만원, 2010년 3,055.5만원, 2011년 2,928.5만원, 2012년 3,166.1만원, 2013년 3,280.3만원(중앙값: 2007년 500만원, 2008년 700만원, 2009년 700만원, 2010년 1,000만원, 2011년 1,000만원, 2012년 1,000만원 2013년 1,000만원)이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금융 자산 규모 변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년에 비해 127.1만원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2007년 18,481.6만원, 2008년 18,529.3만원, 2009년 18,374.0만원, 2010년 21,251.0만원, 2011년 20,220.1만원, 2012년 20,730.8만원, 2013년 21,702.2만원(중앙값: 2007년

8,000만원, 2008년 9,000만원, 2009년 9,000만원, 2010년 10,000만원, 2011년 10,000만원, 2012년 11,000만원, 2013년 12,000만원)의 수준이었다.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 역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의 경우 그 전년도에 비해 2,877.0만원이 증가하여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증가된 부동산 자산 규모가 다시 1,030.9만 원 가량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2010년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되찾는 수준이었다.

기타 자산의 규모는 2007년 247.9만원, 2008년 165.5만원, 2009년 145.0만원, 2010년 186.4만원, 2011년 177.8만원, 2012년 203.8만원, 2013년 142.2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으로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자산에 비하여 그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2007년 3,419.8만원, 2008년 3,715.3만원, 2009년 3,464.9만원, 2010년 3,991.5만원, 2011년 3,938.2만원, 2012년 3,962.1만원, 2013년 4,039.6만원(중앙값: 2007~2013년 0만원)의 수준으로 유동성 자산인 금융 자산의 규모보다 평균 976.8만 원 가량 많았다. 시간에 따른 부채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295.6만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250.5만원 부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다시 526.6만원 부채가 증가하여 부동산 자산이 크게 증가했던 2010년에는 부채도 함께 증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2011년에는 부채가 약 53.3만원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다시 약 23.9만원 증가, 2013년은 77.5만원 증가로 부채의 증감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감소의 규모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가 더 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을 합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07년 17,629.1만원, 2008년 17,358.7만원, 2009년 17,657.5만원, 2010년 20,567.0만원, 2011년 19,348.3만원, 2012년 20,084.6만원, 2013년 20,990.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2>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융 자산	2,319.3 (500.0)	2,371.5 (700.0)	2,572.5 (700.0)	3,055.5 (1,000.0)	2,928.5 (1,000.0)	3,166.1 (1,000.0)	3,280.3 (1,000.0)
부동산 자산	18,481.6 (8,000.0)	18,529.3 (9,000.0)	18,374.0 (9,000.0)	21,251.0 (10,000.0)	20,220.1 (10,000.0)	20,730.8 (11,000.0)	21,702.2 (12,000.0)
기타자산	247.9 (0.0)	165.5 (0.0)	145.0 (0.0)	186.4 (0.0)	177.8 (0.0)	203.8 (0.0)	142.2 (0.0)
부채	3,419.8 (0.0)	3,715.3 (200.0)	3,464.9 (0.0)	3,991.5 (0.0)	3,938.2 (0.0)	3,962.1 (0.0)	4,039.6 (0.0)
순자산	17,629.1 (8,120.0)	17,358.7 (8,400.0)	17,657.5 (8,820.0)	20,567.0 (10,500.0)	19,348.3 (10,040.0)	20,084.6 (10,920.0)	20,990.9 (11,5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1) 금융 자산 현황

금융 자산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한 평가액을 조사하였으며, 주택 마련 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을 조사하였다. 2차년도 부터는 저축성 보험 및 연금성 보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연도별 조사결과를 금융 자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을 보유한 가구가 평균 70.1%(2007년 63.3%, 2008년 65.8%, 2009년 67.7%, 2010년 73.4%, 2011년 69.8%, 2012년 78.3%, 2013년 7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저축 및 연금성 보험 27.2%(2008년 29.0%, 2009년 28.5%, 2010년 29.0%, 2011년 30.0%, 2012년 22.8%, 2013년 23.8%), 주택 마련 저축 및 펀드 11.6%(2007년 11.3%, 2008년 10.7%, 2009년 14.7%, 2010년 16.0%, 2011년 11.4%, 2012년 9.5%, 2013년 7.8%)의 순 이었다. 그 외 금융 자산의 종류 중에 채권을 보유한 가구는 1%미만(2007년 0.4%, 2008년 0.4%, 2009년 0.6%, 2010년 0.6%, 2011년 0.5%, 2012년 0.4%, 2013년 0.2%)으로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융 자산 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자산금액은 평균 2,394만원(2007년 2,071.4만원, 2008년 2,029.8만원, 2009년 2,148.4만원, 2010년 2,531.6만원, 2011년 2,620.0만원, 2012년 2,931.9만원, 2013년 3,203.1만원)으로 2008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주택마련 저축 및 펀드는 2007년 489.5만원, 2008년 227.2만원, 2009년 180.2만원, 2010년 200.4만원, 2011년 186.3만원, 2012년 153.5만원, 2013년 168.2만원으로 전 기간을 평균하면 22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사 첫해였던 2007년 보유액이 가장 크고, 그 이후로는 보유액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2012년에는 2007년의 3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펀드 가입 금액은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등을 포함한 펀드의 총 평가액 정보를 통해 산출된 결과이며 연금 펀드의 총 불입액은 포함되지 않고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2007년 1,462.8만원, 2008년 1,520.8만원, 2009년 1,831.5만원, 2010년 1,727.0만원, 2011년 2,014.2만원, 2012년 2,091.2만원, 2013년 2,647.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펀드 가입 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식 보유액은 펀드 가입 가구보다 해당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평가액은 더 높았는데, 2007년 2,787.9만원, 2008년 2,511.0만원, 2009년 2,798.7만원, 2010년 3,563.2만원, 2011년 3,589.2만원, 2012년 3,169.3만원, 2013년 3,343.5만원의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채권은 주식 보유 가구보다 보유가구가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평가액은 펀드와 주식 보다 더 높아 전 기간 평균 평가액은 4,275.8만원이었다. 조사기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2007년 3,039.9만원, 2008년 1,477.5만원, 2009년 2,566.8만원, 2010년 5,946.2만원, 2011년 2,436.6만원, 2012년 5,647.0만원, 2013년 8,816.5만원이었다. 평가액이 큰 만큼, 금액의 변동폭 역시 컸는데, 가장 높은 보유수준을 나타낸 201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3,169.5만원이 증가한 수준이었다.

&lt;표 IX-3&gt;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금융 자산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보유유무	63.3	65.8	67.7	73.4	69.8	78.3	72.7
	평균 금액 (중앙값)	2,071.4 (1,000.0)	2,029.8 (900.0)	2,148.4 (1,000.0)	2,531.6 (1,000.0)	2,620.0 (1,000.0)	2,931.9 (1,000.0)	3,203.1 (1,200.0)
펀드	보유유무	19.0	18.2	14.0	12.9	9.1	7.2	5.6
	평균 금액 (중앙값)	1,462.8 (500.0)	1,520.8 (600.0)	1,831.5 (700.0)	1,727.0 (768.0)	2,014.2 (700.0)	2,091.2 (1,000.0)	2,647.1 (1,200.0)
채권	보유유무	0.4	0.4	0.6	0.6	0.5	0.4	0.2
	평균 금액 (중앙값)	3,039.9 (1,000.0)	1,477.5 (500.0)	2,566.8 (1,500.0)	5,946.2 (3,000.0)	2,436.6 (2,000.0)	5,647.0 (3,000.0)	8,816.5 (5,000.0)
주식	보유유무	9.8	9.9	9.2	9.0	7.2	6.2	5.3
	평균 금액 (중앙값)	2,787.9 (1,000.0)	2,511.0 (1,000.0)	2,978.7 (1,000.0)	3,563.2 (1,400.0)	3,589.2 (2,000.0)	3,169.3 (2,000.0)	3,343.5 (2,000.0)
저축, 연금성 보험	보유유무	-	29.0	28.5	29.0	30.0	22.8	23.8
	평균 금액 (중앙값)	-	1,196.3 (600.0)	1,428.8 (900.0)	1,510.7 (840.0)	1,621.1 (960.0)	1,871.8 (1,200.0)	2,190.1 (1,200.0)
빌려준 돈	보유유무	4.8	4.0	4.0	3.2	2.3	1.9	1.6
	평균 금액 (중앙값)	3,096.2 (1,200.0)	3,284.7 (1,500.0)	3,789.7 (2,000.0)	4,074.4 (1,500.0)	5,346.0 (2,000.0)	4,130.9 (2,000.0)	3,793.1 (1,700.0)
기타금융 자산	보유유무	18.2	0.9	2.6	1.8	1.4	1.2	1.2
	평균 금액 (중앙값)	1,460.7 (950.0)	1,519.7 (1,000.0)	1,787.4 (504.0)	6,155.3 (1,000.0)	1,760.2 (700.0)	3,900.7 (840.0)	6,686.5 (1,980.0)
주택마련저축, 펀드	보유유무	11.3	10.7	14.7	16.0	11.4	9.5	7.8
	평균 금액 (중앙값)	489.5 (300.0)	227.2 (120.0)	180.2 (120.0)	200.4 (120.0)	186.3 (120.0)	153.5 (120.0)	168.2 (120.0)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부동산자산 현황

부동산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거주주택을 보유한 가구(2007년 57.8%, 2008년 57.1%, 2009년 55.7%, 2010년 55.9%, 2011년 55.2%, 2012년 57.1%, 2013년 57.5%)의 평균 시가총액은 20,083.3만원 수준(2007년 19,935.8만원, 2008년 18,853.5만원, 2009년 19,425.9만원, 2010년 20,547.9만원, 2011년 19,796.6만원, 2012년 20,280.0만원, 2013년 21,743.2만원)이었다. 시간 흐름에 따른 거주주택의 시가 총액의 변화양상은 뚜렷한 증가나 감소 추세 없이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 돌려받을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2007년 39.5%, 2008년 39.8%, 2009년 40.4%, 2010년 42.8%, 2011년 40.3%, 2012년 37.7%, 2013년 37.6%)들의 평균 보증금 액수는 6,532.6만원 수준(2007년 5,042.6만원, 2008년 5,575.0만원, 2009년 6,128.5만원, 2010년 7,542.5만원, 2011년 7,333.0만원, 2012년 6,950.0만원, 2013년 7,156.8만원)으로 2011년에 약간의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2007년 15.1%, 2008년 14.6%, 2009년 14.8%, 2010년 14.3%, 2011년 14.0%, 2012년 17.0%, 2013년 16.0%)의 시가총액은 2007년 17,946.4만원, 2008년 18,735.0만원, 2009년 22,638.3만원, 2010년 24,375.9만원, 2011년 18,475.4만원, 2012년 21,409.0만원, 2013년 23,457.7만원이며, 전체 기간 평균 시가총액은 21,005.4만원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 외 주택을 보유한 가구(2007년 11.4%, 2008년 15.3%, 2009년 15.9%, 2010년 15.1%, 2011년 14.3%, 2012년 13.4%, 2013년 12.7%)의 주택 시가 총액은 2007년 25,206.7만원, 2008년 21,852.2만원, 2009년 24,054.7만원, 2010년 24,868.5만원, 2011년 27,443.6만원, 2012년 28,832.2만원, 2013년 25,915.8만원 수준이었다.

<표 IX-4>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부동산 자산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거주주택	보유유무	57.8	57.1	55.7	55.9	55.2	57.1	57.5
	평균 금액 (중앙값)	19,935.8 (12,000.0)	18,853.5 (12,000.0)	19,425.9 (13,000.0)	20,547.9 (15,000.0)	19,796.6 (15,000.0)	20,280.0 (15,000.0)	21,743.2 (16,000.0)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보유유무	11.4	15.3	15.9	15.1	14.3	13.4	12.7
	평균 금액 (중앙값)	25,206.7 (16,000.0)	21,852.2 (15,000.0)	24,054.7 (18,000.0)	24,868.5 (18,500.0)	27,443.6 (20,000.0)	28,832.2 (20,000.0)	25,915.8 (20,000.0)
토지, 건물	보유유무	15.1	14.6	14.8	14.3	14.0	17.0	16.0
	평균 금액 (중앙값)	17,946.4 (8,000.0)	18,735.0 (7,000.0)	22,638.3 (8,000.0)	24,375.9 (10,000.0)	18,475.4 (10,000.0)	21,409.0 (10,000.0)	23,457.7 (10,000.0)
전월세보증금	보유유무	39.5	39.8	40.4	42.8	40.3	37.7	37.6
	평균 금액 (중앙값)	5,042.6 (3,000.0)	5,575.0 (3,000.0)	6,128.5 (4,000.0)	7,542.5 (4,000.0)	7,333.0 (4,000.0)	6,950.0 (3,500.0)	7,156.8 (3,8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 기타자산 현황

가구원 명의로 되어있는 기타 자산의 작년 12월 말 기준 총 평가액을 조사하였다. 연도별 기타자산을 살펴보면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자산에 비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금액의 연도별 평균 및 중앙값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2007년 0.1%, 2008년 1.7%, 2009년 2.6%, 2010년 5.5%, 2011년 4.9%, 2012년 이후 10%이상으로 증가하여 2012년은 11.3%로 2013년 10.7%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응답 중 빈번히 응답되던 귀금속을 분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6차년도 부터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귀금속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자산의 평균 금액은 2007년 287.9만원, 2008년 175.5만원, 2009년 267.6만원, 2010년 323.7만원, 2011년 330.9만원, 2012년 407.4만원, 2013년 340.3만원이었다. 그 다음 농기계

및 가축을 보유한 가구는 2007년 0.2%, 2008년 3.3%, 2009년 2.5%, 2010년 2.7%, 2011년 2.8%, 2012년 2.6%로 2013년 1.8%, 평균 평가 금액은 2007년 8,478.7만원, 2008년 1,924.0만원, 2009년 2,690.5만원, 2010년 2,919.4만원, 2011년 2,705.0만원, 2012년 1,984.4만원, 2013년 1,924.6만원이었다. 선박 및 건설 중장비를 보유한 가구는 2007년 0.001%, 2008년 0.4%, 2009년 0.4%, 2010년 0.5%, 2011년 0.4%, 2012년 0.6%, 2013년 0.4%이었으며, 평균 평가액은 2007년 7,000.0만원, 2008년 6,928.3만원, 2009년 6,407.4만원, 2010년 6,580.1만원, 2011년 7,431.6만원, 2012년 7,808.4만원, 2013년 9,678.6만원이었다. 해당 자산의 특성상 보유비율은 낮고, 평가 금액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 외 기타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2007년 1.9%, 2008년 0.6%, 2009년 0.6%, 2010년 0.5%, 2011년 0.3%, 2012년 0.5%, 2013년 0.3%이며, 평가액은 2007년 9,243.4만원, 2008년 3,476.3만원, 2009년 6,479.5만원, 2010년 5,852.8만원, 2011년 16,725.7만원, 2012년 6,627.1만원, 2013년 5,082.3만원으로 나타났다.

&lt;표 IX-5&gt;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기타 자산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유 회원권	보유유무	0.6	0.5	0.2	0.2	0.1	0.3	0.2
	평균 금액 (중앙값)	8,092.7 (3,000.0)	10,166.1 (3,000.0)	2,320.5 (1,700.0)	12,794.3 (3,000.0)	5,379.7 (3,000.0)	6,173.3 (3,000.0)	11,215.8 (2,000.0)
농기계, 가축	보유유무	0.2	3.3	2.5	2.7	2.8	2.6	1.8
	평균 금액 (중앙값)	8,478.7 (1,500.0)	1,924.0 (500.0)	2,690.5 (500.0)	2,919.4 (1,000.0)	2,705.0 (700.0)	1,984.4 (1,000.0)	1,924.6 (500.0)
선박, 건설 중장비	보유유무	0.001	0.4	0.4	0.5	0.5	0.6	0.4
	평균 금액 (중앙값)	7,000.0 (7,000.0)	6,928.3 (4,500.0)	6,407.4 (5,000.0)	6,580.1 (6,000.0)	7,431.6 (7,000.0)	7,808.4 (6,000.0)	9,678.6 (7,000.0)
귀금속	보유유무	0.1	1.7	2.6	5.5	4.9	11.3	10.7
	평균 금액 (중앙값)	287.9 (250.0)	175.5 (100.0)	267.6 (200.0)	323.7 (200.0)	330.9 (200.0)	407.4 (300.0)	340.3 (200.0)
기타	보유유무	1.9	0.6	0.6	0.5	0.3	0.5	0.3
	평균 금액 (중앙값)	9,243.4 (200.0)	3,476.3 (500.0)	6,479.5 (1,500.0)	5,852.8 (2,000.0)	16,725.7 (13,000.0)	6,627.1 (7,000.0)	5,082.3 (6,0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4) 부채 현황

부채의 경우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구 내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시점 기준 작년 12월 말 기준 남아 있는 부채 잔액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 기간 평균 약 22.1% 수준(2007년 34.3%, 2008년 35.9%, 2009년 21.5%, 2010년 18.7%, 2011년 16.2%, 2012년 13.8%, 2013년 14.3%)이었으며, 이 가구들의 평균 부채 잔액은 5,012.3만원(2007년 6,174.9만원, 2008년 5,813.3만원, 2009년

3,995.4만원, 2010년 4,142.7만원, 2011년 4,430.2만원, 2012년 5,400.2만원, 2013년 5,129.2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조사부터 금융기관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나누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 부채 가구 비율이 2007~2008년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2009년 18.7%, 2010년 19.6%, 2011년 18.2%, 2012년 18.5%, 2013년 18.4%가구에서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2009년 8,001.9만원, 2010년 8,657.2만원, 2011년 8,157.0만원, 2012년 8,931.6만원, 2013년 9,459.8만원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부채의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담보대출은 매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겠다.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대상 가구는 평균 4%로(2007년 6.8%, 2008년 6.9%, 2009년 2.9%, 2010년 3.0%, 2011년 2.5%, 2012년 2.2%, 2013년 2.1%) 적은 편이나 부채의 규모는 평균 5,098.9만원(2007년 4,306.3만원, 2008년 5,600.2만원, 2009년 4,120.6만원, 2010년 5,042.5만원, 2011년 6,296.3만원, 2012년 5,454.8만원, 2013년 4,871.2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도 부채 보유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보증금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007년 11.3%, 2008년 15.3%, 2009년 16.4%, 2010년 16.2%, 2011년 15.3%, 2012년 15.4%, 2013년 14.3%로 보증금 총액 평균은 2007년 7,530.9만원, 2008년 7,808.9만원, 2009년 7,648.9만원, 2010년 8,855.9만원, 2011년 9,763.2만원, 2012년 10,525.4만원, 2013년 10,743.3만원이며, 응답가구 비율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07년 3.1%, 2008년 3.8%, 2009년 2.9%, 2010년 2.8%, 2011년 2.1%, 2012년 1.6%, 2012년 1.5%로 평균비율은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부채 잔액은 2007년 920.6만원, 2008년 1,072.4만원, 2009년 1,478.8만원, 2010년 1,359.8만원, 2011년 1,256.8만원, 2012년 1,470.8만원, 2013년 1,494.8만원으로 6년 동안 574.2만원이 증가하고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이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5차년도 조사부터 신규 삽입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닌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의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삽입한 문항이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011년 1.9%, 2012년 1.8% 2013년 1.9% 수준이었으며, 해당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1,567.1만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채의 경우 사채나, 계 등의 사적으로 빌린 돈을 의미하는데, 그 비율은 낮았으나 부채의 규모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2007년 2,882.9만원, 2008년 2,543.3만원, 2009년 2,443.0만원, 2010년 3,126.2만원, 2011년 2,049.9만원 그리고 2012년에는 3,919.1만원으로 2012년에 기타 부채 잔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2013년은 2,400.5만원으로

201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마다 평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항목의 부채의 경우 부채가 있는 가구 수가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X-6>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부채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지원 주택자금	보유유무	6.8	6.9	2.9	3.0	2.5	2.2	2.1
	평균 금액	4,306.3	5,600.2	4,120.6	5,042.5	6,296.3	5,454.8	4,871.2
	(중앙값)	3,000.0	3,500.0	3,000.0	4,000.0	4,700.0	4,000.0	4,000.0
학자금	보유유무	3.1	3.8	2.9	2.8	2.1	1.6	1.5
	평균 금액	920.6	1,072.4	1,478.8	1,359.8	1,256.8	1,470.8	1,494.8
	(중앙값)	6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보유유무	-	-	18.7	19.6	18.2	18.5	18.4
	평균 금액	-	-	8,001.9	8,657.2	8,157.0	8,931.6	9,459.8
	(중앙값)	-	-	(5,000.0)	(5,000.0)	(5,000.0)	(6,000.0)	(6,500.0)
금융기관 대출	보유유무	34.3	35.9	21.5	18.7	16.2	13.8	14.3
	평균 금액	6,174.9	5,813.3	3,995.4	4,142.7	4,430.2	5,400.2	5,129.2
	(중앙값)	(3,000.0)	(3,000.0)	(2,000.0)	(2,000.0)	(2,500.0)	(2,000.0)	(3,000.0)
신용카드 관련 대출	보유유무	-	-	-	-	1.9	1.8	1.9
	평균 금액	-	-	-	-	1,385.6	1,490.4	1,825.2
	(중앙값)	-	-	-	-	(700.0)	(700.0)	(1,000.0)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보유유무	11.3	15.3	16.4	16.2	15.3	15.4	14.3
	평균 금액	7,530.9	7,808.9	7,648.9	8,855.9	9,763.2	10,525.4	10,743.3
	(중앙값)	(4,500.0)	(5,000.0)	(5,000.0)	(6,000.0)	(6,000.0)	(6,500.0)	(6,000.0)
기타	보유유무	5.6	1.9	3.4	2.8	2.9	2.5	1.6
	평균 금액	2,882.9	2,543.3	2,443.0	3,126.2	2,049.9	3,919.1	2,400.5
	(중앙값)	(1,500.0)	(1,000.0)	(1,400.0)	(1,800.0)	(1,500.0)	(2,000.0)	(1,1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가구 특성별 자산 및 부채 현황

가구의 특성별로 자산 규모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규모는 각 가구의(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자산총액을 평균한 것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인 가구의 자산이 29,600.7만원으로 여성 가구 보다 15,880.7만원 더 많았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은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32,876.2만원으로 보유액이 가장 많았는데, 20대 가구주 가구에서는 8,367.1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구주 연령 간의 차이가 24,509.1만원이었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자산규모는 고용원을 둔 사업자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2013년 기준 52,680.3만원) 나타났다. 전체 조사기간의 평균 자산보유액은 51,003.6만원 이었으며, 이는 다른 특성 집단과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원수에 따른 자산 규모는 4명이상 가구에서 2013년 기준 31,890.8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 자산 규모가 가장 컸는데, 2013년 기준 33,717.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lt;표 IX-7&gt; 가구 특성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총자산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23,641.4 (11,780)	24,085.8 (12,880)	24,300.0 (13,300)	27,903.8 (15,660)	26,843.1 (16,100)	28,466.6 (17,700)	29,600.7 (19,000)
	여성	11,957.4 (4,290)	10,677.3 (4,000)	10,322.9 (4,070)	12,676.4 (5,000)	13,742.6 (5,000)	12,775.4 (5,200)	13,720.1 (5,650)
가구주 연령	20대	6,821.0 (3,200)	7,270.6 (3,100)	8,498.3 (3,500)	7,401.0 (4,500)	6,682.0 (3,500)	6,381.9 (3,000)	8,367.1 (2,240)
	30대	18,361.3 (10,200)	18,241.9 (10,500)	18,605.9 (11,300)	19,829.2 (12,500)	17,727.2 (12,500)	18,036.3 (12,740)	17,606.3 (13,480)
	40대	25,918.6 (13,100)	24,731.1 (14,000)	23,962.7 (13,229)	27,667.9 (15,200)	25,228.0 (14,500)	27,083.9 (17,000)	27,735.6 (18,500)
	50대	25,778.2 (12,300)	26,893.8 (13,100)	26,782.2 (14,200)	32,530.4 (16,620)	32,735.9 (17,620)	31,069.6 (18,100)	32,876.2 (17,500)
	60대 이상	19,193.8 (8,000)	18,505.2 (8,000)	18,299.4 (8,000)	21,792.8 (10,000)	20,718.0 (10,000)	22,032.4 (10,200)	23,228.7 (11,000)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2,170.4 (12,000)	22,389.0 (12,800)	22,340.6 (13,100)	25,455.1 (15,100)	24,305.4 (15,000)	25,784.4 (16,100)	26,662.0 (18,240)
	일용근로자	7,154.0 (3,750)	7,507.8 (3,600)	7,223.9 (3,620)	9,022.6 (4,200)	7,820.3 (3,700)	9,188.9 (5,000)	10,635.2 (4,00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20,130.9 (10,000)	19,960.5 (10,200)	20,775.5 (11,000)	24,636.6 (13,000)	24,555.1 (13,078)	24,547.8 (14,000)	25,277.4 (15,000)
	고용원 둔 사업자	47,346.3 (25,000)	49,121.6 (27,540)	47,241.2 (25,000)	56,324.2 (30,720)	52,817.0 (34,050)	51,494.7 (38,600)	52,680.3 (34,100)
	무급가족 종사자	24,110.9 (23,400)	24,307.4 (15,000)	36,139.7 (15,000)	31,570.5 (24,030)	32,498.3 (26,000)	33,628.9 (18,000)	31,602.2 (22,000)
	기타	19,095.6 (7,300)	17,616.6 (6,500)	17,714.2 (6,200)	19,539.6 (8,000)	18,631.2 (7,030)	19,797.6 (8,000)	20,161.1 (8,050)
가구원수	1명	6,600.8 (2,200)	7,093.8 (2,600)	6,577.9 (2,900)	8,825.8 (4,000)	8,581.9 (3,500)	9,602.8 (3,500)	10,719.1 (3,600)
	2명	20,955.4 (9,500)	20,401.3 (9,608)	20,333.5 (10,200)	22,409.5 (11,000)	23,704.7 (11,500)	25,425.2 (14,000)	25,497.2 (14,700)
	3명	21,644.9 (10,750)	20,818.6 (11,160)	21,928.8 (12,000)	26,879.4 (15,080)	25,658.8 (15,000)	26,937.3 (15,950)	29,227.6 (18,500)
	4명이상	27,463.0 (15,000)	28,408.2 (16,300)	28,069.7 (16,500)	31,673.7 (18,700)	30,696.0 (20,000)	31,110.1 (21,000)	31,890.8 (21,62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8,912.1 (16,100)	28,165.8 (17,000)	28,595.4 (17,700)	32,850.0 (20,500)	31,317.4 (20,500)	31,790.2 (21,000)	33,717.9 (23,000)
	전세	16,043.4 (8,000)	17,764.3 (8,360)	17,926.3 (8,000)	21,424.3 (10,000)	22,535.1 (10,300)	21,803.6 (10,000)	21,743.5 (10,830)
	보증부월세	4,164.4 (1,000)	3,841.7 (1,140)	3,704.3 (1,180)	4,880.5 (1,500)	4,859.8 (1,960)	5,090.0 (1,780)	5,629.5 (2,000)
	무보증월세	1,058.6 (10)	3,473.0 (50)	1,168.8 (30)	1,831.5 (20)	1,716.0 (0)	1,262.1 (0)	2,140.8 (150)
	무상거주	- -	- -	- -	- -	- -	11,324.6 (1,200)	10,518.8 (1,000)
	기타	7,610.5 (500)	8,311.4 (950)	7,282.5 (900)	8,064.0 (1,000)	7,253.5 (860)	44.1 (0)	-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다음으로 부채 잔액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인 가구의 부채 잔액이 4,782.7만원으로 여성 가구(2,146.2만원) 보다 2,636.4만원 더 많았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은 40대 가구주 가구에서 5,958.9만원으로 부채액이 가장 많았는데, 다음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령 집단은 50대 가구주 가구로 4,786.5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부채 총액은 고용원을 둔 사업자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2013년 기준 10,231.4만원) 나타났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부채총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일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이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 가구에서도 부채총액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2011년(9,058.7만원)에 들어서면서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원수에 따른 부채 보유 총액은 4명이상 가구에서 2013년 기준 6,335.2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 부채 규모가 가장 컸는데, 2013년 기준 4,776.6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전세인 경우에도 부채 보유액이 높은 편이었는데, 2013년 기준 4,526.6만원이었다. '무상거주' 가구는 5차년도 조사까지 응답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7차년도 조사결과에서는 2,295.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나 '월세(보증부 1,681.0만원, 무보증 1,461.2만원) 거주 가구보다 높은 부채 보유현황을 보였다.

&lt;표 IX-8&gt; 가구 특성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부채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3,783.9 (500)	4,261.5 (800)	4,049.0 (600)	4,551.3 (500)	4,508.4 (500)	4,645.3 (0)	4,782.7 (0)
	여성	2,142.8 (0)	1,836.0 (0)	1,504.2 (0)	2,051.9 (0)	2,384.3 (0)	2,190.0 (0)	2,146.2 (0)
가구주 연령	20대	947.2 (0)	1,227.5 (0)	1,376.3 (0)	1,141.0 (0)	844.4 (0)	1,254.8 (0)	1,265.5 (0)
	30대	3,771.7 (1,000)	4,262.8 (1,000)	4,122.5 (1,200)	4,225.2 (1,000)	3,911.1 (900)	3,443.2 (0)	3,539.1 (0)
	40대	4,534.8 (1,000)	4,905.0 (1,200)	4,620.4 (700)	5,618.2 (1,200)	5,283.5 (600)	5,887.6 (280)	5,958.9 (750)
	50대	3,906.8 (300)	4,228.7 (700)	3,753.4 (500)	4,607.7 (300)	5,085.9 (500)	4,782.4 (0)	4,786.5 (400)
	60대 이상	2,140.5 (0)	2,002.0 (0)	1,687.9 (0)	1,974.6 (0)	2,010.5 (0)	2,217.2 (0)	2,208.6 (0)
	가구원수	1명	773.1 (0)	1,125.2 (0)	742.7 (0)	934.1 (0)	924.6 (0)	1,075.9 (0)
	2명	2,539.9 (0)	2,572.1 (0)	2,166.5 (0)	3,125.8 (0)	3,292.9 (0)	2,911.8 (0)	3,217.4 (0)
	3명	3,417.7 (300)	3,635.7 (600)	3,643.8 (830)	4,418.8 (1000)	4,376.4 (1000)	4,802.6 (700)	4,949.2 (600)
	4명이상	5,225.9 (1,600)	5,741.7 (2,000)	5,452.3 (2,000)	5,710.8 (2,000)	6,120.7 (2,000)	6,448.0 (2,000)	6,335.2 (2,000)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322.0 (300)	3,771.5 (800)	3,881.0 (800)	4,380.2 (700)	4,489.6 (500)	4,539.9 (0)	4,929.1 (230)
	일용근로자	1,403.2 (0)	1,782.3 (0)	1,392.7 (0)	1,635.6 (0)	1,211.3 (0)	1,759.6 (0)	1,523.5 (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4,079.4 (500)	4,242.0 (500)	3,757.1 (200)	3,928.8 (200)	3,926.6 (0)	3,761.4 (0)	3,796.4 (0)
	고용원 둔 사업자	9,544.4 (2,000)	9,498.0 (2,500)	9,203.7 (3,000)	11,393.1 (3,000)	12,224.8 (4,000)	11,472.2 (4,500)	10,231.4 (5,000)
	무급가족 종사자	3,344.1 (3,000)	4,070.0 (1,000)	4,252.9 (2,000)	5,113.4 (950)	9,058.7 (2,500)	8,424.4 (2,600)	6,353.2 (2,000)
	기타	2,132.5 (0)	2,291.6 (0)	1,521.1 (0)	1,982.2 (0)	1,701.8 (0)	2,218.7 (0)	1,825.3 (0)
	주가	3,920.6 (500)	4,281.1 (1,000)	4,200.4 (1,000)	4,463.9 (780)	4,655.9 (600)	4,835.7 (0)	4,776.6 (300)
주택 점유 형태	전세	3,283.0 (0)	3,886.2 (0)	3,472.9 (0)	4,879.3 (0)	4,206.8 (0)	3,918.4 (0)	4,526.6 (0)
	보증부월세	2,280.5 (0)	1,862.6 (0)	1,248.3 (0)	1,410.2 (0)	2,009.8 (0)	1,618.1 (0)	1,681.0 (0)
	무보증월세	943.5 (0)	1,148.1 (0)	892.4 (0)	2,572.1 (0)	983.4 (0)	478.6 (0)	1,461.2 (0)
	무상거주	- -	- -	- -	- -	- -	2,484.6 (0)	2,295.3 (0)
	기타	2,379.0 (0)	2,688.3 (0)	2,245.4 (0)	2,219.7 (0)	2,283.8 (0)	34.3 (0)	-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괄호안은 중앙값임

마지막으로 순자산 보유현황을 살펴보겠다.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인 가구의 순자산은 24,818.0만원으로 여성 가구(11,573.8만원) 보다 13,244.2만원 더 많았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은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28,089.6 만원으로 순자산 규모가 가장 컸는데, 순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20대 가구(7,101.6만원)와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순자산 규모는 고용원을 둔 사업자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2013년 기준 42,448.9만원) 나타났다. 다음은 무급가족종사자(25,249.0만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1,481.1만원) 순이었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을 둔 사업자 순자산의 절반 가량의 21,732.9만원 규모였다. 가구원수에 따른 순자산 총액은 4명이상 가구에서 2013년 기준 25,555.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 순자산 규모가 가장 컸는데, 2013년 기준 28,941.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구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볼 때,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40~50대인 경우, 가구주가 고용원을 둔 사업자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서 총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 또한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평균 순 자산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lt;표 IX-9&gt; 가구 특성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순자산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주 성별	남성	19,857.5 (9700)	19,824.3 (10000)	20,251.0 (10860)	23,352.5 (12700)	22,334.7 (12900)	23,821.3 (14500)	24,818.0 (15700)
	여성	9,814.5 (3830)	8,841.3 (3500)	8,818.7 (3520)	10,624.4 (4500)	11,358.3 (4220)	10,585.4 (4600)	11,573.8 (5000)
가구주 연령	20대	5,873.7 (2620)	6,043.0 (3000)	7,121.9 (3000)	6,260.0 (4200)	5,837.6 (2200)	5,127.1 (3000)	7,101.6 (1900)
	30대	14,589.7 (8300)	13,979.1 (8000)	14,483.4 (8800)	15,604.0 (10000)	13,816.1 (10000)	14,593.1 (9800)	14,067.3 (10100)
	40대	21,383.8 (10300)	19,826.1 (11000)	19,342.3 (10890)	22,049.7 (12000)	19,944.5 (12000)	21,196.3 (13500)	21,776.7 (15000)
	50대	21,871.4 (10800)	22,665.1 (10200)	23,028.9 (11800)	27,922.7 (15000)	27,650.0 (14524)	26,287.2 (16000)	28,089.6 (15300)
	60대 이상	17,053.4 (7100)	16,503.2 (7000)	16,611.5 (7000)	19,818.2 (9000)	18,707.4 (8900)	19,815.1 (9920)	21,020.1 (10100)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8,848.3 (10000)	18,617.5 (10200)	18,459.6 (10800)	21,074.9 (12500)	19,815.8 (11720)	21,244.5 (13444)	21,732.9 (14620)
	일용근로자	5,750.8 (3000)	5,725.5 (3000)	5,831.3 (2500)	7,387.0 (4000)	6,608.9 (3390)	7,429.4 (4000)	9,111.8 (326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6,051.4 (7500)	15,718.5 (8000)	17,018.4 (9500)	20,707.8 (10800)	20,628.4 (10400)	20,786.3 (11260)	21,481.1 (12200)
	고용원 둔 사업자	37,801.9 (18260)	39,623.7 (18000)	38,037.6 (17900)	44,931.1 (21500)	40,592.2 (24300)	40,022.5 (25500)	42,448.9 (27500)
	무급가족 종사자	20,766.7 (14400)	20,237.4 (12500)	31,886.7 (13000)	26,457.1 (23030)	23,439.5 (17000)	25,204.5 (15000)	25,249.0 (13000)
	무직	16,963.0 (6500)	15,325.0 (5050)	16,193.1 (5400)	17,557.4 (7000)	16,929.4 (6000)	17,578.9 (7200)	18,335.9 (7200)
가구원수	1명	5,827.7 (2000)	5,968.6 (2440)	5,835.2 (2500)	7,891.7 (3640)	7,657.2 (3100)	8,526.8 (3400)	9,707.3 (3500)
	2명	18,415.5 (8000)	17,829.2 (8100)	18,167.0 (9000)	19,283.7 (9880)	20,411.7 (10500)	22,513.4 (12000)	22,279.9 (12500)
	3명	18,227.2 (9000)	17,182.9 (9000)	18,285.0 (10000)	22,460.6 (12100)	21,282.4 (11350)	22,134.6 (13300)	24,278.4 (15300)
	4명이상	22,237.2 (12000)	22,666.5 (12320)	22,617.5 (13200)	25,962.9 (15370)	24,575.4 (15840)	24,662.2 (17000)	25,555.7 (175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4,991.5 (13300)	23,884.7 (13530)	24,395.0 (14000)	28,386.1 (17500)	26,661.5 (17000)	26,954.5 (18000)	28,941.3 (19480)
	전세	12,760.4 (6600)	13,878.1 (6876)	14,453.4 (7000)	16,544.9 (8000)	18,328.3 (8712)	17,885.2 (9000)	17,216.9 (9600)
	보증부월세	1,883.9 (700)	1,979.1 (800)	2,456.0 (1000)	3,470.3 (1140)	2,850.0 (1300)	3,471.9 (1500)	3,948.6 (1500)
	무보증월세	115.0 (0)	2,324.9 (0)	276.5 (0)	- 740.6 (0)	732.6 (0)	783.5 (0)	679.6 (0)
	무상거주	- -	- -	- -	- -	- -	8,840.0 (800)	8,223.6 (620)
	기타	5,231.4 (400)	5,623.1 (500)	5,037.0 (100)	5,844.3 (700)	4,969.6 (500)	9.8 (0)	-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다. 가구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가구 소득분위별로 가구 내 총 자산 규모를 살펴보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분위는 12,288.6만원, 2분위 15,248.1만원, 3분위 21,308.6만원, 4분위 27,439.0만원, 5분위 49,626.2만원의 수준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자산 보유 규모 차이는 평균 36,978.5만원(2007년 34,554.8만원, 2008년 36,128.1만원, 2009년 33,262.7만원, 2010년 42,190.9만원, 2011년 37,943.0만원, 2012년 37,432.3만원, 2013년 37,337.7만원)으로 가장 격차가 심한 해는 2010년(42,190.9만원)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1분위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에 약감 감소하였으나 2013년의 경우 12,288.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증가 폭이 가장 큰 소득분위는 3분위로 2013년 총자산은 2007년 대비 5,743.1만원이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0> 가구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 총자산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9,786.1 (3,750)	9,138.9 (4,000)	10,007.2 (4,000)	11,123.6 (4,800)	9,959.0 (4,300)	9,886.3 (5,000)	12,288.6 (5,000)
2분위	10,787.8 (5,000)	12,285.9 (5,450)	11,874.9 (6,000)	13,106.3 (6,720)	14,090.8 (6,480)	15,210.4 (7,860)	15,248.1 (7,500)
3분위	15,565.5 (8,519)	16,501.0 (9,240)	17,355.7 (9,500)	19,857.4 (11,038)	19,918.9 (12,300)	19,036.7 (12,000)	21,308.6 (12,500)
4분위	23,426.3 (13,500)	22,109.4 (14,500)	23,928.8 (15,000)	25,926.3 (17,300)	25,284.5 (16,000)	30,020.5 (18,200)	27,439.0 (21,200)
5분위	44,340.9 (26,646)	45,267.1 (30,500)	43,270.0 (28,250)	53,314.5 (36,170)	47,902.0 (33,700)	47,318.6 (35,000)	49,626.2 (34,02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다음으로 가구 소득분위별 가구 내 총 부채규모를 살펴보았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분위별 부채 잔액은 1분위 1,277.4만원, 2분위 2,061.1만원, 3분위 2,867.5만원, 4분위 4,992.0만원, 5분위 9,019.6만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부채 보유 규모 차이는 평균 약 6,772.2만원(2007년 5,910.9만원, 2008년 6,243.5만원, 2009년 5,467.6만원, 2010년 7,269.2만원, 2011년 7,234.0만원, 2012년 7,538.1만원, 2013년 7,742.2만원)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채 보유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가장 부채가 많았던 해는 2009년으로 1,686.5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2분위에서는 2012년 부채(2,284.3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3분위는 2008년에 부채(3,464.0만원)가 가장 높았다. 4분위와 5분위는 모두 2013년의 부채규모가 가장 컸다.

&lt;표 IX-11&gt; 가구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 부채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1,321.8 (0)	1,616.4 (0)	1,686.5 (0)	1,646.6 (0)	1,324.4 (0)	1,233.8 (0)	1,277.4 (0)
2분위	1,989.8 (0)	1,862.3 (0)	1,664.6 (0)	2,055.0 (0)	2,038.8 (0)	2,284.3 (0)	2,061.1 (0)
3분위	2,545.2 (200)	3,464.0 (600)	2,697.8 (300)	3,270.3 (100)	3,108.3 (0)	2,766.7 (0)	2,867.5 (0)
4분위	3,937.1 (1,000)	3,709.9 (1,000)	4,152.3 (1,300)	4,244.4 (1,400)	4,790.4 (1,000)	4,948.6 (800)	4,992.0 (1,000)
5분위	7,232.7 (2,000)	7,859.9 (3,000)	7,154.1 (2,800)	8,915.8 (3,000)	8,558.4 (3,500)	8,771.9 (3,000)	9,019.6 (3,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분위별로 가구 내 순자산 규모를 살펴보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분위는 11,011.2만원, 2분위 13,187.0만원, 3분위 18,441.1만원, 4분위 22,447.0만원, 5분위 40,606.7만원의 수준으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순자산 보유 규모 차이는 평균 약 30,206.3만원(2007년 28,643.9만원, 2008년 29,884.7만원, 2009년 27,795.2만원, 2010년 34,921.7만원, 2011년 30,708.9만원, 2012년 29,894.3만원, 2013년 29,595.5만원)으로 가장 격차가 심한 해는 자산 규모의 차이가 가장 컸던 2010년(34,921.7만원)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1분위의 경우 2008년 순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2010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엿으며 2013년은 11,011.2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증가폭이 가장 큰 소득분위는 자산과 마찬가지로 3분위에서 나타났는데, 2013년 총자산은 2007년 대비 5,420.8만원이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는 7년간 순자산 증가폭이 3,498.4원으로 나타났다.

&lt;표 IX-12&gt; 가구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 순자산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위	8,464.4 (3300)	7,522.5 (3130)	8,320.7 (3300)	9,477.0 (4240)	8,634.6 (4000)	8,652.5 (4300)	11,011.2 (4900)
2분위	8,798.0 (3800)	10,423.6 (4340)	10,210.4 (5000)	11,051.3 (5930)	12,052.0 (5500)	12,926.1 (6600)	13,187.0 (6000)
3분위	13,020.3 (6880)	13,036.9 (7580)	14,657.8 (8000)	16,587.1 (9500)	16,810.6 (10000)	16,269.9 (9670)	18,441.1 (10300)
4분위	19,489.1 (11180)	18,399.5 (11136)	19,776.5 (12000)	21,681.8 (14000)	20,494.1 (13000)	25,071.9 (15000)	22,447.0 (17120)
5분위	37,108.2 (22000)	37,407.1 (24000)	36,115.9 (23800)	44,398.7 (28500)	39,343.6 (27200)	38,546.8 (27500)	40,606.7 (29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괄호안은 중앙값임

## VI. 가구원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 조사에서 가구원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고자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년도 당시 5월 기준 경제활동 상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른 문항과 달리 이 항목만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소득활동 유무와, 소득 활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용, 주로 하는 일, 근무시간 형태, 근로 일수 및 시간에 대하여 조사한다. 비소득활동자의 경우 구직활동 유무를 확인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경우 구직 활동 사유 및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며, 반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조사하고 있다.

### 1. 조사시점 5월 기준 경제활동 현황

#### 가. 연도별 소득활동 현황

가구원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득활동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시점(당해년도 5월 1일 기준)의 소득활동 유무를 조사하였다. 이때 소득활동을 소득, 이익 등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나 앞선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09년 81.6%, 2010년 82.2%, 2011년 81.8%, 2012년 80.9%, 2013년 78.2%, 2014년 78.0%가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 조사년도 5월 기준 소득활동자 분포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년도 5월 기준 소득활동자	81.6	82.2	81.8	80.9	78.2	78.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각 연도별 가구원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 사업내용 및 주로 하는 일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도매 및 소매업 14.7%였다. 그 외 농업, 임업 및 어업은 8.8%, 교육 서비스업이 7.3%, 건설업 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1%로 6~8%대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활동자의 주로 하는 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사무 종사자가 2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서비스 종사자 15.9%순이었다. 단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 5차년도부터 응답 범주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차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VI-2> 조사년도 5월 기준 주된 일자리 - 사업내용 및 주로 하는 일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내용	농업, 임업 및 어업	7.4	6.6	7.6	8.2	9.3	8.8	
	광업	0.1	0.1	0.0	0.0	0.0	0.0	
	제조업	17.7	17.6	17.5	17.8	16.3	17.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9	1.8	1.7	1.7	2.1	1.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0.6	0.7	0.7	
	건설업	7.4	8.2	7.5	6.9	6.5	6.7	
	도매 및 소매업	11.8	11.3	12.4	14.6	14.7	14.7	
	운수업	4.8	4.8	4.2	4.5	4.2	4.2	
	숙박 및 음식점업	5.0	5.0	5.1	6.3	5.9	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7	2.0	2.6	2.2	2.5	2.0	
	금융 및 보험업	3.8	3.4	3.9	3.8	3.7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0.7	0.7	1.3	1.2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1.2	1.4	1.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5	3.7	3.4	5.2	5.5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8	5.4	5.7	5.6	6.1	6.3	
	교육 서비스업	6.9	7.7	7.4	7.3	7.0	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3.8	4.0	4.6	4.5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9	1.1	1.0	1.3	1.2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3	12.1	11.7	6.3	6.5	6.6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5.7	4.5	3.6	0.5	0.6	0.6	
	국제 및 외국기관	-	-	-	0.1	0.1	0.1	
	주로 하는 일	관리자	1.3	2.0	1.7	5.0	4.8	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0	7.9	7.8	7.6	7.3	7.3
		사무종사자	26.6	26.4	25.8	24.0	22.9	23.8
서비스종사자		26.7	23.7	25.9	15.2	14.7	15.9	
판매종사자		0.0	0.0	0.0	11.6	11.9	10.8	
농림어업종사자		7.3	5.9	6.9	7.1	8.5	7.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1	20.6	20.3	13.6	13.6	12.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7	10.2	9.1	5.2	5.1	5.6	
단순노무 종사자		0.0	0.0	0.0	9.8	10.5	10.8	
직업군인		0.0	0.0	0.0	0.3	0.4	0.5	
기타취업		2.4	3.3	2.7	0.7	0.3	0.4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각 연도별 해당년도 5월 1일 기준 소득활동자를 대상으로 함

소득활동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취업형태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뉘어 조사하였다. 여기서 임금 근로자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로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다면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임금 노동자로 분류하였다. 예를들어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돕는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는다면 임금 노동자로 분리하였다. 분석결과 차수별 평균 68.6%이 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추세는 감소하여 2013년의 경우 67.4%로 2008년 70.6%에서 약3%p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는 근로 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하루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이 상용직이 종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순이었다. 여기서 임시직의 경우 2012년 까지 10%이하가 이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10%대(10.5%)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근로 일수의 경우 4차년도 조사부터 조사하였는데 평균적으로 5.4일 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값은 5일로 조사되었다.

<표 VI-3> 조사년도 5월 기준 주된 일자리 - 취업형태,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70.3	70.6	68.0	68.5	67.0	67.4
	비임금근로자	29.7	29.4	32.0	31.5	33.0	32.6
종사상 지위	상용직	52.2	52.5	52.4	51.4	50.3	50.3
	임시직	8.3	8.9	7.1	9.2	8.5	10.5
	일용직	9.8	9.2	8.4	7.9	8.2	6.6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23.5	23.9	23.1	23.2	25.1	24.1
	고용원을 둔 사업주	5.4	4.7	4.8	4.5	4.1	4.3
	무급 가족 종사자	0.8	0.8	4.2	3.8	3.8	4.3
전체 근로일수	평균	-	-	5.5	5.4	5.4	5.4
	중앙값	-	-	(6.0)	(5.0)	(5.0)	(5.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4차조사 이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분 없이 하나의 문항으로 종사상지위를 조사함

3: 4차조사 이후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

## 나. 연도별 비소득활동 현황

조사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비소득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9년 18.4%, 2010년 17.8%, 2011년 18.2%, 2012년 19.1%, 2013년 21.8%, 2014년 22.0%로 점점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10명 중 9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 구직활동자와 비 활동자의 격차(78.6%p)에 비하여 약간 증가한 83.5%p로 조사되었다.

&lt;표 VI-4&gt; 조사년도 5월 기준 소득활동자 분포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년도 5월 기준 비소득활동자		18.4	17.8	18.2	19.1	21.8	22.0
구직활동 유무	찾고있음	10.7	8.9	9.4	9.6	8.3	8.2
	찾고 있지 않음	89.3	91.1	90.6	90.4	91.7	9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연도별 해당년도 5월 1일 기준 비소득 활동자를 대상으로 함

비소득 활동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2009년 10.7%, 2010년 8.9%, 2011년 9.4%, 2012년 9.6%, 2013년 8.3%, 2014년 8.2%)의 구직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이 생활비 획득을 위하여 구직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자기발전 순이었으며 그 외 사유에 대한 응답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하는 일자리의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가 2014년 83.3%로 비임금 근로자 16.7%에 비하여 높았다. 근로시간 형태의 경우 전일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2014년 기준 76.8%였으며 월평균 기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57.9만원(중앙값 1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lt;표 VI-5&gt; 조사년도 5월 기준 비소득활동자 중 구직활동 자 현황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구직활동 사유	생활비 획득	87.3	81.5	91.6	89.7	85.8	85.6
	가족의 실직	0.0	0.0	0.0	0.0	1.4	0.0
	자기발전	9.6	15.6	8.4	10.3	11.9	14.4
	학비마련	0.0	0.0	0.0	0.0	1.0	0.0
	기타	3.1	2.9	0.0	0.0	0.0	0.0
일자리의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81.5	70.7	80.6	88.6	85.8	83.3
	비임금근로자	18.5	29.3	19.4	11.4	14.2	16.7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79.5	74.6	81.4	85.4	76.3	76.8
	시간제	20.5	25.4	18.6	14.6	23.7	23.2
월평균 기대 소득	평균	139.4	163.7	138.6	161.4	154.8	157.9
	증양값	(100.0)	(120.0)	(120.0)	(150.0)	(150.0)	(15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연도별 해당년도 5월 1일 기준 비소득 활동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한편, 비소득활동자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비 소득 활동자 중 2009년 89.3%, 2010년 91.1%, 2011년 90.6%, 2012년 90.4%, 2013년 91.7%, 2014년 91.8%)를 대상으로 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2009년 54.4%, 2010년 56.1%, 2011년 57.4%, 2012년 56.3%, 2013년 51.2%, 2014년 58.8%)으로 응답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은퇴, 가사일, 순이었으며 나머지 미취학 아동의 육아, 학업, 가구소득이 충분히 많음,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대한 응답은 5%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표 VI-6> 조사년도 5월 비소득활동자의 구직하지 않는 사유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업	2.4	1.1	0.8	0.5	2.5	1.2
미취학아동육아	1.4	2.6	3.1	2.0	9.7	3.4
가사일	11.4	14.2	12.5	13.7	13.2	13.0
은퇴	23.9	20.4	20.7	21.5	17.2	19.6
건강상의 이유	54.4	56.1	57.4	56.3	51.2	58.8
가구소득이 충분	1.5	1.4	1.6	1.6	1.2	1.4
휴직	-	-	-	-	0.3	0.5
기타	5.0	4.1	4.0	4.3	4.7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연도별 해당년도 5월 1일 기준 비소득 활동자 중 구직의사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 다. 가구원 특성별 소득활동 현황 비교

해당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2009년 81.6%, 2010년 82.2%, 2011년 81.8%, 2012년 80.9%, 2013년 78.2%, 2014년 78.0%)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62.2%로 여자(37.8%)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9년 남녀 성별 격차는 31.8%p에서 점점 감소하여 2013년의 경우

20%p미만의 수준(18.1%p)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과반 이상이 30~4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2010년의 경우 20대 이하보다 60대 이상의 소득 활동자가 약간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도 부터는 60대의 비율이 좀 더 높아져 2014년도의 경우 20대 이하 6.4%, 60대 이상 16.4%로 약 9.9%p 차이가 났다. 학력분포는 모든 차수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약 45%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고졸, 중졸 이하 순이었다. 또한 해당 가구원이 포함되어있는 가구 소득 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3~5분위 20%대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1~2분위의 경우 20%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가구원 특성은 해당년도 5월 1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그 전 년도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해야한다.

<표 VI-7> 조사년도 5월 기준 소득활동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별	남자	65.9	64.9	63.0	60.2	60.1	59.1
	여자	34.1	35.1	37.0	39.8	39.9	40.9
연령대	20대 이하	14.1	11.9	10.2	9.2	6.8	6.4
	30대	29.1	29.7	30.1	29.4	24.8	23.4
	40대	28.4	28.6	28.4	28.1	34.0	35.0
	50대	17.8	18.9	20.4	21.5	18.6	18.8
	60대 이상	10.6	10.9	11.0	11.7	15.8	16.4
최종학력	중졸이하	18.9	16.9	16.7	17.0	18.1	17.4
	고졸	37.2	37.3	37.0	37.4	37.1	37.3
	대졸이상	44.0	45.7	46.2	45.6	44.8	45.3
가구소득 분위	1분위	9.5	10.2	9.8	9.4	10.0	8.5
	2분위	17.4	17.8	18.5	18.7	16.3	16.8
	3분위	21.4	21.5	19.9	19.8	20.1	20.9
	4분위	24.1	23.6	24.2	24.5	25.3	25.3
	5분위	27.7	26.9	27.6	27.7	28.3	28.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해당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2009년 18.4%, 2010년 17.8%, 2011년 18.2%, 2012년 19.1%, 2013년 21.8%, 2014년 22.0%)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63.2%로 남자(36.8%)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경우가 모든 차수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60대 이상의 비율은 80.1%였으나 점점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 85.3%로 약 5%p 증가하였다. 학력분포는 모든 차수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평균 67.9%로 상대적

으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당 가구원이 포함되어있는 가구 소득 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2008년 46.9%, 2009년 44.8%, 2010년 46.5%, 2011년 44.8%, 2012년 42.9%, 2013년 42.6%로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하여 높았다. 반면 4~5분위의 경우는 약 10%정도의 분포를 보여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표 VI-8> 조사년도 5월 기준 비소득활동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별	남자	39.0	37.9	40.0	38.9	37.5	36.8
	여자	61.0	62.1	60.0	61.1	62.5	63.2
연령대	20대 이하	4.2	2.6	2.1	2.4	2.1	2.3
	30대	4.9	4.6	4.1	4.1	3.7	2.0
	40대	3.6	3.6	5.8	4.2	6.2	4.9
	50대	7.3	7.2	7.5	7.7	5.6	5.6
	60대 이상	80.1	82.0	80.5	81.6	82.4	85.3
최종학력	중졸이하	69.9	69.4	67.5	67.9	65.4	67.2
	고졸	19.8	18.1	19.2	18.5	21.0	20.2
	대졸이상	10.3	12.5	13.4	13.6	13.6	12.6
가구소득 분위	1분위	46.9	44.8	46.5	44.8	42.9	42.6
	2분위	19.1	20.9	20.5	23.7	21.7	23.8
	3분위	12.8	14.5	13.0	11.0	14.2	14.4
	4분위	9.6	10.0	9.8	10.6	12.4	10.7
	5분위	11.6	9.8	10.1	10.0	8.8	8.5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VII. 이력조사

재정패널 조사는 출산이력 조사 및 직업이력 조사를 2012년(6차년도)에 부가조사의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출산이력조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가구 내 가구원 중 출산 경험이 있는지 가구 조사에서 조사하였다. 다만 현재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여성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거 가구원이었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산된 가구원의 부모가 가구원이 아니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직업이력의 경우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험한 일자리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1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무급가족 종사자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한 시점동안 두 가지 직업에 종사한 경우는 주된 일자리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종사상 지위가 변경된 경우 일자리가 종료되기 직전 한달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이 변화했을 경우 근무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력 조사에서도 모름·무응답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 출산이력

출산이력은 출산에 대한 정보 및 출산 가구원의 근로정보, 출산 아동의 보육시설 및 돌봄 상태,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출산 이력의 경우 가구 조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가구원 단위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 가. 2008~2011년 출산 이력 현황

조사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산을 경험하였는지 살펴보면 3.5%가 가구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구원을 대상으로 출산 시기를 살펴보면 2008년 23.3%, 2009년 24.7%, 2010년 23.0%, 2011년 29.1%로 조사되었다. 분만 형태의 경우 10명 중 7명 자연분만(73.2%)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제왕절개(27.8%)순 이었다.

출산 경험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수유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모유수유를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이가 과반(58.7%)을 넘었고, 이들의 수유 기간은 약 9.9주(중앙값 12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혼합수유가 32.6%, 분유가 8.8%순 이었다.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에 대해서는 45.2%가 이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가구원이 지출한 총 비용은 평균 143.0(중앙값: 14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기간은 약 2주였다.

&lt;표 X-1&gt; 2008~2011년 출산 이력(복수응답)

구분		2008~2011년 출산이력
출산유무		3.5
출산 시기 (%)	2008년	23.3
	2009년	24.7
	2010년	23.0
	2011년	29.1
분만형태 (%)	자연분만	72.2
	제왕절개	27.8
	기타	-
수유 (개월)	모유수유	58.7
	수유 기간	9.9(12.0)
	분유	8.8
	혼합수유	32.6
	수유 기간	5.9(6.0)
산후조리원	이용유무(%)	45.2
	지출 비용(만원)	143.0(140.0)
	이용 기간(주)	2.2(2.0)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출산 가구원 취업 상태

### 1) 출산 전 취업상태

출산 경험이 있는 가구원(3.5%)을 대상 2008~2011년 출산 이전 취업 상태에 있었던 가구원은 26.1%이었다. 또한 이 가구원을 대상으로 출산 휴직제도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29.9%), 이용안함(27.7%)순 이었다

&lt;표 X-2&gt; 2008~2011년 출산 휴직제도 이용 현황

단위(%)		2008~2011년 출산이력
출산 이전 취업		26.1
출산 휴직제도이용	출산휴가	33.8
	육아휴직	8.7
	출산 휴가 + 육아휴직	29.9
	이용안함	27.7

주1: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휴직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유급휴직일 경우 평균 5.8(3.0)주, 무급휴가의 경우 6.4(3.0)주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급휴직 중 월평균 급여는 평균 131.6만원(중앙값110.0)만원 수준이었다.

<표 X-3> 2008~2011년 휴직제도 이용 기간 및 월평균 급여

구분		2008~2011년 출산이력
휴직 이용기간(주)	유급휴직	5.8 (3.0)
	무급휴직	6.4 (3.0)
유직 휴직 월평균 급여(만원)		131.6 (11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출산 후 취업상태

출산한 가구원의 출산 후 취업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취업이 7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동일취업(20.7%), 비동일 취업(5.5%)순 이었다. 동일취업 가구원의 경우 일자리 근무 형태는 전일제가 94.3%거의 대부분이었다. 비동일 취업의 경우도 전일제 취업이 95.0%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미취업 가구원의 미취업 사유로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맡길 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36.5%), 직장생활과의 병행이 어려워서(12.9%)라고 응답하였다.

<표 X-4> 2008~2011년 출산 후 취업상태

단위(%)		2008~2011년 출산 후 취업상태
동일취업		20.7
근무시간형태	전일제	94.3
	시간제	5.7
비동일취업		5.5
근무시간형태	전일제	95.0
	시간제	5.0
취업 소요기간(개월)		17.6 (12.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lt;표 X-5&gt; 2008~2011년 출산 후 취업상태 (계속)

단위(%)		2008~2011년 출산 후 취업상태
미취업		73.9
미취업 사유	보육 기관 없음	47.9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	12.9
	일자리 구하지 못함	0.7
	일하고 싶지 않음	1.1
	아이 직적 육아	36.5
	가족이 원함	0.5
	건강상 이유	0.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다. 자녀 돌봄 상태

2008~2011년 동안 출산 경험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98.4%가 해당되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 가구원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형태를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 이용이 5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21.2%), 사립 유치원(14.3%)순 이었다.

&lt;표 X-6&gt; 2008~2011년 자녀 돌봄 상태

구분		2008~2011년 자녀 돌봄 상태
현재 보육시설 이용		98.4
보육 시설 형태 (%)	국공립 어린이집	21.2
	법인 어린이집	4.9
	민간 어린이집	51.1
	가정 어린이집	6.0
	직장 어린이집	0.4
	부모협동 어린이집	-
	국공립 유치원	2.2
	사립 유치원	14.3
월평균 지출비용(만원)		19.2 (14.0)
시설 이용 시간(주)		7.0 (7.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라. 자녀 양육 관련 의견 조사

가구에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 지급 정책이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양육 간 선택에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42.0%로(매우 그렇다 8.7% + 대체로 그렇다 33.3%) 부정적인 평가 (26.1%: 별로 그렇지 않다 18.2% + 전혀 그렇지 않다 7.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가 자녀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36.8%(매우 그렇다 4.3% + 대체로 그렇다 32.5%) , 부정적인 평가가 31.9%(별로 그렇지 않다 21.8% + 전혀 그렇지 않다 10.1%) 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어머니 취업활동에 대한 영향력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33.0%(별로 그렇지 않다 24.7% + 전혀 그렇지 않다 8.3%)로 긍정적인 평가(30.6%: 매우 그렇다 3.1% + 대체로 그렇다 27.5%) 보다 약간 높았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lt;표 X-7&gt; 2008~2011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평가

단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평가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양육 선택 영향	매우 그렇다	8.7
	대체로 그렇다	33.3
	보통	31.9
	별로 그렇지 않다	18.2
	전혀 그렇지 않다	7.9
추가 자녀 출산 긍정적 영향	매우 그렇다	4.3
	대체로 그렇다	32.5
	보통	31.3
	별로 그렇지 않다	21.8
	전혀 그렇지 않다	10.1
어머니 취업활동 긍정적 영향	매우 그렇다	3.1
	대체로 그렇다	27.5
	보통	36.4
	별로 그렇지 않다	24.7
	전혀 그렇지 않다	8.3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가 38.6%로 가장 많았고, 출산비 및 양육비 부담(27.8%)과 직장생활 병행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27.1%)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족(4.3%), 육아 관련 정보의 부족(1.7%), 기타(0.4%)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미만이었다.

<표 X-8> 2008~2011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평가

단위(%)	자녀 양육 어려움
출산비, 양육비 부담	27.8
교육비 부담	38.6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	27.1
보육시설 불만족	4.3
육아 관련 정보 부족	1.7
기타	0.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2. 직업이력

직업이력의 경우 2012년(6차년도)가구원 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서 진행되었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직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기준은 1개월 이상 지속된 직업이며, 각 일자리에 대한 사업내용 및 주된 활동, 사업장 종사자수,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사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외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예상 은퇴 연령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가. 2003~2013년 5월 직업 이력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직업 이력에 응답한 가구원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일자리 개수가 1개인 경우는 71.4%, 2개인 경우는 19.7%, 3개 6.3%, 4개 이상인 경우는 2.7%였다.

<표 X-9> 2008~2013년 직업 이력 현황(복수응답)

단위(%)	2003~2013년 5월 직업이력	
일자리 유무	86.0	
일자리 개수	1개	71.4
	2개	19.7
	3개	6.3
	4개 이상	2.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사업장의 종사사수는 1-4인이 46.3%로 가장 많았고, 종사상 지위의 경우 과반이 상용직(57.7%)에 종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X-10> 2008~2013년 직업 이력 현황(복수응답)

단위(%)		2003~2013년 5월 직업이력
일자리 유무		86.0
종사자 수	1-4인	46.3
	5-9인	14.7
	10-19인	13.4
	20-49인	14.1
	50-299인	18.0
	300인 이상	13.4
	공무원 군인 교원	3.6
종사상지위	상용직	57.7
	임시직	12.0
	일용직	1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7.5
	고용원을 둔 사업주	5.4
	무급가족종사자	4.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가구원 직업 은퇴 현황

비 은퇴자(80.0%)를 대상으로 예상 은퇴 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63.7세(중앙값 65세)로 응답하였다.

<표 X-11> 2008~2013년 은퇴 현황

구분	2003~2013년 5월 은퇴 현황
현재 근무 여부(%)	80.0
예상 은퇴 연령(세)	63.7
	(65.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VIII. 인식조사

재정패널 조사는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3차년도부터 진행하였다. 조세제도의 특성상 해마다 동일한 문항 뿐 아니라 그 당해 이슈가 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조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를들어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세금납부에 대한 정부혜택에 대한 의견, 세 부담 인식의 문항은 3차년도부터 7차년도 까지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 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는 3차년도 통일세와 관련된 문항은 4차년도에 한시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도별 조사 결과 비교를 위하여 연속적으로 조사된 문항들 위주로 비교 분석 하였다. 또한 7차년도에 신규로 작성된 문항인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추가 분석하였다.

### 1.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 가.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연도별 가구원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행 조세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차수에서 약 절반 절반 가량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그 외 2013년 기준으로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는 9.9%,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는 7.9%였으며 '소득 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6.5%로 가장 낮았다.

<표 VI-1> 조세제도 인식 -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 수준을 잘 반영	4.1	4.9	6.0	6.6	6.5
고소득층에 유리	49.2	56.0	51.4	50.2	51.3
중산층에 유리	18.9	15.3	16.6	12.1	9.9
저소득층에 유리	6.8	4.0	6.0	6.8	7.9
잘 모름	21.1	19.8	20.0	24.3	24.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본인 납부 세금을 비교하여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2009년 39.4%, 2010년 38.5%, 2011년 41.7%, 2012년 41.0%, 2013년 39.4%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평균 32.3%로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보다 약간 낮았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모든 차수에서 1%이하(2009년 0.5%, 2010년 0.7%, 2011년 0.9%, 2012년 1.0%, 2013년 0.9%)로 매우 낮아 전반적으로 본인이 받는 정부 혜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표 VI-2> 조세제도 인식 - 본인 납부 세금과 정부혜택에 대한 인식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우 높은 수준	0.5	0.7	0.9	1.0	0.9
대체로 높은 수준	17.0	14.6	14.6	12.5	13.0
적당한 수준	39.4	38.5	41.7	41.0	39.4
대체로 낮은 수준	33.6	33.4	32.2	29.2	32.9
매우 낮은 수준	9.6	12.8	10.6	16.3	13.8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2010년도를 제외한 모든 차수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2010년도의 경우는 49.3% 거의 절반 가량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해 다른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나 대체로 낮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적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적당한 수준 또는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3> 조세제도 인식 - 본인의 세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우 높은 수준	3.6	3.9	3.6	6.1	5.2
대체로 높은 수준	36.3	37.0	34.3	31.2	34.5
적당한 수준	50.1	49.3	52.6	52.8	51.0
대체로 낮은 수준	8.8	8.0	7.4	5.8	6.7
매우 낮은 수준	1.2	1.8	2.1	4.1	2.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나.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5차년도 조사부터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복지정책 확대 찬반과 찬성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어느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응답자의 47.1%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2.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복지정책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통 또는 긍정적인 답변은 2011년도 86.3%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3년은 3.5%p 증가한 89.9%로 부정적인 답변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I-4> 복지정책 인식 -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우 찬성	8.2	14.9	12.8
대체로 찬성	43.0	44.3	47.1
보통	35.1	27.8	29.9
대체로 반대	12.2	11.8	8.8
매우 반대	1.5	1.2	1.3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복지정책 확대에 찬성 또는 보통의 의견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지정책 확대를 위하여 현재 세금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현재 세금의 5%~10%미만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011년 43.5%, 2012년 44.7%, 2013년 4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현재 세금의 10~15%(2011년 35.5%, 2012년 28.1%, 2013년 30.3%), 현재 세금이 5%미만(2011년 8.3%, 2012년 15.0%, 2013년 13.0%) 순이었다. 그 외 부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3%이하로 매우 적었다. 한편 15%이상 부담 의향이 있는 경우는 2012년도 까지 10%이상이었으나 2013년의 경우 8.9%로 하락하였다.

<표 VI-5> 복지정책 인식 - 복지정책 확대 찬성 시 추가 세부담 의향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음	0.3	0.3	0.0
현재 세금의 5% 미만	8.3	15.0	13.0
현재 세금의 5~10% 미만	43.5	44.7	47.8
현재 세금의 10~15% 미만	35.5	28.1	30.3
현재 세금의 15% 이상	12.3	11.9	8.9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복지정책 확대에 찬성 또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2. 신뢰

7차년도 조사부터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부분에서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10점 척도(1점: 대부분 믿을 수 있다. 10점 : 대부분 믿을 수 없다)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5.4(중앙값 5) 수준이었다.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5점대가 2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점(17.2%), 7점(14.7%)순이었다. 그 외 1범이나 10점의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표 VI-6> 복지정책 인식 - 복지정책 확대 찬성 시 추가 세부담 의향

단위(%)	2013년
평균	5.3
중앙값	(5.0)
1점	0.5
2점	3.8
3점	14.3
4점	17.2
5점	20.1
6점	13.8
7점	14.7
8점	12.4
9점	2.8
10점	0.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